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DEVELOPING A HOLISTIC CHRISTIAN EDUCATION AND TEXTBOOKS FOR YOUTH IN LOCAL CHURCHES WITH VISION, MENTORING, SPIRITUALITY, AND LEADERSHIP**

written by

**DAE EUN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Yong Hwan Kim



---

Euiwan Cho



---

Jin Ki Hwang

February 27, 2014

**DEVELOPING A HOLISTIC CHRISTIAN  
EDUCATION AND TEXTBOOKS FOR YOUTH IN  
LOCAL CHURCHES WITH VISION, MENTORING,  
SPIRITUALITY, AND LEADERSHIP**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DAE EUN KIM**

FEBRUARY 2014

청(소)년을 위한  
통전적 교회교육 및 교재 개발:  
비전·멘토링·영성·리더십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용 환 교수

김 대 은

2014년 2월

## Abstract

Developing a Holistic Christian Education Program and Textbooks for  
Youth in Local Churches with Vision, Mentoring, Spirituality, and Leadership

Dae Eun Kim

Doctor of Ministry

201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suggests a Christian approach to holistic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rresponding education materials for the well-rounded growth of young people.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is a conviction that youth problems should be approached concretely by recovering education. The study repudiates forms of education that discount individual aptitude and ability, disregard character formation, and attend only to gaining knowledge (or at best college entrance preparation). Instead, it suggests a holistic form of education that engages the body, mind, and spirit, aiming at balanced growth of the whole person.

Holistic education consists of four essential elements: vision, mentoring, spirituality, and leadership. Vision provides youth with a constructive direction for one's life. The mentoring element specifies that a young person with a vision needs a proper counselor to make sense of what it means to pay the price to follow his/her vision. The spirituality element spells out a process of conforming to Christ's character. Leadership involves not just overcoming a self-centered lifestyle but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exercising a good influence on the surrounding world. These four elements are incorporated into a holistic education program, which I call "School of the Tree Planted by Streams" (Ps 1:3),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education materials. Following the model of secular after-school programs, this form of church education extends the current one-day Sunday school system to the whole week.

This paper presents the research questions and findings in the following



## 감사의 글

미국에 오기 전에 나무심기를 추천한 친구의 말을 듣고 논과 밭에 어린 관상수 묘목을 꽤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모두 말기고 미국에 왔는데 나무심어 놓은 한국에 태풍이나 장마가 온 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급히 오면서 나무의 지지대 작업을 하지 못한 까닭에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거나 수형이 잘못 잡힐까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나무에 대한 이런 걱정은 논문을 쓰게 된 모티브가 되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시 1:3)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형통의 원리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통의 원리들은 어린 묘목과 같이 빠르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고, 전인적인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통전적 교육 원리로서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을 발견하여 교육교재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뻗어가는 방향성을 비전, 지지대로 원줄기를 받쳐주고 원줄기는 가지를 튼튼하게 붙잡아 주는 역할을 멘토링,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의 건강도를 영성, 나무의 열매가 주는 영향력을 리더십으로 보았습니다. 이 논문을 쓰면서도 한 번 깨닫는 것은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있게 해주신 김용환 지도교수님, 그리고 논문 부지도를 맡아주신 조의완 교수님, 논문제안서를 제출하기까지 함께 고민해 주셨던 황진기 교수님, 그리고 풀러로 인도해주신 김세윤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남아 두 딸을 돌보며 저를 도운 아내 이은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이곳에서 공부와 논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있게 하신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타국에서 나그네로서 서로 마음을 나눈 풀러 동문들과 LA타운에서 함께 운동하며 교제했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0월 김대은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개요 .....	3
1. 연구의 방법 .....	3
2. 연구의 개요 .....	3
제 2 장 청(소)년기의 발달 이해 .....	6
제 1 절 신체적 발달(Physical Development) .....	8
1. 사춘기의 신체적 발달 .....	8
2. 남녀의 신체적 발달 차이점 .....	9
제 2 절 인지적 발달(Intellectual Development) .....	10
1. 사춘기의 인지적 발달 .....	10
2. 남녀의 인지적 발달 차이점 .....	11
3.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적 발달이론 .....	12
가. 피아제는 인지적 발달 단계 .....	12
나. 청(소)년기의 인지적 발달 단계 .....	12
다.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의 평가와 문제점 .....	13
제 3 절 정서적 발달(Emotional Development) .....	14
1. 사춘기의 정서적 발달 .....	14
2. 남녀의 정서적 발달 차이점 .....	15
3. 에릭슨(Erik Erikson)의 정서적 발달이론 .....	16
가. 에릭슨의 정서적 발달 단계 .....	16
나. 청(소)년기의 정서적 발달 단계 .....	16
다. 에릭슨 이론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	17
제 4 절 사회적 발달(Social Development) .....	18

1. 사춘기의 사회적 발달 .....	18
2. 남녀의 사회적 발달 차이점 .....	18
3.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 단계 .....	20
가. 자아 개념(self-concept) .....	20
나. 자아 존중감(self-esteem) .....	21
다. 자아 정체감(ego-identity) .....	21
제 5절 도덕적 발달(Moral Development) .....	22
1. 사춘기의 도덕적 발달 .....	22
2. 남녀의 도덕적 발달 차이점 .....	22
3. 콜버그(Laurence Kohlberg)의 도덕적 발달이론 .....	23
가.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단계 .....	23
나. 청(소)년기의 도덕적 발달 단계 .....	23
다. 콜버그 이론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	24
제 6 절 신앙적 발달(Spiritual Development) .....	25
1. 사춘기의 신앙적 발달 .....	25
2. 파올러(James Fowler)의 신앙적 발달이론 .....	26
가. 파올러의 신앙적 발달 단계 .....	26
나. 청(소)년의 신앙적 발달 단계 .....	27
다. 파올러 이론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	28
제 7 절 요약 및 평가 .....	28
제 3 장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교육 .....	30
제 1 절 발달주의 시각으로 본 청(소)년 기독교 교육 .....	30
1. 인간발달 이론의 주의사항 .....	31
2. 기독교 교육과 발달주의의 유사성 .....	32
3. 청(소)년 발달 이론을 접목한 기독교 교육 .....	33
4. 청(소)년 발달 이론을 근거로 한 지도방법 .....	34
제 2 절 통전적 시각으로 본 청(소)년 기독교 교육 .....	36



1. 통전적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 .....	37
2. 통전적 기독교교육의 방법 .....	39
3. 성경에서 발견되는 통전적 원리 .....	40
4.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성장 원리들 .....	41
가. 나무의 뿌리, 비전(Vision) .....	41
나. 나무의 원줄기, 멘토링(Mentoring) .....	42
다. 나무의 가지, 영성(Spirituality) .....	43
라. 나무의 열매, 리더십(Leadership) .....	44
5.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적용 대상과 시기 .....	44
6.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성장 원리들 평가 .....	47
제 3 절 청(소)년 기독교 교육의 현장 보고서 .....	49
1. 세인고등학교 .....	49
가. 비전의 관점으로 본 세인고등학교 .....	50
나. 멘토링의 관점으로 본 세인고등학교 .....	51
다. 영성의 관점으로 본 세인고등학교 .....	53
라. 리더십 관점으로 본 세인고등학교 .....	55
2. 통전적 원리로 본 세인고등학교 교육의 평가 .....	56
제 4 절 청(소)년 사역을 위한 기독교 교육 설계 .....	57
1. 청(소)년 사역 설계의 필요성 .....	58
2. 청(소)년 사역 위한 목표 .....	59
3. 청(소)년 사역의 방법 선택요소 .....	60
4. 실습을 위한 설계 .....	61
제 5 절 요약 및 평가 .....	62
제 4 장 바울 서신서를 통한 비전·멘토링·영성·리더십의 성경적 검증 .....	64
제 1 절 바울의 첫 번째 목회원리, 비전 .....	65
1. 구원과 소명의 관점에서 비전이해 .....	66
2. 사명과 기도의 관점에서 비전이해 .....	67

3. 믿음과 소망의 관점에서 비전이해 .....	68
4. 헌신과 사랑의 관점에서 비전이해 .....	69
제 2 절 바울의 두 번째 목회원리, 멘토링 .....	69
1. 바울의 멘토링 이해 .....	70
2. 바울의 멘토링 사례들 .....	72
제 3 절 바울의 세 번째 목회원리, 영성 .....	73
1. 십자가의 영성 .....	74
2. 관계의 영성 .....	76
3. 역설에 의한 자족의 영성 .....	78
4. 타자주의 영성 .....	80
제 4 절 바울의 네 번째 목회원리, 는 리더십 .....	80
1. 사도적 리더십 .....	81
2. 동역자와 함께 하는 팀 리더십 .....	82
3. 본을 보이는 리더십 .....	83
4. 섬김의 리더십 .....	83
제 5 절 요약 및 평가 .....	84
5장 청(소)년 위한 통전적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구성 .....	86
제 1 절 교회학교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	87
1. 교회학교 청(소)년 부서의 위기 .....	87
가. 교회학교의 외부적 위기 .....	87
나. 교회학교의 내부적 위기 .....	88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필요성 .....	89
제 2 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 .....	91
1. 비전 선언문 .....	91
2. 사명 진술서 .....	92
3. 교육목표 .....	92
4. 통전적 교육원리 및 교육대상 .....	92

5. 교육대상 그룹 및 지원 조건 .....	93
6. 교육과정 .....	93
7. 교육 계획서의 특징 .....	94
8. 교육활동 내용 .....	94
9. 교육 모임 .....	94
10. 실습 및 평가 .....	95
11.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교육 장점 .....	96
12.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커리큘럼 .....	98
제 3 절 통전적 교육 교재의 구성 .....	99
1. 교육교재의 목표 .....	99
2. 교육교재의 활용 범위 .....	99
3. 교육교재의 활용 방법 .....	99
4. 교육교재의 강의 방법 .....	100
5. 교육교재의 특징 .....	100
6. 교육교재의 활용지침 및 순서 .....	101
제 4 절 요약 및 평가 .....	102
제 6 장 교회학교 청(소)년을 위한 통전적 교육 교재 1 .....	104
제 1 절 비전교육, 생명을 걸 수 있는 비전을 가지게 하라 .....	104
1. 들어가는 말 .....	104
2. 비전의 필요성 .....	105
3. 비전에 대한 오해와 이해 .....	105
4. 성경적 관점의 비전 .....	106
5. 비전과 신학적 용어들과의 관계 .....	106
6. 비전의 특징 .....	108
7. 성경에서 찾은 비전의 사람들 .....	109
8. 비전이 주는 유익 .....	110
9. 비전의 주의사항 .....	111

제 2 절 비전 실습 가이드 .....	112
1. 비전 선언문과 사명진술서의 유익 .....	112
2. 비전을 찾기 위한 자격 및 준비 .....	112
3. 비전을 찾기 위한 환경적 요소들 탐구 .....	113
4. 비전을 찾기 위한 개인적 탐구 .....	113
5. 비전을 찾기 위한 신앙적 탐구 .....	113
6. 비전과 사명, 은사와의 관계성 .....	114
7. 비전 선언문 작성 .....	114
8. 사명 진술서 작성 .....	115
9. 비전 선언문 및 사명진술서 발표 및 검토 .....	116
제 3 절 멘토링 교육,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라 .....	116
1. 들어가는 말 .....	116
2. 멘토링의 필요성 .....	116
3. 멘토링의 유래 .....	117
4. 멘토링의 오해와 이해 .....	118
5. 성경에 나타난 멘토링 사례들 .....	120
6. 멘토의 자격 및 역할 .....	122
7. 멘토링 하는 방법 .....	122
8. 멘토링이 주는 유익 .....	123
9. 멘토링의 주의사항 .....	124
제 4 절 멘토링 실습 가이드 .....	125
1. 멘토링의 시기와 자격 .....	125
2. 멘토링 점검하기 .....	125
3. 멘토링시 멘토와 멘티 선정 조건 .....	126
4. 현장에서 멘토와 멘티 찾기 .....	126
5. 멘토링시 필요한 서류 .....	127
6. 멘토링시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	127
7. 멘토링의 20대 수칙 .....	128

제 5 절 요약 및 평가 .....	129
제 7 장 교회학교 청(소)년을 위한 통전적 교육 교재 2 .....	131
제 1 절 영성교육, 영성으로 현실에 뿌리 내려라 .....	131
1. 들어가는 말 .....	131
2. 영성의 필요성 .....	132
3. 영성에 대한 오해와 이해 .....	133
4. 영성의 요소들 .....	134
5. 영성의 인물들 .....	137
6. 영성의 특징 .....	139
7. 영성 가꾸기 .....	140
제 2 절 영성 실습 가이드 .....	141
1. 영성지수 측정 .....	141
2. 영성발달 수준 평가 .....	142
3. 영성발달 과정 .....	143
제 3 절 리더십 교육,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 .....	144
1. 들어가는 말 .....	145
2. 리더십의 필요성 .....	145
3. 리더십 유형의 오해와 이해 .....	146
4. 성경적 리더십의 유형 .....	149
5. 리더십의 법칙들 .....	151
6. 리더의 성경적 자격 조건 .....	153
7. 리더의 주의사항 .....	154
8. 리더십과 비전, 멘토링, 영성의 관계성 .....	155
제 4 절 리더십 실습 가이드 .....	157
1. 리더십 평가하기 .....	157
2. 리더의 리더십(성품) 계발하기 .....	159
3. 리더십의 기술 .....	160

제 5 절 요약 및 평가 .....	161
제 8 장 결 론 .....	163
제 1 절 논문의 요약 .....	163
제 2 절 연구의 의의 .....	165
제 3 절 연구의 적용 가능성 및 제언 .....	166
부록 .....	168
참고 문헌 .....	186
Vita .....	193

## 표 목 차

〈표 1〉 울트만의 청(소)년의 연령분석표 .....	7
〈표 2〉 피아제의 인지적 발달 단계 .....	12
〈표 3〉 에릭슨의 전 생애 8단계 .....	16
〈표 4〉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단계 .....	23
〈표 5〉 파울러의 신앙적 발달 여섯 단계 .....	26-27
〈표 6〉 울트만의 연령분류법에 따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대상 시기 ...	46
〈표 7〉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통전적 교육 커리큘럼 구성 .....	98-99
〈표 8〉 영성지수 측정 .....	142
〈표 9〉 심슨의 행위영역 학습이론 .....	142-143
〈표 10〉 영성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	143
〈표 11〉 리더십 평가서 .....	158

## 그 립 목 차

〈그림 1〉 포도나무 비유를 통한 4가지 통전적 원리의 역할 및 상호연관성 .....	48
〈그림 2〉 청(소)년 부서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위치 .....	97
〈그림 3〉 영성발달의 통전적 모델 .....	144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청(소)년<sup>1)</sup>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청(소)년 문제는 어느 때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불신, 친구간의 왕따, 폭력, 성적비판, 우울증, 자살충동 및 자살 등과 같이 학교가 오히려 범죄와 폭력의 온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가정은 핵가족으로 인한 소속감 약화와 가장의 권위가 약해짐에 따라 가치규범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저속한 대중문화의 소비성향, 음란성, 폭력성, 중독, 성매매 등은 청(소)년 비행과 범죄행위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교회안의 청(소)년들은 괜찮은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비관적이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청(소)년 부서의 침체와 청(소)년들의 감소현상으로 나타난다. 청(소)년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학교나 가정, 교회에서도 그 해결책을 내놓기 힘들다고 본다.

필자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 문제의 대안을 구상해 볼 때 청(소)년 문제의 대부분은 교육의 부재에서 왔다고 본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회복하는 길 역시 교육의 회복이라고 본다.

청(소)년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 인격이 무시되는 교육, 단편적 지

---

1) 필자는 청(소)년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을 언급하고 있는 도널드 올트만(Donald S. Aultman)의 이론을 따르고자 한다. 청소년과 청년의 구별이 아닌 통합으로 '청(소)년(Yout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Donald S. Aultman, "청소년 조직," Roy B. Zuck, *교회와 청소년 교육 (Youth and the Church: A Survey of the Church's Ministry to Youth)*,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171.



식의 교육,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 인지적 차원만 강조하는 교육, 입시위주의 평가 중심의 교육 등은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협하는 위험한 교육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청(소)년의 육체와 정신, 영혼 그리고 지, 정, 의의 인격을 성장하도록 돕는 ‘전인적(Wholistic)’<sup>2)</sup>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교회학교 중,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서 시행착오(試行錯誤)하며 사역했던 열매들을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며 교재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반학교는 교육의 한계성으로 ‘방과 후 학교’나 ‘대안학교’ 등을 개설하여 교육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주일)학교<sup>3)</sup>에서도 청(소)년의 회복을 위한 교육의 시도가 시급하다.

청(소)년들을 기독교형 대안학교에 보낼 수 없다면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의 형식을 모델로 하여 교회학교에서도 주일의 예배와 부서모임의 연장선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차원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학교’라는 명칭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교육교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교회 교육이 단편적이고, 인지적 차원에서 실시되던 제한적 신앙교육이었다면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교육은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의 ‘통전적(wholistic)’<sup>4)</sup> 교육체계 프로그램이며 교재이다. 청(소)년들이 때와 시기마다 발달해야

2) Wholistic은 ‘전인적’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세 가지 심적(心的)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 원만한 인격을 지닌 사람의 것으로, 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전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관심을 기울이는 온전함을 뜻한다. Daum국어사전, “전인적,” n.p. [2013년 10월 인용] Online: [http://dic.daum.net/word/...../\\*.htm](http://dic.daum.net/word/...../*.htm).

3) 교회학교의 교육은 주일학교(sunday school)나 교회학교(church school)를 포함하지만 교회라는 신앙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교육적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은준관, *기독교 교육 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2002), 119. 필자는 교회(주일)학교의 용어를 교회학교의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4) 통전주의(Wholism)이란 개념은 1962년 스머츠(J. C. Smuts)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창조적인 진화를 통해 부분의 합계 이상의 보다 더 큰 전체를 형성하는 자연적 경향으로 보았다. 그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형식들과 형태들은 전체로 현존하려는 본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체로 현존하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전체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오인택, “홀리즘에 대한 교육철학적 성찰,” *교육철학*, 2009년 10월호, 147. 통전성은 통합성(integrated), 포괄성(comprehensive), 전체성(holistic)의 세 가지 의미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헬라이어 holon에서 기원하였다. 통전적이란 말은 어원적으로 전체적(Whole)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개체성

할 부분들, 즉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인 부분들을 통전적 교육원리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으로 청(소)년의 전인적인 변화와 성숙, 성장을 돕는데 본 논문의 목적을 가진다.

## 제 2 절 연구방법 및 개요

### 1.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문헌연구로서 청(소)년 발달이론, 기독교 교육, 바울 서신서를 통하여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에 필요한 통전적 교육 원리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을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둘째는 현장분석 연구로서 기독교 교육의 차원에서 기독교형 대안학교인 세인고등학교를 통하여 통전적 교육 원리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이 어떻게 교육에 적용되어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는 교육교재 연구에서 인지적 차원의 교육교재가 아니라 이론(50%)과 실습(50%)을 동일한 비율로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 교육교재를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 2. 연구의 개요

이 논문은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서론의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의 의의 및 연구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청(소)년의 시기와 때에 따른 발달 단계를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 발달과정을 다루면서 각 단계들의 특징과 개념들을 정립할 것이

---

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체를 인정하면서 총체로서의 통합을 의미한다. 서로의 부분적인 일을 무시하지 않고 각 개체를 인정하면서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은하, “통전적 영성교육 연구-일상생활의 영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27. 기독교 관점에서 ‘통전’은 과학적 진리를 통하여 발견된 진리와 함께 인간이 하나님과의 상호교통을 통해 얻은 계시적 진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과정이다. Michael J. Anthony,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01), 365-367. 또한 관련 성경 구절들이 있다 (딤후 3:16-17; 롬 1:21; 사 55:8-9; 마 6:24; 요 17:15; 고전 9:22). 특별계시와 과학적 진리가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진리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청(소)년 각 개인마다 발달의 정도는 차이가 나지만 발달 형태의 변화는 동일하게 일어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의 청(소)년의 발달이론을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발달주의 기독교 교육과 통전적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복잡하고 다양한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특히 세인고등학교의 현장을 통해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3장의 기독교 교육의 차원에서 설명되어졌다면 4장은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 서신서를 통하여 바울의 목회의 구성요소의 핵심이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이라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네 가지 통전적 교육원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현장중심의 성경적, 신학적 검증을 통해 살펴 볼 것이다.

5장에서는 한국교회학교의 침체의 원인을 살펴면서 그 대안으로 일반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교회학교에서도 필요함을 제시하며 방과 후 학교를 교회의 차원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학교’로 명칭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며 세부적인 교육교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3장의 기독교 교육의 이론을 토대로 현장에 적용할 것이다.

6장에서는 교육 교재의 첫 번째 내용으로 비전과 비전실습, 멘토링과 멘토링 실습을 다룰 것이다. 비전 교육은 ‘생명 걸만한 비전을 가지라’는 것이고, 멘토링 교육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라’는 주제로 교재를 만들기 위한 자세한 내용들을 제시할 것이다. 비전과 멘토링의 관계는 비전의 대가를 지불함에 멘토링이 필요함을 말한다.

7장에서는 교육 교재의 두 번째 내용으로 영성과 영성실습, 리더십과 리더십 실습을 다룰 것이다. 영성 교육은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을 소유하라’는 것이고, 리더십 교육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주제로 교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할 것이다. 영성이 안으로서의 변화라면 리더십은 밖으로서의 변화를 말한다.

8장에서는 결론으로 이제까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며 더 나은 연구를 위해 부족한 점을 제언으로 마무리 짓는다. 다루고자 하는 원리가 네 가지나 되기 때문에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부록을 첨부하였다.

## 제 2 장

### 청(소)년기의 발달 이해

전 생애 인간발달(life-span human development)<sup>5)</sup>은 인간의 신체변화는 물론 성격, 사고방식, 감정, 행동, 대인관계 및 인간 삶의 각 시기에 수행하는 역할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sup>6)</sup> 인간은 일생 동안 성장과 발달 그리고 쇠퇴의 과정을 거처가면서 변화를 거듭하는데 특히 청(소)년 시기가 인생에 있어 갈등과 방황, 혼돈의 시기일 수 있는 것은 유년기도 성년기도 아닌 중간 단계로써 변화와 다양성에 있어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춘기의 성장단계에서 일어나는 전인적인 변화의 갈등과 선택 및 도전들에 어려워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에릭슨(Erik Erikson)도 청(소)년의 시기를 유년기에서 성인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의 시기로 그리며 유년기와 성인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곡예사(tumbler)로 묘사하고 있다.<sup>7)</sup> 그리고 프리덴버그(Edgar Friedenberg)도 “청년기는 오래 끄는-개인과 사회간의-갈등의 시기”<sup>8)</sup>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청(소)년기를 이해하여 본다면, 청(소)년기가 성인기를 준비하는 도약의 시기라고 말할 수도 있다. 바이남(Bill Bynum)은 청소년 시절을 새 단어로 표현하였는데 “역동적이고, 행동을 예측할 수 없으며, 요구하는 시절”<sup>9)</sup>이라고

5) 발테스(Baltes)는 생애발달적 접근을 특정시기의 발달적 특성을 수정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 발달과 관련지어 고려하는 입장을 표하며, 생애발달적 접근은 청(소)년기를 보다 거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관점의 폭을 넓혀주는 장점이 있고 특히 청(소)년 갈등과 혼돈을 성인기 생애설계의 준비라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송명자,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6), 322-323.

6) 장휘숙, *인간발달: 전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2000), 4-5.

7) Frances Anderson, “청소년 발달,” James C. Wilhoit and John M. Dettoni, (*발달주의적 시각으로 본) 기독교적 양육 (Nuture that is Christian: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Christian Education)*, 김도일, 김정훈 역 (서울: 쿤란출판사, 2005), 209-210.

8) Edgar Friedenberg, *The Vanishing Adolescent* (Boston: Beacon Press, 1959), 12.

9) Bill Bynum, *청소년 이해와 교회교육 (Church Group Work with Young Adults)*, 김현철 역 (서울: 나침반, 1985), 13.

말한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시기를 갈등과 방황의 혼돈시기로 대안을 구상해야 하는가, 아니면 생기 넘치는 활기와 생명력으로 성인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볼 것인가는 중요하다.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따라 청(소)년의 미래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필자는 청(소)년의 시기가 다른 어떤 시기보다 모든 부분에서 역동적인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시기로 보면서 에릭슨의 주변인의 청(소)년으로서 수동적인 도움만 받아야 하는 모호한 시기가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발달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 발달 단계는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 각 단계가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연령별 범위를 안다면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구체적인 연령범위를 인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필자는 청(소)년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을 언급하고 있는 도날드 울트만(Donald S. Aultman)의 이론을 따르고자 한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의 구별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Yout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도날드 울트만은 청(소)년의 시기를 12세에서 24세로 범위를 정하지만, 젊은 이들의 빠른 성숙과 교육과 오락의 새로운 형태, 그리고 고소득을 올리는 십대들의 수적 증가 등은 청(소)년의 연령을 더욱 낮춘다고 말한다. 아래 도표는 미국실정에서 맞춘 것으로 한국교회에서도 실현가능하다고 본다.<sup>10)</sup>

청(소)년 (12-24세)	(초기) 청(소)년 12-13세, 또는 12-14세	12-13세	12세
			13세
	(중기) 청(소)년 14-17세, 또는 15-17세	14-15세	14세
			15세
		16-17세	16세
			17세
	(후기) 청(소)년 18-24세	대학생 직장인	18세
			대학생 직장인
기혼자		기혼자	

〈표 1〉 울트만의 청(소)년의 연령분석표

10) Aultman, "청소년 조직," 172.

본 장에서는 유년기와 성인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곡예사와 같은 청(소)년기를 설명한 에릭슨의 주장이 아니라 청(소)년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약 12년의 시간이 발달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교육교재를 만들기 위한 전제로 청(소)년 발달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 발달 단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청(소)년 발달 단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신체적 발달(Physical Development)

청(소)년기를 제2의 신체발육 급증기(adolescent growth spurt)<sup>11)</sup>라 부르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체 및 성적발달은 청(소)년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 1. 사춘기의 신체적 발달

사춘기<sup>12)</sup>가 되면 성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대표적인 남성호르몬은 안드로젠(androgen)이고, 여성호르몬은 에스트로젠(estrogen)이다. 분비가 증가함에 따라 1차 성장과 2차 성장의 발달이 촉진되며, 1차 성장은 출생시의 생식기에 의한 신체상의 성 특징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손의 생식에 필수적인 남자의 고환과 음경 그리고 여자의 난소와 자궁을 포함한다. 그리고 2차 성장은 청(소)년기의 성호르몬의 분비에 의해 나타나는 신체적 성 특징을 가리키는 것으로 남녀 체격 발달, 가슴 발육, 체모분포 및 음성변화를 포함한다. 이 시기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은 내분비선에서

11) 제1성장급증은 첫 2년 동안인 영아기에 일어나고 제2성장급증은 청(소)년기에 일어난다. 이 시기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은 내분비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증가에 기인한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시상하부의 뇌하수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분비선은 갑상선, 부신피질, 생식선 등이다. 즉, 뇌하수체의 활동은 직접적으로 신체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 신체성장, 근육강도, 협응능력 등에 영향을 준다. 이옥형, 아동·청년 발달 (서울: 집문당, 2002), 392-393.

12) 사춘기는 유전, 호르몬, 체중, 체지방과 렙틴의 요인들과 일어나며 가장 극적인 신체발달은 신장과 체중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성적인 발달이다. 바이남은 사춘기의 시기를 정의하면, 사춘기 초기는 12-14세, 사춘기 중기는 15-17세, 사춘기 말기는 18-20세로 보았다. 울트만은 청(소)년 시기를 24세까지 보기 때문에 4년의 차이가 난다. Bynum, 청소년 이해와 교회교육, 27.

분비되는 호르몬 증가에 기인한다.<sup>13)</sup>

성적 성숙 시작의 지표로서는 여자는 초경, 남자는 성적 성숙의 표시는 없으나 대략 사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들고 있다. 이 모든 성적 성숙의 결정 요인을 영양, 건강, 유전 그리고 체중이며<sup>14)</sup> 또한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 영양, 심리적 보살핌 등에서 보다 좋은 환경적 요인이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보인다.<sup>15)</sup>

## 2. 남녀의 신체적 발달 차이점

사춘기에는 성호르몬의 분비와 더불어 성적 발육(pubescence)이 시작되는데 첫째, 사춘기의 성적발달 시기는 대체로 여자는 9세에서 17세 사이에, 그리고 남자는 10세에서 18세 사이에 성적성숙이 이루어진다. 정상적인 청(소)년에게서도 성적성숙의 시기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춘기 신체상의 발달순서는 여자의 경우 유방의 발육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이어서 음모가 자라기 시작하며, 신장과 체중의 발육 급증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초경(menarche)이 있게 된다. 여자의 99%는 신체적 급성장 후 초경이 시작되는데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크지만, 영양·운동·스트레스 등 개인적 환경요인의 영향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자의 경우는 고환의 발육이 먼저 시작되고, 음모가 자라며, 고환의 발육이 계속되고, 음경이 커지며, 몽정이 있고, 신체발육의 급증이 뒤따른 후 변성이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체모가 자라기 시작한다. 사춘기 성장은 대체로 2년 동안 계속되며, 난자와 정자를 배출할 수 있게 되면 성장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셋째, 호르몬이 분비되어 체내 변화로 빠른 성장을 촉진하며 성적발육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체외변화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비율은 다르지만 남자보다 여자들의 성숙이 빠르며 신체적 긍정적인 차원은 반대로 여자보다 남자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장 급증기에는 신장뿐 만 아니라 체중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데 키와 유사하게 몸무게 발달에도 성차가 있어 초기에는 여자가 더 무겁다가 남자가 사춘기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남자가 더 무겁게 된다.<sup>17)</sup> 넷째, 신장과 체중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또한 남녀의 체형도 다르게 변모하는데 남자는

13) 이옥형, *아동·청년 발달*, 393.

14) 이옥형, *아동·청년 발달*, 396.

15) 송명자, *발달심리학*, 328.

16) 송명자, *발달심리학*, 328.

17) 이옥형, *아동·청년 발달*, 393.



골반에 비해 어깨가 넓어지고, 몸통에 비하여 다리가 길어지며, 근육이 발달하여 남성다운 외모를 갖게 된다. 반면 여자는 어깨가 좁고 골반이 넓어지며, 몸통에 비하여 다리가 짧아지며, 피하지방이 발달하여 여성다운 외모를 갖게 된다. 이처럼 남녀의 체형이 달라지는 것은 성장급증기 동안 성호르몬 영향으로 남자는 피하지방이 빠르게 없어져 모난 체형으로 변하는 반면, 여자는 골반, 가슴 등에 체지방이 축적되어 둥근 체형으로 변하기 때문이다.<sup>18)</sup>

성장급증기에는 남녀 차이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신체부위의 변화도 가져온다. 머리의 크기가 신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져 머리가 신장의 1/8정도의 팔등신을 이루고, 다리가 몸통보다 더 길고, 팔 다리에 비하여 손과 발이 더 커 보여 일시적인 신체 불균형상태를 나타낸다. 얼굴 모양은 둥근 모양에서 길쭉한 모양으로 바뀌고, 코와 입이 크고 넓어져 얼굴 윤곽이 달라진다.<sup>19)</sup>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춘기 성적발달 속도는 시작 시기에서 개인차가 크지만, 발달순서는 비교적 고정적이며 일정하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 제 2 절 인지적 발달(Intellectual Development)

청(소)년들은 생물학적 존재일 뿐 아니라 정신적 존재이다.<sup>21)</sup> 청(소)년 시기의 변화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사춘기의 생물학적 변화나 사회적인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인지적 발달도 다른 발달 못지않게 중요하다. 의사결정시에는 비판적이며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인지적 발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사고에서 추상적 사고로, 그리고 다시 관념적 사고로 이동한다는 것은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에서 주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1. 사춘기의 인지적 발달

사춘기 초기의 청(소)년은 정신적인 힘은 정신적 자각과 지식에 대한 열망의 증

18) 이옥형, *아동·청년 발달*, 394.

19) 이옥형, *아동·청년 발달*, 394.

20) 송명자, *발달심리학*, 328.

21) John W. Santrock, *청년심리학 (Adolescence)*, 김현정 외 역 (서울: 도서출판 박학사, 2004), 27.

가와 함께 급속도로 드러난다. 태도가 바뀌고 상상력이 증대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잘 현혹되기도 한다. 청(소)년 시기는 매우 개방적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 둔감할 때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발언은 곧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게 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춘기 중기의 정신적 성장은 합리적인 사고의 능력증대로 특징지을 수 있다.<sup>22)</sup>

따라서 청(소)년기의 정신·사회학적으로 보면, 아동과 성인의 중간 단계로 아동 시기에 배운 도덕성과 성인이 되어 발전하게 되는 윤리의식 사이의 단계에 있는 '유예' 기간의 상태로 청(소)년기의 정신은 관념적이라 할 수 있다.<sup>23)</sup> 대체로 청(소)년의 인지적 특징은 태도가 바뀌고 상상력이 증대되며,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증대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2. 남녀의 인지적 발달 차이점

청(소)년 초기의 남녀의 지식수준은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여자들이 언어와 차이점 인식에 있어서는 수준이 높은 편이고, 남자들은 작업검사나 수학에 있어서 더 나은 편이다. 그리고 호기심의 부분도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남녀 다르게 나타난다.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와 친구들이지만 남자에게 있어서는 자동차와 운동에 관심을 두고 남자 어른들의 몸짓을 닮으려고 노력한다.<sup>24)</sup>

그러나 공통점도 있다. 남녀 청(소)년들은 정신적 자각과 지식에 대한 열망의 증가로 책읽기와 간접적 경험을 통해 배워나가며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다른 사람과 말하기를 좋아하며 그 중에서도 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기계적인 암기방법은 싫어하는 반면, 공동적이며 의미, 경험되어졌던 것은 기억을 잘 하는 편이다.<sup>25)</sup>

22) Bynum, *청소년 이해와 교회교육*, 28.

23) Eugens S. Gibbs, *한권으로 읽는 교육학 명저 24선 (A Reader in Christian Education: Foundations and Basic Perspective)*, 독고앤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9), 30.

24) Margaret Jacobsen, "중학생들의 특성과 필요," Zuck, *교회와 청소년 교육*, 107-109.

25) Jacobsen, "중학생들의 특성과 필요," 107-109.

### 3.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적 발달이론

#### 가. 피아제의 인지적 발달 단계

피아제는 인간의 정신을 마치 무엇인가 그려지기를 원하는 백지와 같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며, 단순히 자극만을 기다리면서 반응을 보일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정신의 구조가 자발적으로 ‘균형을 잃는’ 새로운 내용물에 대해 반응하는 학습 과정 중에서 정신은 매우 능동적인 것이라고 보았다.<sup>26)</sup> 신체구조는 이러한 상태를 좋아하지 않으며 ‘평행’ 또는 ‘균형 잡힌 상태’가 되려고 한다. 피아제는 이것을 ‘발생론적 인식론’이라고 부르며 각 단계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네 단계가 있다.<sup>27)</sup>

단계	인지 발달 단계	내용
1	(0-2세) 감각운동기 (Sensorimotor stage)	언어의 출현으로 말미암는 본능을 넘는 가능성 제시
2	(2-7세) 전조작기 (Preoperational stage)	대상, 수, 시간, 양에 대한 감각의 발달, 논리적 조작 체계
3	(7-11세) 구체적 조작기 (Concrete operational stage)	명제들의 논리 구성, 개념들 조작
4	(12세 이상) 형식적 조작기 (Formal operations stage)	입체적 사고의 가능(이분화), 정, 반, 합의 합일을 이루는 조작 단계, 통합적 사고

〈표 2〉 피아제의 인지적 발달 단계

#### 나. 청(소)년기의 인지적 발달 단계

청(소)년기는 인지발달의 4단계인 형식적 조작기로서 12세 이후 시작되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이상과 현실을 구별할 수 있는 시기로서 성인까지 지속된다고 본다.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은 가상적인 가정이나 사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찰 가능한 것에 얽매어 사고하지 않는다. 청(소)년기의 인

26) Gibbs, *한 권으로 읽는 교육학 명저 24선*, 132.

27) Jean Piaget, "Intellectual evolution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Human Development* 15 (1972): 1-12. Jean Piaget, *The construction of reality in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 1954). Jean Piaget,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52). Santrock, *청년심리학*, 44.

지적 특징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형식적 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의 사고를 네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 나타난다.<sup>28)</sup>

첫째, 가능성에 대한 사고이다. 청(소)년은 아동기의 구체적 조작기의 구체적이며 실재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가능성(Possibility)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현재는 가능한 것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 자신의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것과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익살, 속담, 은유 및 유추 속에 내포된 고차원적인 추상적 논리를 이해함으로써 청(소)년의 사고와 관심영역은 사회, 정치, 철학, 종교 등으로 확장된다. 셋째, 사고과정에 대한 사고(think about thing 또는 metacognition)를 들 수 있다. 사고과정에 대한 사고를 함으로써 청(소)년은 아동에 비해 자신의 사고를 보다 잘 통제하며, 자신의 인지적 과정을 타인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고과정에 대한 사고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다차원적 사고이다. 다차원적 사고능력이 발달함으로써 청년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구체적 조작기와 구별되는 점이며 또한 구체적 조작기를 기반으로 발달한 점들이다.

따라서 피아제는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들이 눈앞에 주어진 구체적인 사태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모든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원리를 찾으려 하며, 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얻는 단계라고 말한다.<sup>29)</sup>

#### 다.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피아제의 이론이 널리 인정받았지만,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새로운 논의가 제기되면서 이 이론은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형식적 조작 사고가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시대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변하기 때문에 더 낮은 연령에서도 형식적 조작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13-15세 사이에 큰 진보를 이루나 개인차이가 매우 크다. 둘째, 인지발달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갑자기

28) 이옥형, *아동·청년 발달*, 402-406.

29) 송명자, *발달심리학*, 316.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각 단계의 초기에 그 이전 단계의 사고가 나타나며, 후기에는 다음단계의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 사고가 뒤섞여 일어난다.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청(소)년의 인지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다. 셋째, 피아제는 인지발달을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으나 많은 학자들은 훈련에 의해서 인지능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sup>30)</sup> 넷째, 피아제는 사고의 다섯 번째 단계인 후형식적 조작기(Postformal thought)를 믿지 않았으나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를 포함한 일부 이론가들은 초기 성인들이 이 단계에 진입한다고 주장한다.<sup>31)</sup> 성인기가 시작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대학에 가게 될 때로 좀 더 반영적이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시기라고 생각했다.

### 제 3 절 정서적 발달(Emotional Development)

정서의 정의는 다양한 감정, 생각, 행동과 관련된 정신적·생리적 상태이다. 정서는 주관적 경험으로 대개 기분, 기질, 성격 등과 관련이 있고 넓은 의미로서는 감정이 운동에서도 급격히 생기는 일시적인 노여움, 두려움, 기쁨, 슬픔, 놀라움 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sup>32)</sup> 청(소)년기는 성년기에의 과도기로 부적응의 시기요, 정서적으로 가장 불안정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자아의 발견 때문에 많은 불안이 올 수도 있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기 위한 애정적인 욕구도 강해지면서 또한 얻지 못한데서 오는 고독감이나 자기부정의 열등감으로 자기혐오나 자기비판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이 같은 내면의 불안정이 밖으로 반사회적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 1. 사춘기의 정서적 발달

사춘기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활동에 흥분해서 자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생

30) 이옥형, *아동·청년 발달*, 406-407.

31) 피아제의 형식적조작기 사고와는 달리 질적으로 다른 다섯 번째 단계로서 제안된 사고의 형태이다. 문제의 정답은 반성적 사고를 필요로 하며, 상황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고, 진리에 대한 탐구는 종종 진행 중이며 절대 끝나지 않는 과정이라는 이해를 포함한다. Santrock, *청년 심리학*, 109.

32) 위키백과사전, “우리정서의 발달,” n.p. [2013년 6월 인용]. Online: [http://ko.wikipedia.org/wiki/...../\\*.htm](http://ko.wikipedia.org/wiki/...../*.htm).

각하게 하는 게임, 유머, 몸을 움직이는 활동 등을 좋아한다. 쉽게 화내고, 상처를 입기 쉬우며 또 그들의 감정은 잠시 잠깐 동안에도 모든 영역을 오르락내리락 한다. 사춘기 중기는 기분파의 시절로써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발견한다. 다른 청(소)년들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종종 경쟁심이나 질투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사춘기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 감정은 안정적이 되면서 심미적, 감상주의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 한편,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은 여전히 지속된다.<sup>33)</sup> 대체로 이 시기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마음의 상처를 자주 입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2. 남녀의 정서적 발달 차이점

사춘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는 양적인 차원도 급격하지만, 질적인 차원에서도 만만치 않다.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전에 없었던 월경이나 몽정 등을 경험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사춘기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남과 비교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예민할 수 있다.

첫째, 신체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이 더 큰데, 이것은 여자가 체지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는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만족한다. 둘째, 호르몬의 농도와 청소년의 행동에서 안드로젠은 남자 청(소)년들의 폭력문제와 관련이 있고, 에스트로젠은 여자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 또한 사회적인 요인의 작용도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반응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여자 청(소)년에게 있어서 초경과 월경주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긍정적인 면은 성숙과 임신, 여자다움을 나타낸다면 부정적인 면은 번거로움과 불결함의 반응을 나타낸다. 넷째, 여자에게는 조숙과 만숙의 영향이 남자만큼 분명하지 않으며 신체적 발달은 매우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발달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한다.<sup>34)</sup>

33) Bynum, *청소년 이해와 교회교육*, 29.

34) Santrock, *청년심리학*, 74-77.

### 3. 에릭슨(Erik Erikson)의 정서적 발달이론

#### 가. 에릭슨의 정서적 발달 단계

에릭슨은 인간발달을 육(soma), 영(psyche), 그리고 정신(ethos)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으로 묘사한다. 육은 신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몸의 유형, 크기와 능력이 인격에 영향을 주고, 혼은 자아감(sense of self)을 말하는 것으로 독특한 인격적 특성과 열망이 인격형성에 상호작용한다고 보며 정신은 인격이 발달하는 문화적 환경을 암시하는 것으로 환경은 인격의 발달을 지원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한다고 보았다.<sup>35)</sup> 그러므로 인간의 인격은 다양한 요인들과 영향의 상호작용(interaction)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인격이 일평생을 통해 발달하며, 각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과제가 동시에 주어져 있다고 보며 에릭슨은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여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단계	정서발달 단계	내용
1	(생후 첫 해) 유아기 (Infancy)	친밀감 대(對,vs) 불신감
2	(1-3세) 초기 아동기 (Early Childhood)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
3	(학령전기, 3-5세) 놀이기 (Play Age)	독창력(주도성) 대 죄책감
4	(초등학교, 6-사춘기) 학령기 (School Age)	근면성 대 열등감
5	(10-20세) 사춘기 (Adolescence)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
6	(20-30대) 성인기초기 (Young Adulthood)	친밀감 대 고립감
7	(40-50대) 성인기 중기 (Adulthood)	생산성 대 침체감
8	(60대 이후) 성인후기 (Old Age)	통합감 대 절망감

〈표 3〉 에릭슨의 전 생애 8단계<sup>36)</sup>

#### 나. 청(소)년기의 정서적 발달 단계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의 단계는 5단계와 6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5

35) Wilhoit and Dettoni, *발달주의적 시각으로 본 기독교적 양육*, 127.

36) Erik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W.Norton, 1950). Erik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Norton, 1968), 127. Erik H. Erikson, "The problem of ego-identity," *Journal of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4 (1956): 56-121. Santrock, *청년심리학*, 39.

단계의 사춘기 단계는,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감각을 발견하려고 한다. 만일 정체성을 얻게 되면 자신의 삶속에서 성실의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으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헌신할 수도 없으며 자신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혼돈을 겪게 된다. 그리고 이제 6단계의 정체성을 발견한 청(소)년은 사랑하고 돌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속에서 사랑의 힘을 발달시킨다. 그러나 반대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계속 겪고 있다면 친숙한 관계를 맺을 수 없으므로 고립감으로 피상적인 관계가 되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이 결핍된다고 본다.<sup>37)</sup>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성의 변화에 과민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혼란을 겪을 수 있지만 감정의 기복이 큰 것은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감정조절이 어려운 것은 청(소)년 자신의 경험이 부족해서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불안감으로 볼 수 있다.

#### 다. 에릭슨 이론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에릭슨의 이론은 청(소)년의 5, 6 발달 단계에 있어서 첫째, 인간이 심리성적 단계와는 달리 심리사회적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인간행동의 기본동기가 성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라고 말한다. 셋째, 인간의 기본성격이 생후 초기 5년 동안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변화한다는 발달적 변화를 강조하였다. 발달의 여덟 단계가 평생에 걸쳐 전개되며 각 단계는 사람들에게 위기를 맞게 하는 독특한 발달과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에릭슨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비판도 있다. 첫째, 정신분석 이론의 주요 개념들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고 둘째, 정신론적 이론을 지지하는 많은 자료들은 과거, 종종 오래 된 과거를 재구성한 것으로 그러한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며 셋째, 무의식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지나치게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다.<sup>38)</sup>

37) Wilhoit and Dettoni, *발달주의적 시각으로 본 기독교적 양육*, 131.

38) Santrock, *청년심리학*, 39, 41.



## 제 4 절 사회적 발달(Social Development)

인간은 사회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성세대에서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대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반항은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한 행동을 표현한 것이나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기 위한 반항일 수도 있다.<sup>39)</sup>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한 적대행동이나 반항을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으로 보는 시각이 기성세대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에 적응을 위해 또래 집단형성, 이성으로 인한 외모관심, 권위에 반항, 자아의식의 발달로 인한 편견, 일탈적인 행동, 사회적 통찰력 등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발달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1. 사춘기의 사회적 발달

사춘기의 초기에는 동료의식에 중점을 둔다. 청(소)년은 간섭을 벗어나 독립을 추구하고 싶어 하고, 동료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특히 동료들의 비평에 민감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에서 오는 압박감이 심하다. 동료의 인정과 소속감을 얻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 있다. 사춘기 중기나 후기에서는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가족유대관계가 약화되며 동료집단관계가 강화된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친구를 사귀는데 특히 이성간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면서 사회적 영역은 오히려 급진적으로 좁아지게 된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청(소)년들이 어른의 문화와 동료들과의 문화 사이를 왕래 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어른 사회로 생각하면서 사춘기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성인기로 발돋움하지 않고 도리어 사춘기시기를 하나의 영원한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려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sup>40)</sup>

### 2. 남녀의 사회적 발달 차이점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의 관점에서 남녀의 차이점도 말한다. 첫째, 자아정체감 발달에 있어서 남녀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정체감 탐색의 주관성은 남자의 경우 직업이나 이념의 탐색에 있는 반면에 여성은 결혼 및 양육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

39) Santrock, *청년심리학*, 11.

40) Bynum, *청소년 이해와 교회교육*, 30, 39, 72.

고 여러 학자들도 같은 의견으로 남자의 정체감 형성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요한데 반해, 여성은 정체감 형성에 대인관계와 정서적 친밀감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차는 정체감 형성과정에서 남녀에 대한 문화적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sup>41)</sup> 둘째, 정체감 영역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이가 있다. 정체감 탐색과 관여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복잡하고 힘든 과제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정체감을 탐색하여야 할 영역이 많고 여러 복잡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혼돈과 갈등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은 정체성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는데 정체감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가정이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sup>42)</sup>

그리고 성적 조숙과 만숙에 대한 태도에서 남녀의 차이점을 보인다. 조숙한 남자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한 예로서, 신체적 발달이 향상된 위신과 지위의 상징이 되며, 또래에 의해 자주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만숙의 남자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적인 의존욕구를 보이고, 사회적 부적절감과 열등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30대에 더 강한 정체감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다양한 가능성을 판정할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며 신체적 지위보다 나중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직업과 성취에 관심을 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도 조숙한 여자는 독립적이며 또래에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흡연, 음주, 성경험, 직업적 성취가 낮았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미성숙의 준비가 되지 않음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만숙의 여자는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더 매력적이고 더 신체적으로 우월해짐으로 돋보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한다.<sup>43)</sup>

또한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청(소)년 초기에는 자아존중감이 크게 저하되지만 청(소)년 후기에는 다시 높아진다. 남녀 차이에 있어서도 남자는 청(소)년 초기 이후 계속 증가하나 여자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sup>44)</sup>

41) 이옥형, *아동·청년 발달*, 422-423.

42) 이옥형, *아동·청년 발달*, 424-425.

43) Santrock, *청년심리학*, 74-77.

또 다른 한 가지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친밀한 대화나 충실성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대인 관계를 지향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남성적이고 경쟁적인 본질의 한 부분으로서, 자기의 문제를 개방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sup>45)</sup> 그리고 초기 청(소)년의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성애 무차별적으로 흥미를 가진다. 보다 성숙한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흥미를 가지며 자기와 같은 또래에 대하여는 싫증을 느낀다. 반면에 남자들은 데이트 신청이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소년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sup>46)</sup>

### 3.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 단계

청(소)년기에 있어서 사회적 발달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들, 즉 자아개념,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감이 있으며, 이것은 발달순서에 따라 나타나는데 순서에 따라 발달하지 못할 때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가. 자아개념(self-concept)

청(소)년기는 자아개념이 발달하며, 자아개념의 확립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자아개념이란 자신의 신체적 특징, 개인적 기술, 가치관, 사회적 역할 등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지각의 총체이다.<sup>47)</sup> 풀어서 말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장·단점은 무엇인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가정이나 학교 및 사회에서의 나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대하여 지나치게 몰두함으로써 청(소)년기는 자아중심성(adolescent egocentrism)<sup>48)</sup>에 빠지게 한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청(소)년기에 형식적 조작사고가 발달하는 11-12세경에 시작되며, 15-16세경에 절정을 이루다가, 그

44) 이옥형, *아동·청년 발달*, 415.

45) Santrock, *청년심리학*, 202.

46) Jacobsen, "중학생들의 특성과 필요," 109-110.

47) 이옥형, *아동·청년 발달*, 411.

48) 청(소)년들의 강조된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믿음과 개인적 독특성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다. Santrock, *청년심리학*, 143.

이후 점차 감소한다. 청(소)년 후기에 자아중심성이 감소하는 원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증가하고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이다.<sup>49)</sup> 그러나 자아 중심성이 발달할수록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데 불안할수록 이유 없는 반항이나 독단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 나. 자아 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이란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으로 자신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다. 자아개념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치 신념이라면, 자아 존중감은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평가를 전제한 정의적 반응이다.<sup>50)</sup> 자아존중감은 목표를 성취하거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형성되는데, 개인적으로 신체, 능력, 가족관계 및 교우관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 등 여러 요인이 통합되어 형성된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우울증이 걸리기 쉽고 이 우울증으로 약물남용, 자살, 비행 등 사회적응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 다. 자아 정체감(ego-identity)

자아정체감이란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본질적으로 불변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서, 이는 개인의 이상과 행동 및 사회적 역할을 통합하는 자아 기능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다.<sup>51)</sup>

특히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은 청(소)년기의 발달을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 ‘친밀감 대 고립감’의 단계로 보았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 것인지, 이전에 익힌 역할과 기술을 앞으로 갖게 될 직업의 세계와 어떻게 연계시켜야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또한 새로운 의미의 동일성과 지속성을 추구하면서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싸움의 상대로 정하고 자신의 궁극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원한 우상이나 이상으로 삼으려고 한다.<sup>52)</sup>

49) 이옥형, *아동·청년 발달*, 405.

50) 이옥형, *아동·청년 발달*, 414.

51) 이옥형, *아동·청년 발달*, 415.

## 제 5 절 도덕적 발달(Moral Development)

도덕적 발달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사고, 감정 및 행동과 관련된다.<sup>52)</sup> 청(소)년에 있어서 도덕사고, 감정, 행동은 어떻게 윤리적 행동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 상황에서 실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아는 것은 분명 중요할 것이다.

### 1. 사춘기의 도덕적 발달

사춘기에는 아동기에서 시작된 초자아의 발달이 진행되면서 도덕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되는데 특히 사춘기에 죄책감을 처리하는 방법이 발달한다. 청(소)년들은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함으로써 죄책감을 벗어날 줄 알며, 스스로 자기행동을 규제하고 처벌함으로써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사춘기에는 청(소)년기의 도덕성 발달이 도덕적 모델의 모방과 강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청(소)년기에는 단순히 모방할 뿐 아니라 모델이 도덕적으로 행동했을 때와 행동하지 않았을 때 초래되는 결과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예상하고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춘기에는 형식적 조작사고의 발달과 더불어 획득되는 가설설정능력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사회전반의 도덕적 특성에 대해 관념적이며 이상주의적인 가능성을 그리게 된다. 이러한 이상주의적 경향성은 강력한 이타적 성향과 정의에 대한 인식과 주장으로 나타난다. 특히 타인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이며, 또한 부정과 불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식을 보이기도 한다.<sup>54)</sup>

### 2. 남녀의 도덕적 발달 차이점

청(소)년기 남자들이 정의, 공정성, 공평성, 합리성의 문제에 대한 도덕적 사고와 판단의 발달을 중시하는 반면 여자들은 도덕성의 한 측면으로서 인간관계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도덕적 사고

52) Gibbs, *한권으로 읽는 교육학 명저 24선*, 29.

53) Santrock, *청년심리학*, 352.

54) 송명자, *발달심리학*, 355-356.

를 중시한다. 이러한 도덕성은 추상적인 도덕적 원리보다는 인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대인간 배려지향성을 갖는다.<sup>55)</sup>

### 3. 콜버그((Laurence Kohlberg)의 도덕적 발달이론

#### 가.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단계

콜버그의 이론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도덕성 발달에 적용시켜서 제시한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말하고, 도덕적 발달은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이 단계에 따라 일어나며, 인지구조 발달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도덕성 발달이 그 순간의 환경이나 보상 기회 등에 영향을 받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며 절대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sup>56)</sup>

수준	도덕발달 단계	내 용
1	인습 이전 수준 (Preconventional level)	1단계: 타율적 도덕성-벌과 상의 단계 2단계: 개인주의-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2	인습 수준 (Conventional level)	3단계: 개인간의 상응적 기대, 관계, 동조의 단계 4단계: 사회체제와 양심보존의 단계
3	인습 이후 수준 (Postconventional level)	5단계: 권리우선과 사회계약, 혹은 유용성의 단계 6단계: 보편 윤리적 원리의 단계

〈표 4〉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단계<sup>57)</sup>

#### 나. 청(소)년기의 도덕적 발달 단계

청(소)년기의 도덕적 발달 단계에 있어서 콜버그는 초기 청(소)년은 인습적 수준에서 추론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단계 3에서 추론하며 단계 2와 4의 흔적

55) 송명자, *발달심리학*, 317, 361.

56) Gibbs, *한권으로 읽는 교육학 명저 24선*, 68.

57) Laurence Kohlberg,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avid A. Goslin,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1969), 347-480. Laurence Kohlberg,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4). Santrock, *청년심리학*, 357.

을 보인다. 도덕발달에서 중간정도의 수준이며 중간정도의 내면화로 볼 수 있다. 3단계는 신뢰,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신의에 기초하여 도덕적 판단을 한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좋은 딸, 또는 아들’로 보이려고 애쓰는 단계이다. 그러나 2단계의 흔적을 가지고도 있는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허용하며 무엇이 옳은가는 대등한 교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그리고 4단계의 흔적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은 사회질서, 법,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도덕적 판단을 한다고 콜버그는 본다.<sup>58)</sup>

그러므로 콜버그는 청(소)년의 도덕적 성향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사회적 자극은 또래 상호작용이라며 성인들의 규칙이나 규정을 강요당하는 것보다 또래 상호작용에서 서로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고 민주적으로 규칙을 만들어본다고 말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 경험이 아동과 청(소)년들이 더 발전된 수준에서 도덕적 사고를 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가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화를 허용하거나 격려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도덕적 발달을 촉진하므로 도덕발달에 부모의 양육역할이 점점 강조되어 갈 수 있다고 보았다.<sup>59)</sup>

#### 다. 콜버그 이론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콜버그의 이론에서 도덕적 수준과 단계들의 발달순서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첫째, 콜버그의 이론은 도덕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도덕적 행동은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 성과 배려 관점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이다. 콜버그의 이론은 정의의 관점이지 배려의 관점, 즉 대인간의 의사소통,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중요시하는 도덕적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자들은 배려의 관점을 취하고, 남자들은 정의의 관점을 취하지만 성차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두 관점이 상호 배타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sup>60)</sup>

콜버그의 이론은 비판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사회적 협동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들의 변화에 대한 기술이다. 짧게는 사회, 규칙과 역할, 제도, 관계

58) Santrock, *청년심리학*, 356-357.

59) Santrock, *청년심리학*, 358.

60) Santrock, *청년심리학*, 359-362.

와 같은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발달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청(소)년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삶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 제 6 절 신앙적 발달(Spiritual Development)

청(소)년기는 신앙적 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인지발달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진실 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후기 청(소)년들은 정체감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으로서 나는 어떠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 싶어 하면서 정체감 탐색의 일환으로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정말 신이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부모와 교회가 내 마음에 각인한 것을 믿는 것인가, 나의 진정한 종교적 견해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동시에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믿는 것을 왜 믿는지 이해하고 싶어 하는 동시에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진리들을 내면화하기 위해 이 진리들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기이다.

### 1. 사춘기의 신앙적 발달

청(소)년들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써 사춘기 초기에는 이미 회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영적인 것에 대한 일반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고, 인생의 가치관을 추려내는 일도 할 수 있다. 사춘기 중기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개념들과 철학들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회의적으로 되기도 한다. 사춘기 후기에는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으면서 이 시기에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많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전에 맺었던 연대 관계를 파괴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개념들은 많이 접하지만 영적인 것보다는 이성 교제의 유희,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등이 더 큰 영향력으로 작용한다.<sup>61)</sup>

61) Bynum, *청소년 이해와 교회교육*, 30-31.



## 2. 파울러(James Fowler)의 신앙적 발달이론

### 가. 파울러의 신앙적 발달 단계

파울러의 신앙발달 이론은 네 가지의 전제를 갖고 있다. 첫째, 인간은 본래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둘째, 이 잠재적인 능력은 공동체 속에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인간의 속성 중의 한 부분이다. 셋째, 이 공동체는 자아가 살아가는 장이다. 넷째, 인간의 의식과 자아성찰은 점차적으로 복잡한 발달과정을 거쳐 나타난다는 것이다.<sup>62)</sup> 그리고 종교란 미술 전시관과 같은 축적된 전통이며 신앙이란 종교보다 한층 더 심오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축적된 전통의 형태를 통해 이해되어 온 초월적인 가치와 능력에 대한 한 개인이나 집단의 반응이라고 한다.<sup>63)</sup>

파울러는 인간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신앙의 여섯 단계를 제시하였다. 구조적 발달의 단계들이 연대기적 성장으로 조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음의 여섯 단계들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계들과 일반적인 연령 계층은 다음과 같다.<sup>64)</sup>

단계	신앙발달 단계	내 용
0	(유아기) 미분화된 신앙 (Undifferentiated Faith)	사랑과 돌봄에 의한 기본적 신뢰 단계, 상호성의 경험
1	(아동기 초기, 3-7세) 직관적-투사적 신앙 (Intuitive-Projective Faith)	언어와 상징적 표현, 인지적 자아 중심성, 환상과 모방의 세계
2	(아동기와 그 이상, 8-12세) 신화적·문자적 신앙 (Mythic-Literal Faith)	도구적, 형식적 조작적 사고 단계. 인격적 관계의 필요성
3	(사춘기 이상) 종합적 전통적 신앙 (Synthetic-Conventional Faith)	신앙의 가치와 정보의 종합단계, 다음 단계의 기초제공

62) 김성애, “연령별 기독교 교육,” 정정미 외, *현대 기독교 교육 입문* (서울: 도서출판 해본, 2001), 350.

63) Gibbs, *한 권으로 읽는 교육학 명저 24선*, 502.

64) James Fowler,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119-213. Wilhoit and Dettoni, *발달주의적 시각으로 본 기독교적 양육*, 102-110.

4	(청년기) 개별적-반성적 신앙 (Individual-Reflective Faith)	정체성 확립. 세계관 및 인식의 틀 구성
5	(중년기와 그 이상) 결합적 신앙 (Conjunctive Faith)	상징, 신화, 인식에 대한 이해, 비전과 충성의 대두
6	(중년기와 그 이상) 보편화된 신앙 (Universalizing Faith)	자기희생 가능

〈표 5〉 파울러의 신앙적 발달 여섯 단계

#### 나. 청(소)년의 신앙적 발달 단계

파울러의 신앙발달단계에서 청(소)년은 3단계와 4단계에 속한다고 본다. 3단계를 보면, 신앙의 강한 관계적 요소가 등장하여 청소년들은 자신을 타인과 관계성 속에서 보게 되는데 종합적(synthetic)이란 말은 이전 단계의 신앙과 가치들이 어떤 일치되는 관점으로 종합된다는 의미이고, 전통적(conventional)이라는 말은 더 큰 공동체의 신앙체계와 형태들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전통적 신앙은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 결여되어 있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안정감을 준다.<sup>65)</sup> 그러나 단점으로는 3단계에서의 청(소)년은 아직 독립적인 관점을 구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주체성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 이들은 쉽게 신념이나 가치 등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 타인의 기대와 평가가 너무 강하게 내면화되어 자기 자신의 판단과 행동의 자율성이 심하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점과 또 상호간에 느낀 심한 배신감 때문에 궁극적 존재에 대하여 허무적인 절망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혹은 현실과는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66)</sup>

그리고 4단계를 보면, 특징으로 자아와 종교적 사고의 이중적 발달이다. 자아의 발달이 일어나는데 3단계의 공동체적 자아와 대조를 이룬다. 소속된 단체의 명령이나 기대에서 떠나 오직 자기 판단에 기초를 두고 선택한다는 가능성과 함께 제삼자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자아와 더 큰 신앙공동체가 사회 전체와 연결된다. 자아는 이제까지 믿고 신뢰했던 집단으로부터 대항하게 된다. 개별적·반성적 신앙은 신앙성장의 3단계의 안정을 뒤로하면서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특징지어진다.<sup>67)</sup> 그리고 일종의 교만으

65) Wilhoit and Dettoni, *발달주의적 시각으로 본 기독교적 양육*, 105-108.

66) 최임선, *신앙발달 과정* (서울: 종로서적성서출판, 2000), 87-88.

로 어떤 집단을 비판하게도 하고 어떤 외적 판단도 참아낼 수 없는 사적 신앙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sup>68)</sup>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 특별한 시간이며, 청소년 자신과 가족, 사회에 있어서 고통과 기쁨의 가능성을 지닌 큰 변화로 강조된다.

#### 다. 파울러 이론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청(소)년의 단계에서 파울러의 연구에서 문제점을 찾는다면 첫째, 신앙과 같이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경험은 예측 가능한 발달 단계들로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은 신앙을 향해 그런 다양한 길을 가기 때문에 신앙을 예측 가능한 단계들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과 개인의 고유성 둘 다를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파울러는 다양한 문제들을 한 곳으로 묶어내고 그것들을 엮어서 신앙의 구조로 설명하는 뛰어난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 인간 경험의 역할, 복음의 본질에 대한 가정을 사용하여 고차원의 단계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부합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근원과 동일시되기 위해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추구하고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sup>69)</sup> 따라서 파울러의 단계 설명에 대한 수정본을 펴내야 하고 그 설명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여 이 이론이 독특한 성경적 관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파울러의 신앙적 발달이론의 취약점에 주의하면서 청(소)년들의 신학적 자세를 확고히 지켜 나간다면 영적성장에 중요한 통찰들을 얻을 것이라고 본다.

#### 제 7 절 요약 및 평가

이제까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sup>70)</sup>에 영향을 끼치는 여섯 가지 인간발달의 영역

67) Wilhoit and Dettoni, *발달주의적 시각으로 본 기독교적 양육*, 105-108.

68) 최임선, *신앙발달 과정*, 87-88.

69) Perry G. Downs, "파울러의 힘," Wilhoit and Dettoni, *발달주의적 시각으로 본 기독교적 양육*, 110-112.

70) 나우만(Betty Neuman)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그리고 발달적 차원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전인적 성장을 말한다. Betty Neuman, "The Neuman Systems Model: Reflections

즉,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 발달들을 살펴보면서 인식한 것은 청(소)년 시기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서 방황하는 어두운 그림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시기와 때에 맞게 발달해야 하는 도약의 시기라는 것이다. 아동기를 디딤돌로 해서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마다 성장하여 올라가야 하는 변화의 시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발달 과정은 시작 시기에서는 개인차가 있지만 발달 순서는 비교적 고정적이고 일정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교재 편성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시기의 발달 과정도 소개함으로써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이해와 집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발달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남녀의 발달이 다르게 나타나고,<sup>71)</sup> 심리적인 반응도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교재 편성이나 그룹 모임을 남녀 차이를 둔 교육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겠다. 동성 소그룹이나 남녀 차이를 고려한 교재 편성은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연구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남녀 차이점에 따른 교재 개발은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다만 필자가 주장하려는 통전적인 원리를 제시함에 있어서 청(소)년 발달이론은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하며 인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효과적인 도움을 주었다.

---

and Projections," *Nursing Science Quarterly* 10 (March 1997): 18-21.

71) 남녀차이에 대해서 키, 체중, 사춘기가 시작되는 연령과 같은 문제에서는 유전이 남녀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대에는 남녀의 차이는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환경이라고 말하면서 또 다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유사성의 변화는 생물학적 원인 또는 환경적 원인만으로는 발달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발달심리학자들은 말한다. Santrock, *청년심리학*, 27.

## 제 3 장

###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교육

앞장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 발달단계의 현상뿐만 아니라 발달단계의 변화를 청(소)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청(소)년들의 성장에 일련의 발달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본장의 기독교 교육도 시대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는 발달주의적 기독교 교육으로 접목하여 청(소)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 발달 부분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현시대가 정보화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기에 단편적, 획일적인 교육방법으로는 청(소)년의 지식, 인성, 신앙교육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교육도 시대의 요청에 따라 창의성을 계발하고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통전적 기독교 교육을 살펴볼 것이다. 통전적 교육 원리는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이며, 청(소)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 발달단계에 맞추어 전인적인 성장에 필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기독교형 대안학교인 세인고등학교를 통해서 각 원리들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장은 청(소)년 사역을 위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목표와 내용, 실습 등의 구성요소들을 기독교교육의 관점으로 설계하여 뒤에서 다룰 5장의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구성에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 제 1 절 발달주의 시각으로 본 청(소)년 기독교 교육

알버트 그린(Albert Greene)은 발달심리학에 대해서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감

각 운동적으로 나누는 교육 분류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통합성을 깨트리는 것으로, 사실을 가치로부터 분리시키는 현대의 개념은 진리와 거짓 또는 선과 악에 대한 일치된 합의를 갖지 못한다”<sup>72)</sup>고 하였다. 세속적 발달주의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복음’처럼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발달주의 이론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가르침과 학습과정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분별하기에 좋다. 이와 더불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고찰은 경험적 수치로부터 진리와 의미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sup>73)</sup> 발달주의는 인간의 학습, 성장, 발달에 대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시기에는 매우 다른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sup>74)</sup> 인간발달 분야를 하나의 획일성으로 볼 수 없다. 발달주의는 연령에 따라 구분한 단계에 집중된 중요 발달 이론을 설명하며 교육의 여러 측면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 인간발달이론의 주의사항

발달이론의 초점은 개인의 변화에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각 단계에서 행동에 대한 변화와 특징을 연구하는 데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는 그 단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 표집된 대상들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표집의 양호도, 대표성, 크기 등에 따라 단계별 특징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표집이 대표적이고 크다 할지라도 실재하지 않는 ‘표준인’의 특징이 그 발달 단계의 특징이 되기 때문이다.<sup>75)</sup>

둘째는 발달단계에 일반적인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원리는 발달단계의 특징이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성숙이란 생물학적인 성장의 결과로 인한 변화이며, 학습은 경험의 결과로 인한 변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원리는 연령증가에 따라 발달경향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는

72) Albert E. Greene,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현은자, 정희영, 황보영란 역 (서울: 도서출판 CUP, 2009), 246.

73) Wilhoit and Dettoni, *발달주의적 시각으로 본 기독교적 양육*, 53.

74) 이것은 인간의 발달단계에 있어서 각 발달단계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서는 다른 시기보다 급격한 성장과 성숙의 변화를 보인다. Wilhoit and Dettoni, *발달주의적 시각으로 본 기독교적 양육*, 32.

75) 김성애, “연령별 기독교 교육,” 330.

성장함에 따라 경험의 종류와 환경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셋째원리는 전체적 반응으로부터 성장함에 따라 특수한 반응으로 분화 발달한다. 어릴 때에는 손바닥으로 물건을 잡지만 자라면서 필요 없는 동작은 없어지고 세분화된 반응을 하여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기 때문이다. 넷째원리는 장기적 발달은 계속적이지만 단기적 성장은 불규칙적이다.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달하지만 특정기간 동안에만 관찰하면 불규칙적이어서 어떤 행동이 발달했다가도 바로 뒤로 후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원리는 발달속도에는 개인차가 있다. 어떤 사람은 발달이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같은 사람의 경우도 연령에 따라 발달속도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76)</sup>

그러므로 인간발달 단계에 따른 이해의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의 기본 전체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발달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기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기독교 교육과 발달주의의 유사성

기독교 교육과 발달주의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서로 비슷한 점이 크게 네 가지로 발견된다.<sup>77)</sup>

첫째, 성장과 성숙의 용어이다. 발달주의와 성경은 모두 유사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둘 사이에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의 크기나 근육의 양적 증가를 의미하는 '성장(growth)'과 내적, 유전적 메커니즘(mechanism)에 의해 출현되는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의미하는 '성숙(maturity)'이라는 용어를 성경의 저자들이 '빚다(molding),' '형성하다(shaping),' '통찰(insight)'이라는 단어들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둘째, 지속적인 성장이다. 발달주의는 청(소)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 발달이 시기와 때에 따라 단계별로 발달한다고 주장 하듯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어린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완벽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녔으나 아직 양육 받아야 하고 인도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벧후 3:18; 눅

76) 정원식, 이상로, 이성진, *현대교육 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1996), 331.

77) Wilhoit and Dettoni, *발달주의적 시각으로 본 기독교적 양육*, 33-44.

2:52). 셋째, 유기체적 인간이해이다. 인간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발달하는 것은 타고난 본성이다. 그래서 학습은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돕기 위해 그들의 성장과정을 다루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개인의 차이나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 발달한다고 본다(창 41:41-43).<sup>78)</sup>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하나의 크기에 맞추는 커리큘럼이야말로 인간의 유기체적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말인 것이다. 인간은 발달해 나가는 것이지 획일적이고 말하는 대로 되는 쉬운 존재가 아니다. 넷째, 동기 부여를 통한 변화이다. 발달주의는 단순히 어떤 단계를 학습함으로써만이 아니라 사교의 깊은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변화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신앙적 훈련을 수행함에 있어 동기 부여와 적절한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마 4:19-20).<sup>79)</sup>

### 3. 청(소)년 발달 이론을 접목<sup>80)</sup>한 기독교 교육

청(소)년 발달이론에 근거한 기독교 교육은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에 영향을 준다. 첫째, 신체적 성장이다. 신체는 영혼이 거하는 처소이다. 신체의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고전 6:19) 또는 ‘예수는 그 키가 자라며...’(눅 2:52)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도 신체의 성장을 따랐다는 것을 말한다. 건강하고 건전한 신체에서 건전한 정신과 영혼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지적인 성장이다. 지적인 성장은 동물과의 차이점이다. 성경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눅 2:52)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신체의 성장에 맞는, 즉 나이에 맞는 지적인 수

78) 요셉은 형들과 함께 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자라는 환경과 받은 교육은 달랐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환경과 교육이 만든 것이었으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창 41:41-43).

79)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마 4:19-20).

80) 접목(integration)이란 혼합(syncretism)이 아니다. 접목은 접목되는 것들끼리 서로 공통인 수가 있어야 가능하다. 가령 A와 B를 접목한다고 할 때에 A는 B와 일치하는 내용이 있어야 가능하다. 혼합은 접목과 다르다. 혼합은 서로 다른 것들을 함께 섞어놓는 행위이다. 접목은 접목되는 양자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특성을 찾는 행위이고, 혼합은 양자의 특성을 흐려지게 만드는 행위이다. 접목을 샐러드(salad)로 비유한다면 혼합은 수프(soup)로 비유될 것이다. 권택조, *기독교교육심리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1.



준과 인격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성장과 발달이다. 육체적인 성장과 지적인 성장이 있다하더라도 사회성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성경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마 5:13-14)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사회 속에서 관계성을 맺으며 사회를 개혁하고 변혁시키는 사회개혁의 역할과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넷째, 신앙적 성장이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적 성장과 기독교적 인격형성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개인의 회복내지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격이 변화된다.<sup>81)</sup> 그러므로 발달주의 이론에 접목한 기독교 교육은 발달주의가 주장하는 발달단계에 신앙적 이론으로 균형과 조화를 가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4. 청(소)년 발달 이론을 근거로 한 지도방법

청(소)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발달단계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눈높이 지도가 필요하다.

첫째, 신체적 발달 지도이다. 청(소)년은 신체적 성장으로 인해 갈등과 만족사이를 방황하면서도 자신의 신체적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며 신체적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청(소)년의 몸에는 엄청난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이나 욕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욕과 세상의 정욕이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 성욕은 선물로 받았지만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sup>82)</sup> 뿐만 아니라 성과 이성교제, 결혼 뿐만 아니라 신체적 특성과 외모, 음주와 흡연, 생명과 자살에 관한 기독교적 해석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TV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표준이 더 이상 공동 표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신체적인 성장에 따른 성경적인 가르침과 분명한 방향의 제시

81) 김영규, *기독교 교육학 개론*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1998), 69-70.

82) Bo Boshers, *윌로우크릭 교회 청소년 사역 (Student Ministry for the 21<sup>st</sup> Century: Transforming Your Youth Group into a Vital Student Ministry)*, 이상신, 이상준 역 (서울: 두란노, 2000), 126.

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인지적 발달의 지도이다. 청(소)년들의 인지적 발달의 가장 큰 특징은 관념적인 사색가들이 된다는 것이다. 역사상 수많은 정치적 붕기가 대학가에서 일어난 것은 ‘흑백논리’적인 관념적 사고 때문이라 볼 수 있다.<sup>83)</sup> 지적발달을 위해서는 눈높이 교육이 필요한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매년 매년 같은 단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의 연속성 있는 단계적 교육과 목표중심의 소그룹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타성에 젖어서 지적인 발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서적 발달의 지도이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 발달해 가는 단계는 어려운 시기인 것은 아이의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감정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여러 자극에 의하여 폭발할 수 있다. 특히 자살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감정이복이 불안하고 예민한 청(소)년기에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해주며 무조건 용납 받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교사는 자신의 정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학생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84)</sup> 예배, 찬양, 기독교 문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정서적 생활을 풍성하게 하여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발달의 지도이다. 청(소)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된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부모나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에게 거절감이나 배신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자율성과 성숙을 향해 발달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독립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소그룹을 원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회적 동료 모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된다.<sup>85)</sup> 그리고 동료집단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마약과 흡연, 음주 같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지혜롭게 인도해 줄

83) Boshers, *윌로우크릭 교회 청소년 사역*, 127.

84) Boshers, *윌로우크릭 교회 청소년 사역*, 133.

85) Loyd D. Mattson, “고등학생들의 특성과 필요,” Zuck, *교회와 청소년 교육*, 135.

수 있는 멘토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도덕적 발달의 지도이다. 청(소)년들은 사회의 불만과 자신의 정체성 혼란으로 가출, 탈선, 방황, 자살충동, 성적충동 등으로 힘들어 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의 교육이 필요하다. 될 수 있는 대로 부정과 불의에 대한 비판의 요소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청(소)년의 도덕적 발달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본을 보일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최상의 교육이 될 것이다.

여섯째, 신앙적 발달의 지도이다. 신앙적 발달은 인생에서 주로 청(소)년 중기에 세워진 궤도를 따르기에 성인시기보다 청(소)년기가 더 중요하다.<sup>86)</sup> 청(소)년 시기의 인지적 발달을 통한 관념적인 사고의 부정적인 시각이 흑백논리를 만들어 내기에 교회 안에서도 위선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럴수록 신앙적 성장은 느리게 진행되거나 비판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마다 공동체적 신앙에서 개인적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방법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혹 반박하는 청소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내거나 충고식의 권면은 자제해야 한다.

이상의 여섯 가지의 지도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필요에 대해 총체적인 사고가 필요하다.<sup>87)</sup> 신앙적 성장에만 열중한 나머지 다른 발달 영역들에 무관심하다면 청(소)년기에 발달해야 할 부분들이 발달하지 못하게 되어 그것이 성인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채워주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발달의 전체 과정을 알고 통전적인 시각으로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 2 절 통전적 시각으로 본 청(소)년 기독교 교육

인간을 여섯 영역으로 분류하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신앙적 영역이다. 이 모든 영역들은 사회, 문화, 역사, 지리적 환경 속에 있는 개인 안에 통합되어 있어 모든 효과적인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전인을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 역시 전인적 신앙발달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삶의 영역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 문화의 관계 가운데서 성장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눅

86) Mattson, "고등학생들의 특성과 필요," 128.

87) Boshers, *윌로우크릭 교회 청소년 사역*, 140.

2:42, 52; 고전 13:11; 히 6:1-2).

이제 사회가 전문화되어 가고 다양화 되면서 기독교교육도 통전적 기독교 교육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강희천은 통전적 기독교 교육을 “그동안 얇과 인식을 매개로 하여 인지적 차원에서 실시되던 제한된 신앙교육을 전인적 관점으로 확장하여 신뢰적, 실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기독교 교육의 한 방안”<sup>88)</sup>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과학, 신학과 교육철학의 내용을 포함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하나님의 전체 진리로 보는 신앙교육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종성은 통전적 신학에서 “방법론적 의미에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신학이며, 내용적으로는 인간의 영혼 구원만을 위한 편협한 신학을 지양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사역의 폭넓음을 인식하면서, 완전한 복음과 인간과 교회와 사회와 역사와 피조세계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전체를 온전하게 표현하려는 것이다”<sup>89)</sup>고 말한다. 따라서 통전적 기독교 교육이란 말은 분석적 사고보다 통합적 사고로 볼 수 있다.

### 1. 통전적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

교육의 목적은 변화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성숙과 성장으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기독교 교육은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통전적인 기독교 교육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교회교육의 비효율적인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 신앙교육 현장에서 신앙과 생활,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영적인 균형감각을 갖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양육하기 위하여 먼저 지도자들의 확립화된 지도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전적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 지성, 감성, 영성 모두를 변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교육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통전적 기독교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독교 교육 대상자들의 요구반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통전적 기독교 교육 접근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교육 중심적 다양한 사역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

88) 강희천, *기독교 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77.

89) 이종성 외, *통전적 신학* (서울: 장로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53-54.

명의 지도자가 가르칠 경우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방법에 빠져 수직적인 접근만 하여 청(소)년들의 재능과 은사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배우는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다.<sup>90)</sup>

셋째, 성경적 해석차원에서 전체의 시각으로 이해해야만 비성경적인 청(소)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을 ‘몸’과 ‘혼’과 ‘영’의 삼분법(Trechotomy)과 ‘몸’과 ‘혼’의 이분법(Dichotomy)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공통점은 인간은 ‘영-육의 통일체’로서 전인적 존재(holistic being)라는 것이다.<sup>91)</sup>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인간, 신약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상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마 5:48; 딤후: 3:17; 약 1:4). 인간의 구원 또한 영·혼·몸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구원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통전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부분적인 구원은 비성경적이고, 교육 또한 지, 정, 의 모든 면에서 성숙할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통전적이다.<sup>92)</sup> 성경에서도 전인적인 표현이 나온다(신 6:5; 살전 5:23).

넷째, 교통, 통신, 정보체계의 발달로 세계는 지구촌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고, 이념을 떠난 경제적인 관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통전적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 독선과 편협함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세계의 미래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가 더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간이 가지는 욕구는 생리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욕구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사람은 지성, 감성, 의지, 영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전적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복합적인 성격과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인간은 그것의 충족을 삶의 의미요 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다양한 욕구 충족의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주체의 흡인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된다.<sup>93)</sup>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통전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패러다임, 실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 사상과 인식과 가치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획일적인 관점에서 통전적인 관점으로의 전이를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야만 기독교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90) 김형태, *목회적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20-22.

91) Anthony A. Hoekima, *개혁주의 인간론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337.

92) 김승경, *통전적 기독교 교육과 교육목회* (서울: 콤파출판사, 2007), 16-17.

93) 김형태, *목회적 교육*, 156-160.

## 2. 통전적 기독교 교육의 방법

교육은 학생과 주제를 적절하게 연관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효과를 많이 거두기도 하고 효과를 내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연관의 종류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방법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sup>94)</sup> 그러므로 방법이 없는 통전적 교육은 있을 수가 없다.

첫째, 통전적인 기독교 교육은 청(소)년의 여러 방면에 걸친 욕구충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학생중심(pupil-centered)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느끼는 욕구는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욕구인데, 본능적 욕구, 애정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문화적 욕구와 같은 것이고, 후자는 개인이 가지는 특성과 환경에 따라 느끼는 욕구로서 보편적인 것과 구별되는 개별적인 욕구이다. 모든 사람을 같은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일반화 된 원리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게 되면 개인의 특수한 욕구는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교육 대상의 일반적인 욕구와 함께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전적인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는 합리성에 기초한 일반교육의 이성을 초월한 영적인 것들을 찾아야 한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embodied soul)이고 영혼을 가진 육체(ensouled body)이다. 일반교육이론은 이성을 초월한 영성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면세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영적인 요소의 욕구를 느끼고 있기에 현재 교육에서 외면되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올바른 제시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신앙교육의 주체인 기독교 교회가 다양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회 내에 예배를 위한 시설 뿐 아니라 개인적인 상담을 위한 상담실,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 및 의료 시설, 친교를 위한 교제실, 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도실 또는 연구실, 도서실 등이 있다면 청(소)년들의 통전적인 교육과 구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sup>95)</sup> 교회가 다양한 봉사를 하게 되면 주일에 한하여 봉사하던 것을

94) Benton Eavey, *기독교 교육 원리 (Principles of Teaching for Christian Teachers)*,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242.

95) 김승경, *통전적 기독교교육과 교육목회*, 119-121.

넘어 삶의 한 부분으로서 모든 부분과 연결된 신앙생활을 청(소)년들이 할 수 있게 된다.

### 3. 성경에서 발견되는 통전적 원리

크리스티안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의 ‘자연적 교회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t)’ 이론에 따르면, 자연적 교회성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방법 지향적 사고방식에서 생명체적 접근방식으로 한 자생적 원리<sup>96)</sup>를 따르는데 있다고 한다.<sup>97)</sup>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는 ‘씨뿌리는 비유’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막 4:36)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창조적 원리는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자생적 원리에 따른 유기적 조직체의 변식으로, 모든 생물들은 원래 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잘못된 것이 된다.

성경에도 자연법칙에 따른 자생적 원리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시편 1편 3절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살펴보면 ‘성장의 법칙’을 위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시편 1편에서 인생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나무는 뿌리, 줄기, 가지로 구성되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나무는 시들어 죽게 된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나무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 1:3).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7

96) 자생조직의 원리는 창조세계에서 발견하는 것으로 일반 학문의 조직 연구에서는 이 현상을 ‘자연적 현상(autopoiesis:스스로 만들)’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여기에서는 ‘신에 의한 현상(theo-poiesis:하나님이 만드심)’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인 외 역 (서울: NCD, 1999), 10.

97) 하나님의 피조세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들을 배우고, 그 법칙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는 생명체에 적용시키면, 유기체적인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생명체를 지배하는 원리들을 발견하게 된다. 6가지 생명체의 원리 중 하나가 ‘상호의존성’인데 상호의존이라는 생명체 원리는 각각 부분이 하나의 완전한 조직으로 통합되는 것이 부분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12-13.

절의 말씀이다. “그(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필자는 여기의 두 말씀을 연관시켜 나무의 성장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성장에 필요한 원리로 ‘뿌리를 박으며’는 비전으로, ‘세움을 받아’는 멘토링으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는 영성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리더십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의 형통원리, 즉 성장원리는 이렇게 네 가지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원리로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뿌리가 시냇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비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무의 원줄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지대로 받쳐주고 있는 멘토링의 도움이 있다는 것이며, 가지가 건강하고 잎사귀가 푸르다는 것은 나무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영성이 있다는 것이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으로 리더십이 있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통전적 원리는 성경의 형통의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편 1:3).

#### 4.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성장 원리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 원리(시 1)와 사람의 법칙<sup>98</sup>(골 2:7)의 말씀을 통합하여 살펴볼 때 나무를 무조건 심는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아니라 성장 원리에 맞는 적합한 실천이 있을 때 나무의 목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 가. 나무의 뿌리, 비전(Vision)

뿌리는 나무를 지탱해주는 힘인 동시에 나무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무의 건강은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뿌리병(root disease)이 들면 서서히 말라 죽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sup>99</sup> 이 뿌리를 비전이라 보는 것은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보이는 외형적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비전이 병들면 의욕이나 열정, 소망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위험이 높을 수 있다.

98) 강준민, *자람의 법칙* (서울: 두란노, 2004), 9.

99) Andrew Murray,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 (The Believer's Daily Renewal)*, 박이경 역 (서울: 아가페, 2004), 5-6.



나무는 아래로 깊게, 그리고 넓게 뿌리 내려야만 위로 높게 성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전의 사람도 하나님의 소명에 깊게 뿌리내릴수록 사명의 자리인 세상에서 높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비전의 사람은 소명의 순종과 사명의 충성에 따라 형통한 인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 나. 나무의 원줄기, 멘토링(Mentoring)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나무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사람의 관리를 받지 못했던 나무는 거의 잡목(雜木)으로 자란다. 나무는 묘목장에서 자라지만,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가로수는 도로에, 유실수는 밭에, 관상수는 정원이나 도로에 심겨진다. 이렇게 옮겨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의 원줄기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하는 일의 첫째가 나무의 수형(樹型, form)이 잘 잡히도록 지지대를 받쳐주는 것이다. 둘째가 원줄기가 부러지지 않도록 원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를 가지치기해야 한다. 또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가지치기도 있다. 가지치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열매를 더 풍성히 맺도록 하기 위한 가지치기가 있다(요 15:2).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자기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인간의 온전치 못한 성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의 세속적 문화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붙잡아 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멘토링 사역이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있어서 ‘시절을 좇아’(시 1:3)라는 의미는 시기와 때에 맞는 도움과 관리를 통한 풍성한 열매 맺음이다. 이것은 멘토링도 시기와 때가 있음을 말해준다. 신앙적으로도 영적 안내자의 도움 없는 신앙생활은 위험하며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고전 3:5-9). 사람은 프로그램이나 행사, 교육으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신뢰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에게 감동을 받은 만큼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신뢰하고 믿을만한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은 전인적인 변

화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크다.

#### 다. 나무의 가지, 영성(Spirituality)

나무는 적합한 성장조건 안에 있을 때 건강하게 자란다. 나이테는 사계절의 환경에 따라 생기는데 일 년마다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가 된다. 나무를 심었을 때 그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나무는 거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으로 3-4년을 필요로 한다. 나무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만큼의 성장이 일어났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만큼 준비의 기간이 필요함을 말한다. 이 준비의 시간을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성훈련의 시간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구절이 '시냇가'(시 1:3)이다. 뿌리가 시냇가로 향하는 이상 이 나무는 시들어 죽지 않는다. 나무에게 있어 물은 생명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청(소)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육체적이고 땅의 것들의 유혹에 약하기에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처럼 관계와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영성의 정의를 내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불신자와의 관계, 교회와 가정과의 관계, 문화와 사회, 자연과의 관계에서 성경적인 균형과 조화의 관계를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내부적인 관계에서 외부적인 관계의 승리를 위해서는 변화의 주체인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며 성령 충만의 삶을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23)는 리더십으로 이어지는 영성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홉 가지 열매를 모두 맺는다는 것을 말한다.<sup>100)</sup> 영성은 내적인 성숙이다. 또한 내적으로 성숙한 만큼 외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100) Murray,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 45.

#### 라. 나무의 열매, 리더십(Leadership)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알게 한다'(마 7:16-18). 나무에게 있어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타인의 유익을 위한 헌신이요, 희생이 있다면 그것은 유실수일 경우 그 열매가 대표적일 것이다.

성경은 이 열매를 선한 행실과 관련시킨다(딤후 3:14). 더 나아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는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간의 생각이나 태도, 행동을 뜻하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가 삶의 열매가 된다(요 15:8).<sup>101)</sup> 꽃은 열매 맺는 과정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떨어져야 한다. 성경은 꽃을 피우라기보다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한다(요 15:2, 8).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모든 생활의 활동무대는 열매 맺기 위한 재생산의 기회로 보았다(고후 9:8). 그리고 이 리더십은 순차적인 과정을 초월한 비전, 멘토링, 영성의 전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리더십이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 5.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적용 대상과 시기

시냇가의 심은 나무의 성장은 일반적인 자연법칙을 따르듯이, 그리스도인 청(소)년의 성장도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순차적인 과정을 따라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청(소)년의 시기와 때에 맞는 교육원리체계는 중요하다.

첫째, 비전을 찾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기는 인생을 준비해야 할 초기 청(소)년기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울트만의 연령 분석표로 보았을 때는 12-13세, 또는 12-14세에 해당된다.<sup>102)</sup> 초기 청(소)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요,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성경적 가르침과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과의 교제는 개인적이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초기 청(소)년들의 직업적 목표는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여러 번 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 청(소)년의 비전의 확신은 안정을 이룰 수 있다. 마가렛 제이콥슨(Margaret Jacobsen)은 초기 청(소)년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삶을 위하여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나를 택하셨다. 그

101) Bruce H. Wilkinson, *포도나무의 비밀: 풍성한 삶을 위한 영적 도약 (Secrets of the Vine)*, 마영래 역 (서울: 디모데, 2002), 31-32.

102) Aultman, “청소년 조직,” 172.

는 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그의 길을 보이실 것이다”<sup>103)</sup>고 말한다. 초기 청(소)년들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함께하심, 그리고 내일의 모든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비전을 준비하고 찾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멘토링을 준비해야 할 시기는 비전을 가진 청(소)년들이 비전의 대가를 지불하는 중기 청(소)년에게 적합하다. 울트만의 연령 분석표로 보았을 때 14-17세, 또는 15-17세에 해당된다.<sup>104)</sup> 중기 청(소)년은 성인의 집단보다 동료집단을 더 선호한다. 성인의 지도에 순종하지만 만약 창조성과 독창성이 없을 때는 권위주위라고 여긴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불성실한 언행이나 비판적이고 잡담을 즐겨하며 타협적인 지도자들은 청(소)년의 신앙적 성장을 저해시키는 걸림돌이 된다. 반면에 현명한 지도자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활동영역을 인식시켜 주고, 청(소)년의 영역 안에서 자기표현을 하도록 지도할 때 청(소)년은 현명한 지도자의 공평한 지도와 훈련을 원한다.<sup>105)</sup> 이것이 바로 중기 청(소)년들이 도움을 원하는 멘토링의 사역이다.

셋째, 영성을 준비해야 할 시기는 후기 청(소)년 시기이다. 울트만의 연령 분석표로 보았을 때 18-24세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에 해당된다.<sup>106)</sup> 후기 청(소)년들은 영적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어떻게 의미 있는 기도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성경공부를 할 것인가, 반려자와 직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기독교와 과학을 어떻게 관련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과 씨름하는 것이다.<sup>107)</sup> 에드워드 에디 2세(Edward D. Eddy Jr)는 20개의 단과대학과 종합대학교에 있는 학생연구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자기를 깊이 살피고 있으며, 자기들의 삶에 대한 논평의 뼈대를 세우기 원하였으며, 반종교적이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이 충성을 바칠만한 어떤 대상을 바라고 있었으며,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sup>108)</sup> 그러므로 후기 청(소)년은 성인으로 탈바꿈해 나갈 때 가지는 질문으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교체할 것인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라는 주체의식과 상호관계, 이념을 가진다.<sup>109)</sup>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 영성의 시기로 볼 수 있다.

103) Jacobsen, “중학생들의 특성과 필요,” 119.

104) Aultman, “청소년 조직,” 171.

105) Jacobsen, “고등학생들의 특성과 필요,” Zuck, *교회와 청소년 교육*, 128-129, 135.

106) Aultman, “청소년 조직,” 172.

107) Paul Fromer, “대학생들의 특성과 필요,” Zuck, *교회와 청소년 교육*, 139-40.

108) Edward D. Eddy Jr., *The Collegy Influence on Student Character*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59), 115-120.

셋째, 리더십을 준비해야 할 시기는 후기 청(소)년 시기이다. 울트만의 연령 분석 표로 살펴보았을 때는 18-24세이며, 구체적으로 직장인과 기혼자에 해당된다.<sup>110)</sup> 모든 후기 청(소)년들을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일할 수 있는 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학교의 교사, 직장 안에서는 직장인, 기혼자일 경우에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책임자이다. 그리고 리더십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비전, 멘토링, 영성의 각 단계에서도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12-24세)	(초기) 청(소)년 12-13세, 또는 12-14세	12-13세	12세	초등부 중등부	비전
			13세		
	(중기) 청(소)년 14-17세, 또는 15-17세	14-15세	14세	중등부 고등부	멘토링
			15세		
		16-17세	16세		
	17세				
(후기) 청(소)년 18-24세	대학생 직장인	18세	대학부	영성	
		대학생 직장인			
	기혼자	기혼자	청년부	리더십	

〈표 6〉 울트만의 연령별 분류법에 따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대상시기

이상으로 다루었던 모든 원리들과 그 원리에 일어나는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다루었음을 말해둔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관점으로 이론을 이끌어낸 것으로 교육의 시기와 범위의 한계성을 인정한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실 때 나이와 대상을 초월하신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시며 일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마 4:18), 함께 거하시며(요 3:22), 함께 사역하시는 모습(마 10:1)들은 교육학에서처럼 일정한 시기와 대상에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본 논문은 교육학적 시각에서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이고 바른 교육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편 1편 3절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 원리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을 찾아 골로새서 2장 7절의 성장의 법칙으로 청(소)년에게 적용하였음을 말해 둔다.

그리고 교육 분류법에서 미국의 연령 분류법을 따른 이유는 한국의 교육 분류법

109) Eddy, *The Collegy Influence on Student Character*, 161.

110) Aultman, "청소년 조직," 172.

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교육보다는 단편적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진학시기마다 시험이라는 평가로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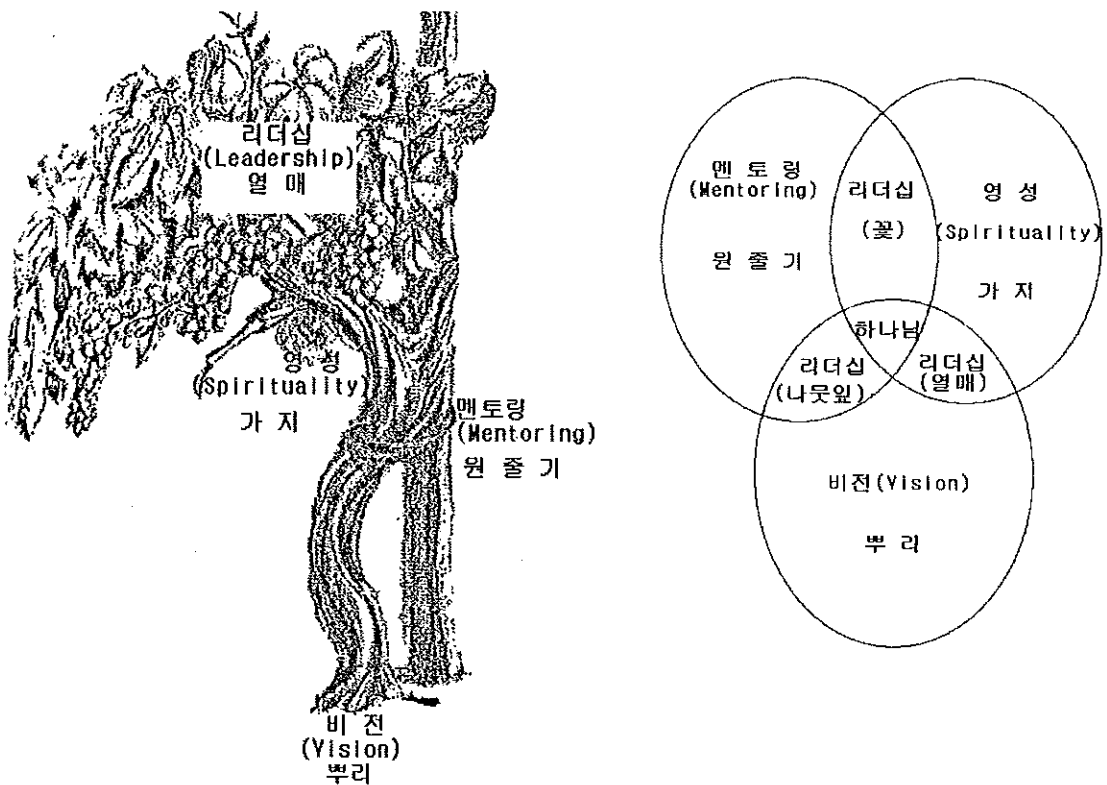
#### 6.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성장 원리들 평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라는 것은 시냇가라는 성장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시냇물과 나무와의 기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관계 속에서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은 그리스도인 청(소)년을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 사실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정의는 보는 가치관에 따라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성장 원리에 따라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연관성을 가지고 한 가지씩 풀어보고자 하였다. 부분적으로 풀어내기 어려울 때 오히려 통전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풀어보면 더 쉽게 이해될 수도 있다고 본다.

먼저는 비전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비전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클수록 지불해야 할 대가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만큼 희생해야 할 대가도 많다보니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다. 그때 그 대안으로 가지는 것이 멘토링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비전의 사람이 붙잡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지지해 줄 때 청(소)년들은 감동을 받는다. 감동을 받은 만큼 또한 변화를 경험하는데 멘토링은 관계적 측면이 강하다. 멘토링을 통하여 훌륭한 스승의 인격을 닮았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변화의 목적은 그리스도다움이다. 이것은 영성이 추구하는 목적으로 이어진다.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내적인 변화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만큼 외적인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면의 지, 정, 의 훈련이 필요하다. 영성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내적, 외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힘을 키워 건강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때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리더십으로 이어진다. 리더십은 철저히 자기중심에

서 타자중심으로 나아가는 만큼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자기중심에서 벗어난 타자주의<sup>111)</sup> 영성이 곧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1>은 시냇가의 심은 나무의 뿌리, 줄기, 가지, 열매의 부분에 해당되는 원리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열매를 강조하기 위해 포도나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상호 연관성 부분은 네 가지 원리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본다.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도 각 단계에서 해당부분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단계와 뒤의 단계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2장에서 이미 밝혔다. 그리고 네 가지 원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관성을 가지며 특히 리더십은 전체의 상호작용에 따른 영향력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포도나무 비유를 통한 4가지 통전적 원리의 역할 및 상호연관성

111) 권택조는 “타자주의란 타자(others). 즉 위로는 하나님(God)과 아래로는 사람들(people)을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삶의 태도”라고 말한다. 권택조, 기독교 영성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90.

### 제 3 절 청(소)년 기독교 교육의 현장 보고서

본 논문이 제시하는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통전적 원리들을 가지고 교육하는 학교의 현장을 찾아서 이 네 가지 원리들로 교육하고 있을 때 어떤 과정과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본다. 그 모델로 세인고등학교를 택했으며 이미 학교와 사회 그리고 교회에까지 인지도가 있는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통전적 원리들을 점검, 분석하여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필자의 네 가지 통전적 원리들을 세인 고등학교에 대입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대안학교의 원리와 방향성에 필자의 각 원리들이 어떻게 보완되어 대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1. 세인고등학교<sup>112)</sup>

1999년 3월에 문을 연 세인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길러낼 목적으로 설립된 대안학교<sup>113)</sup>이며 기독교 이념을 실현하는데 내용을 두고 있는 비전이 분명한 대안학교이다.

112) 세인고등학교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장 최근의 내용으로 수정되고 있는 세인고등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인용하였다. 세인고등학교, “세인고등학교 학교소개,” n.p. [2013년 8월 인용] Online: [http://www.seine.hs.kr/.../\\*htm](http://www.seine.hs.kr/.../*htm).

113)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에서 말하는 바로는 기존의 학교교육이 지닌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벗어나려는 다양한 실천을 모색하는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칭하였다.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인간성을 존중한다. 일반학교의 지식위주의 암기교육, 획일적인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둘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책임감을 가지게 한다. 셋째, 경쟁보다는 협동을 강조하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한다. 넷째, 생명존중과 자연 친화적인 생태계 회복을 강조한다. 다섯째, 일반학교 내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현실 변혁적인 교육이다. 여섯째, 교과지식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체험과 감성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일곱째, 전원학사에서 노작교육을 중시한다. 여덟째, 문제 해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선택하며 근본적인 사고의 변화와 기존가치의 변화까지 포함한다. 아홉째, 교육주체라고 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인데 대안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 원상회복되는 것이며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회복을 강조한다. 열 번째,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이선숙,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생활 이야기* (서울: 교육과학사, 2011), 10-14.



가. 비전의 관점<sup>114)</sup>으로 본 세인고등학교

### (1) 입학조건

세인고등학교의 설립자인 원동연은 청(소)년들이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성적은 낮을 수도 있지만 꿈이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 공교육이 포기했던 열등생과 문제아들을 받아들였다. 특히 입학조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첫째, 중학교 성적이 최하위권인 학생일 것 둘째,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학생일 것 셋째,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 번째가 바로 비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세인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될 것이다. 청(소)년에게 비전이 있으면 상처가 있고, 지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세인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고 본다.

### (2) 교육목표

세인고등학교의 교육목표로서는 기독교 정신으로 미래의 생활을 준비하는 성실한 세계인을 기르는데 목적을 둔다. 교훈으로는 첫째, 진리(진리 안에서 깨어 항상 참된 생활을 하는 사람) 둘째, 사랑(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며 헌신 봉사하는 사람) 셋째, 순종(순종으로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진리, 사랑, 순종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세계인을 기르는 것이다.

114) 제6장의 교회학교 청(소)년을 위한 통전적 교육교재 1의 비전교육 즉, 비전의 정의, 오해와 이해, 필요성, 특징, 유익, 주의사항 등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세인고등학교가 추구하는 목표가 필자가 주장하는 비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안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비전을 살피다보니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 나. 멘토링의 관점<sup>115)</sup>으로 본 세인고등학교

### (1) 교과과정 지도

먼저 교육과정으로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원칙으로 하며 목표는 교육의 세 단계 즉 선포하는 것(원리를 알려 주는 것), 가르치는 것(실천 가능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 치유(삶의 방향이나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것) 등을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실행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방침으로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허용되는 자율범위 이내에서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 및 적용하도록 하며 획일적 척도에 실시되는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며 학생 개개인의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그리고 전문적 특성화 교과를 살리기 위하여 연습, 복습을 할 때 점검목록 표를 작성하여 약점위주의 공부를 권장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정하여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 셋째, 특성화 교과 과정으로서 1학년은 중국탐방, 2학년은 동남아 테마 여행, 3학년은 대학 탐방을 하는 해외 탐방 및 테마 여행이 있고 그 외에 지리산 등반, 영화캠프, 역사문화 탐방, 자기관리 및 인간관계 교과과정이 있다. 넷째, 특기적성교육으로는 5차원 전면 교육 중심력 부분과 관련 1인 1악기를 통하여 정서력을 함양케 하고 자존감을 회복케 하며, 연구기능의 향상과 개인의 특기 개발 및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체력 부분과 관련 1인 1운동으로는 태권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풍요롭고 조화로운 성장을 돕는다.

### (2) 교육계획서

세인고등학교의 교육 계획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sup>116)</sup>

첫째, 공동 생활을 통하여 자아개념과 공동체 의식함양으로 바른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교사의 숙소 생활과 학생의 기숙사 생활을 함

115) 제6장의 교회학교 청(소)년을 위한 통전적 교육교재 1의 멘토링 교육 즉, 멘토링의 오해와 이해, 성경에 나타난 멘토링의 사례들, 멘토의 자격 및 역할, 멘토링하는 방법들, 멘토링의 유익 및 주의사항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세인고등학교의 멘토링 교육을 분류하여보니 멘토링 안에 비전과 영성분야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가 주장하는 통전적 원리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16) 고인철,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실천사례와 모형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신대학교대학원, 2011), 13-15.

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규율 있는 생활 습관을 습득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회의를 통한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게 한다. 또한 소규모의 학급운동을 한다.

둘째, 학생의 재능 개발 프로그램 운영이다. 목표는 다양성에 바탕을 둔 열린 교육 실천으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학생의 개성과 특기를 살리는 평가를 지향하여 창의력 배양에 힘쓴다. 방침으로는 다양한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 가지 많은 견학을 통하여 지식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화에 발맞추어 세계 여러 나라 학교를 방문, 교류하도록 한다.

셋째,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이다. 목표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간 열린 교육 관과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극대화한다. 방침으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침으로써 뜨거운 마음을 심어주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민족,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위한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공동 주제를 주어 학부모와 함께 공동과제 수행을 통하여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학부모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한다.

넷째, 사랑, 규율, 자율 교육이다.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체계적인 규율을 알게 하며 자율적인 인간으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학년 학생들은 자아를 발견케 하여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의 교육을, 2학년 학생들은 건장한 자아를 토대로 바른 자세와 보다 체계적인 규율 교육을, 3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자율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3분 묵상이다. 삶의 목표 의식을 설정하고 남 중심의 이타적인 정신을 함양하며 풍부한 정서력을 통한 강한 심력을 지닌 세인인으로 지도한다.

여섯째, 달란트 학습 운영이다. 개인별로 뒤떨어진 교과 과목을 보충 심화 학습 하여 실력을 쌓게 하고, 자신의 달란트를 계발하여 진로, 진학 준비를 하게 한다. 일반 교과목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심 과목과 예·체능 교과로서 체육, 미술, 음악 중심의 과목이 있다. 그리고 재능활동 과목으로서는 태권도, 풍물, 마술, 십자수,

코바늘뜨기, 모형 만들기, 사진 등이 있다.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정상수업 후 학생 1인당 1주일에 4일 이상 6시간 이상의 달란트 수업을 선택하게 한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학습하는 자세가 진지하고 집중도가 높으며 학습의 질이 높아진다. 또한 방과 후에 스스로 정해진 수업 시간을 찾아 지킴으로서 자율적인 생활태도와 책임의식을 기를 수 있다. 또한 팀 담임교사와 유대관계를 높이고 학생의 달란트나 흥미, 필요를 알아 장기적인 진로 지도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독서지도이다. 독서는 청(소)년기의 왕성한 지적탐구력과 사춘기의 감수성을 채워줄 수 있는 활동이다. 청(소)년기의 인격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건전한 사고력 배양과 다양한 문제 해결력 신장을 꾀한다. 독서를 그룹화 하여 그룹별 독서지도로 풍부한 독서량을 갖게 하며 도서담당 및 팀 담임은 학생에게 매학기 초에 학기 중 독서할 도서그룹을 갖게 하며 도서담당 및 팀 담임은 학생에게 매학기 초에 학기 중 독서할 도서그룹을 정하여 준다. 그룹은 도서 담당이 15권을 단위로 그룹화 하여 매학기 혹은 학년별로 여러 그룹의 독서를 지도한다. 독서 후에는 독후감 등 간단한 정리를 유도한다.

다. 영성의 관점<sup>117)</sup>으로 본 세인고등학교

#### (1) 다이아몬드 칼라의 세계인

5차원 전면 교육인으로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의 5가지 기본 능력을 전반적으로 교육하여,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재능(Talent)을 최대한 신장시켜서 21세기를 주도할 다이아몬드 칼라(Diamond Collar)의 세계인을 기르는 것이다. 내용으로 보면, 첫째, 지력이다. 지혜 있는 올바른 공부로 자신이 가진 지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현명한 지력인을 기른다. 둘째, 심력이다. 삶의 목표를 설

117) 제7장의 교회학교 청(소)년을 위한 통전적 교육 교재 2의 영성교육 즉, 영성의 이해와 이해, 필요성, 영성의 요소들, 영성의 인물들, 영성의 특징, 영성 가꾸기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는 영성에서 리더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내면의 준비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세인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준비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인고등학교에서 영성의 특징들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인 학습내용의 방향이 자기중심에서 타자중심으로의 변화의 과정을 영성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정하여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여 실천하며 꿈을 이루는 강인한 심력인을 기른다. 셋째, 체력이다. 바른 삶의 실천을 위하여 지력과 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몸과 힘을 가진 건강한 체력인을 기른다. 넷째, 자기관리 능력이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조직적이고 규모 있게 실천하는 자력인을 기른다. 다섯째, 인간관계 능력이다. 세계를 품을 인간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갖고 남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을 기르는 데 있다.

### (2) 교육활동 내용

첫째, 지력인으로서, 속해 독서법을 익히기, 학습의 9단계에 의한 교수, 학습전개, 각 교과별로 5차원 교재 개발 및 활용하기가 있다. 둘째, 심력인으로서, 3분 묵상의 교육 과정화, 일생 고공표 작성 및 활용, 1인 1악기 연주하기가 있다. 셋째, 체력인으로서, 매일 아침 5차원 체조하기, 교기 태권도의 육성, 산악등반 훈련이 있다. 넷째, 자기관리 능력인으로서, ‘자기관리 기르기’ 교과 운영, FDD(5차원 일기장) 쓰기, 자기관리 시간 설정 실천하기가 있다. 다섯째, 인간관계 능력인으로서, ‘인간관계 능력 기르기’ 교과 운영, 자신의 장, 단점 변환 및 활용하기, 사랑의 상담활동 전개하기가 있다. 여섯째, 통합적인 교육활동 전개에 있어서, Home Schooling 여행, Team 담임제 운영, 해외여행, 테마학습, 수학여행 실시, 전교직원 5차원 연수 참여가 있다.

### (3) 학습 방법 및 기술

첫째, 속해 독서 능력 향상을 통해 정보처리 능력을 길러 학력을 높인다. 내용과 실천면에서 본교의 특성에 적합한 속해 능력 교재를 제작 활용한다. 모든 교과 수업과 심력 훈련의 도입 단계에서 속해 독서를 실시한다. 속해 독서는 안구 훈련-상상 훈련-센스 그룹으로 사선치기-빨리 읽으면서 이해하기 과정을 통해 속해 능력을 연 2회 실시하며 월별로 속해 향상 그래프를 그려 향상의 의지를 다진다. 둘째, 자신의 특기와 취미를 바탕으로 원하는 은사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인생의 목표와 꿈을 성취하도록 한다. 내용과 실천면에서는 은사, 재능 선택을 위한 기초 조사를 하고 교과, 재능 달란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이다. 교과는 학년제로 하며 재능은 무학년제로 실시한다. 교과별 기초 심화 학습, 동

아리 활동, 자기 주도적 학습, 인터넷 강의 청취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실시한다. 시간은 1주일에 13시간 실시한다.

라. 리더십 관점<sup>118)</sup>으로 본 세인고등학교

#### (1) 특색 사업

첫째, 5차원 전면 교육의 실력훈련을 통해 고운 심성을 기른다. 3분간의 묵상을 통해 마음의 힘, 특히 반응력을 기르고, 3분 묵상의 글을 통해 감동 감화를 주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갖게 하며 고운 심성을 키워 아름답고 참된 삶을 살게 한다. 1주일에 3시간 팀(team)담임 교사의 지도에 의해 전 학급이 실시하며 각 학급 학기별로 실력 훈련 교재를 제작 및 활용한다. 모둠별로 토론한 내용을 전체에서 발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다진다. 실력 훈련 자료에 의해서 질문 만들기, 이에서 얻은 교훈을 24시간 이내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안 찾아 실천하기에 다짐하기를 한다. 둘째,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 전개로 지도자의 자질을 기른다. 교실 밖의 더 큰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주도할 자율적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고 호연지기를 길러 지도자의 자질과 품성을 쌓는다. 실천 차원에서는 본교의 특성에 적합하게 학년별로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 체험 학습 실시 전에 팀별 테마, 주제를 설정한다. 실시 후에 보고서, 사진, 소감문 등을 팀별로 전시한다. 이의 내용을 교지 '세인 이야기'에 게재하여 획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의 틀에서 벗어나 실천 중심의 다양한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2) 세인고등학교의 인지도

거의 14년 만에 전라도 완주군의 지방에 세워진 세인고등학교는 높은 선호도와 명문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학생들의 인성은 물론, 비흡연 및 비폭력 학교로 명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매년 졸업생의 9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유학을 갈 정도로 성적이 좋아졌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세인고등학교로

118) 제7장의 교회학교 청(소)년을 위한 통전적 교육 교재 2의 리더십 교육 즉, 리더십유형의 오해와 이해, 필요성, 성경적 리더십의 유형, 리더십의 법칙, 리더의 성경적 자격, 주의사항, 리더십의 비전, 멘토링, 영성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기 바란다.

오려고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2013년 현재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학교로 교과부 지정 3년간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기 에너지 절약 학생 홍보대사’ 같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 2. 통전적 원리로 본 세인고등학교 교육의 평가

기독교형 대안학교인 세인고등학교는 기독교 신앙의 이론에서 체험과 실천으로 이끄는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설립 목적, 교육 이념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교육목적과 목표를 정하여 교육활동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통전적 원리들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고 본다.

세인고등학교는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교회학교 같이 신앙중심이다. 그러나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일반학교는 전문적인 기술과 방법을 축적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것을 기능이라고 말한다면 기독교 대안학교(세인고등학교)는 일반교육이 추구하는 인본주의와 대조된다. 신본주의 교육은 하나님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육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께 있다. 또한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근거한다.<sup>119)</sup>

세인고등학교의 5차원 전면교육 학습법인, 지력, 심력, 체력, 자기 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은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전면적으로 교육하여 각 개인과 조직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는 교육 패러다임을 보면서,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인 성장이 전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는 통전적 원리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 있게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첫째, 심력의 향상은 타자중심의 인생목표와 풍부한 정서력을 가지고 공동체에 봉사하는 실천력을 키우는 것으로 비전과 리더십에 해당된다. 둘째, 체력의 증진은 강하고 성결하게 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으로 영성에 해당된다. 셋째, 지력의 향상은 배운 지식을 폭넓고 올바르게 운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리더십에 해당된다.

119) 기독교 학교 연구회,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 학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130.

넷째, 자기 관리 능력 기르기는 자율적이고 올바른 시간 활용 능력과 겸손함, 폭 넓은 개방성을 갖는 것으로 영성에 해당된다. 다섯째, 인간관계 훈련은 자존감을 가지고 타인과 바른 인간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으로 멘토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다섯 가지를 추구하는 21세기 다이아몬드 칼라 세계인을 기르는 목적은 영성과 리더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과정과 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공동체 구성과 재능 개발프로그램 운영, 가정과 지역 연계 등 교사보다 학습자 개인의 요구와 특성이 중시되는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과정안에는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통전적 교육원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인고등학교의 교육 내용들을 필자의 통전적 원리들로 분류하다보니 다소 무리가 있는 분류로 보일 수 있어 보이나 전체적으로 각 통전적 원리들이 세인고등학교의 학습내용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세인고등학교에서 추구하는 '다섯 가지를 추구하는 21세기 다이아몬드 칼라 세계인'은 필자가 주장하는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통전적 교육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제 4 절 청(소)년 사역을 위한 기독교 교육 설계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관점으로 발달주의와 통전적인 원리들을 다루면서 교육의 현장까지 다루었다. 본 절은 앞장에서 다룬 모든 내용의 결론이 될 것이다. 그리고 5장의 청(소)년을 위한 통전적인 교육 프로그램 교재를 구성하기 위한 원론이 될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다룬 이론들을 토대로 하여 사역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론을 제시하여 통전적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든 기독교 교육의 이론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시기에 어떻게 설계 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적 여러 가지 의미를 알고 설계해야 한다.<sup>120)</sup> 첫째, 기독교 교육의 초점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두



어야 하고 둘째, 교육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셋째, 학습은 진리에 깊이 매료되는 것을 의미하고 넷째, 교육은 되도록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섯째, 기독교 교육은 교회의 유일한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사역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섯째, 기독교 교육은 체계적으로 행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 1. 청(소)년 사역의 필요성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상태를 이해해야 설계를 구상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은 복음에 반응하는 시기이다. 종교적 각성과 영적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세미나나 수양회, 청(소)년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청소년의 12년(12세에서 24세)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인 81세<sup>121)</sup>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 부분이지만 12년의 기간 동안 급성장하며 또한 청(소)년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둘째, 선택의 시기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청(소)년은 중요한 결단을 내린다. 진학 및 진로, 취업, 배우자 등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에 진지한 관심을 두고 있는 시기이다. 셋째, 준비에 따른 가능의 시기이다. 청(소)년은 인생에서 봄에 비유된다. 이 말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름의 풍성함과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 겨울의 양식 등이 결정된다. 또한 청(소)년기를 씨를 뿌리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이 말은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전 생애를 바쳐져야 하는 시기로 기독교적 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말해 주고 있다. 넷째, 탈선의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고민하는 문제들을 보면, 외모, 건강, 가정환경, 용돈 부족, 공부(성적, 적성), 직업, 친구, 이성 교제, 학교 폭력, 인터넷 중독, 등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2010년 8.8 퍼센트가 나왔다. 그리고 흡연은 10명중 1명이고, 음주는 10명중 2명, 자살은 10만 명당 13명으로

120) Perry G. Downs, *기독교 교육학 개론 (Teaching for Spiritual Growth)*, 엄성욱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10), 224-231.

121) 이지연, “한국인의 기대수명 80.1년,” *통계청*, 2009년 12월 11일자, 정책뉴스면. 2013년 6월 인용. Online: [http://kostat.go.kr/...../\\*.htm](http://kostat.go.kr/...../*.htm).

나타났고, 가출경험은 2011년에 10.2 퍼센트로 주요원인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나타났다.<sup>122)</sup> 청(소)년 범죄도 늘고 있는데 살인, 강, 방화, 강간, 폭행, 상해, 공갈, 절도, 장물, 사기, 횡령, 저작권법 위반 등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며 청(소)년의 범죄가 더 무서운 것은 집단적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교회에 대한 도전이다. 청(소)년의 시기는 지식이 더해가고 경험이 넓어지며 정신적인 수용성이 확장되면서 갈등과 고민이 종교적 영역까지 넘어온다. 자신들이 믿는 것과 학교에서 들은 지식이나 혹은 타인에게서 들은 사실들과의 사이에서 불일치를 경험한다.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면서 어린 시절에 배웠던 신앙에 대하여 비판을 가지게 되는데 특별히 권위주의적이고 본질에서 떠나 비형식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회의의 빈도가 많아진다.

## 2. 청(소)년 사역 위한 목표

청(소)년은 하나의 유기체(functional whole)로 성장하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성장과 욕구 변화를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하듯이 신앙적 성장에도 발달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격체의 다른 영역의 성장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은 분명 세속의 교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sup>123)</sup>

첫째,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청(소)년을 양성하는 것이다. 세속의 공교육은 건전한 시민정신을 가진 인간을 만드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현대에는 실용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여 더 나은 조건의 직업과 명예를 얻으려는 것을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진선미를 추구하는 인간, 도덕적인 인성을 가진 인간과는 거리가 먼 이기적인 인간, 개인의 욕구 충족에 매달리는 인간, 남을 지배하려는 인간으로 되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교육의 총괄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딤후 3:17)이다. 둘째, 신앙적 관계로 조성된 공동체 안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 청(소)년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대중문화가 부추기는 이상숭배, 즉 새로운 것, 감각적인 것, 불만한 것에 대한 자기중심적 집착 등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다.<sup>124)</sup>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거나 자존하는 자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

122) 황해범, “2012 청소년 통계,” 통계청, 2012년 5월 2일자, 정책뉴스면. 2013년 6월 인용. Online: [http://kostat.go.kr/.../\\*htm](http://kostat.go.kr/.../*htm).

123) 김승경, *통전적 기독교 교육과 교육목회*, 178-183.

(contingent being)이므로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셋째, 복음의 삶의 실천을 통해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며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는 모험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다. 카르낙(H. E. Carnack)은 청(소)년 사역의 삼중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파송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25)</sup> 청(소)년 자신의 시간, 재능, 물질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성스러운 복음사역에 헌신한다는 것은 믿음의 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험이다.

### 3. 청(소)년 사역의 방법 선택요소

교육에 있어 좋은 방법이란 재료를 순서에 맞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여 청(소)년이 자극을 받고 지도를 받아 적절한 반응을 한 결과로서 그의 생활에서 요망된 성장과 계발을 산출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교육방법의 선택요소는 다음과 같다.<sup>126)</sup>

첫째, 목적의 성격이다. 목적이 기술을 숙련시키는 것이라면 실습은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기술은 실습을 통하여 숙련되기 때문이다. 방법은 최종의 총체적인 목적과 관련해서 선택되어야 하며 동시에 당면한 여러 목적들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성숙성이다. 이야기의 방법은 어린 아동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이고, 청(소)년들에게는 토론이 효과적일 것이다. 성인들은 강의 방법과 연구 방법과 질문과 대답, 그리고 토론 등이 있다. 방법은 학생들의 능력과 관심, 그리고 상황의 다른 요구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여 채택해야 한다. 도빈(Dobbins)이 언급했듯이 “그 교육의 계획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학급의 현재의 발전 상태를 능가하고 학생들의 관심과 관계없는 교육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sup>127)</sup> 셋째, 학습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세이다. 만약 학생이 교사에 대해 좋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모든 교사에 대해서 일종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적개심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넷

124) Kenneth A. Myers, *대중문화는 기독교의 적인가, 동지인가 (All God's Children and Blue Suede Shoes)*, 오현미 역 (서울: 나침반사, 1992), 271.

125) Eavey, *기독교 교육 원리*, 58.

126) Eavey, *기독교 교육 원리*, 244-249.

127) G. S. Dobbins, *How to Teach Young People and Adults in the Sunday School* (Nashville: Sunday School Board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1930), 103.

째, 물리적 설비와 시설이다. 유능한 교사는 설비들을 가장 잘 이용하기에 충분한 기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물리적 설비와 시설의 제약뿐만 아니라 시간의 제약도 받으면서 교육한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내게 하는 방법들을 채택해야 한다. 그룹에서 시간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교육의 방법으로서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는 활동은, 짧은 기간 동안에 결론에 도달될 수 있는 형태의 단순한 절차로 대체되어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시간의 제약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여섯째, 교사의 자질과 기술이다. 교사도 방법에 제약을 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어떠한 교사도 모든 방법을 동일하게 성공하면서 사용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단지 몇 개의 방법을 용이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교사는 언제나 자신의 방법을 연구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가 다루는 주제를 알며,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4. 실습을 위한 설계

실습(Handwork)은 너무 많은 활동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학습에 어떤 도움을 주어 이바지할 때만 사용되어야 한다. 벤토 이비(Benton Eavey)는 “실습활동은 독립된 방법을 구성한다기보다 오히려 학습을 다른 방식으로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교육 형태와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수단”<sup>128)</sup>이라고 말한다.

실습은 학습을 돕는 보조물로서 근본적인 가치가 있다. 학습의 가치는 행함이 없는 학습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습의 장점들이 많다.<sup>129)</sup> 첫째,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 훈련을 시켜준다. 둘째, 집중된 주의력을 배양시킨다. 셋째, 창조적인 사고력을 계발시킨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의 비이기적인 협동을 하도록 훈련시킨다. 다섯째, 주어진 한 편의 작업을 끝마칠 때까지 자기를 제어하게 함으로써 자기 통제(self-control)와 인내심을 계발시킨다. 여섯째,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일곱째, 학습 기간 동안 다양성을 제공하고 긴장을 이완시켜 주는 구실을 한다. 여덟째, 학생에 있어 자존심(self-respect)과 확신을 증가시킨다.

128) Eavey, *기독교 교육 원리*, 303.

129) Eavey, *기독교 교육 원리*, 304.

그리고 실습차원에서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도 있다.<sup>130)</sup> 첫째, 실습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려는 경향이다. 둘째, 실습과 학습의 전체 과업의 분리이다. 셋째, 모두 다 합쳐도 실습을 잘하기에 불충분한 재료들과 비품들과 장비를 가지고 실습을 수행하는 일이다. 넷째, 교사·자신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도 적절하게 할 수 없었던 일을 학생들이 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인수하는 일이다. 다섯째, 학생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에 비추어 너무 어려운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일이다. 여섯째, 그 활동이 목표로 삼는 교육과 학습의 가치 실현을 배제시킬 만큼 완성된 작품의 질의 완전함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일이다. 일곱째, 성취되어야 할 영적인 가치들을 밝히지 못하는 일이다.

#### 제 5 절 요약 및 평가

본 장에서는 인간발달이론을 기독교 교육과 접목하여 발달주의적 기독교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각 발달단계에 따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았다. 각 발달단계에 따른 시기와 속도는 청(소)년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발달단계는 거의 고정적으로 일어나므로 각 발달단계에 맞는 기독교 교육을 지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통전적인 기독교 교육은 전문화된 현시대에 청(소)년의 다양한 필요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성경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행통의 원리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을 찾아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으로 접목하여 청(소)년의 각 단계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지적,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전적 기독교 교육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였다고 본다. 특히 시편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행통 원리를 따라 청(소)년 초기에 나무의 뿌리를 '비전,' 청(소)년 중기에 나무의 원줄기를 '멘토링,' 청(소)년 후기에 나무의 가지를 '영성,' 청(소)년 후기와 그 이후의 시기의 열매를 '리더십'으로 보았다. 리더십은 또한 비전부터 영성교육의 전 과정에서 상호협력 작용으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대안학교인 세인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통전적 교육원리인 비전,

130) Eavey, *기독교 교육 원리*, 306.

멘토링, 영성, 리더십이 교육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았다. 통전적 교육 원리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은 청(소)년의 시기에 교육받아야 할 필요한 원리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장은 5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청(소)년을 위한 통전적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개발을 위한 설계도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 제 4 장

## 바울 서신에 나타난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성경적 고찰

3장에서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기독교 교육의 원본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면 본 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역의 장으로 어떻게 통전적 원리들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사도바울의 사역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의 목회철학에서 사람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 여기에서 바울의 ‘온전하게’라는 말은 ‘카타르티스모스(katartismov)’라는 말로 ‘준비’ 또는 (자질이나 자격의) ‘갖추기,’ ‘회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바울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목회사역의 원리들을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통전적 원리들로 성경적인 검증은 하고자 한다.

교회 역사를 통틀어 사도 바울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회를 한 사람들 중의 한 명이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의 사역 원리들을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네 가지 통전적 교육원리 즉,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교육원리, 즉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을 바울 서신서와 연결하여 성경적인 검증을 함으로써 성경도 이 네 가지 원리를 지지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첫째, 비전의 관점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후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 9:15)는 하나님의 비전을 듣게 되었다. 둘째, 멘토링의 관점에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

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후 1:24). 여기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지배한다(lord over, NIV)’는 뜻이며, 이는 바울이 자기의 복음 전도에 의해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앙적 기쁨을 위해 돕는 멘토로서 나아가기를 원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신앙은 지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인 만큼 바울은 그들 스스로가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을 최선의 목회라고 보았던 것이다. 셋째, 영성의 관점에서 바울의 영성을 찾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신의 관리차원에서 자기중심성이 타자중심성으로의 변화를 영성의 관점으로 보고자 한다. 특히 십자가를 강조한 목회는 영성 지향적 목회라고 볼 수 있다(행 20:23-24). 왜냐하면 어떠한 고난과 희생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타자주의를 실천하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빛진자의 의식(롬1:14)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자족하며, 하나님과 성도와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구심점인 자신이 변화되는 삶을 살았다. 넷째, 리더십의 관점에서 바울의 목회관은 분명한 자기인식으로 인한 사도의식(고전 9:1, 15:9-10, 갈 1:1)을 가지고 있었고, 환란과 고통 가운데 철저히 동역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섬김으로 팀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본 장에서는 바울의 목회관에 나타난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원리들이 목회의 성공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을 전인적으로 성장하게끔 인도한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 제 1 절 바울의 첫 번째 목회 원리, 비전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비전의 종교라 할 수 있다. 사도바울의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부터 혹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이후부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며 달려갔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분명한 달려갈 길(행 20:24)이었고, 쫓대를 삼은 것은 아시아와 유럽, 땅 끝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비전이였다.

비전을 향해 걸어갔던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기를 원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엡 1:18).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 말하려 했던 비전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상호연관성 가운데 비전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구원과 소명의 관점에서 비전 이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딤후 1:9)의 구절에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구원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대가가 있었고 그 대가의 내용은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있는 행위이셨다.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목적하심, 계획하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딤후 4:6)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을 때 그의 삶과 사역을 위해 계획하셨던 일을 성취하셨다는 말이 된다.<sup>131)</sup>

성경은 반복적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은혜가 비전의 무효성이나 무목적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도 바울의 목적과 소명인식을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 1장 1절에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이고 소명인식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는 직책을 말한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 세우심을 입었노라”라는 부분에서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이고, 소명인식은 ‘직무, 반포자,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명은 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존재적 부름(call to be)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빌 2:5-8) 둘째, 행위적 부름(call to do)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롬 1:21) 셋째, 소유적 부름(call to belong)은 하나님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다(고전 15:10).<sup>132)</sup>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걷

131) David L. Hocking, *기독교 리더십의 7가지 원리 (The Seven Laws of Christian Leadership)*, 김원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91.

132) 한국리더십학교, *하나님나라와 리더십* (서울: 두란노서원, 2008), 104.

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복음’<sup>133)</sup>이라는 비전으로 보았고, 그 은혜에 대한 부르심은 ‘사도’라는 직분의 권위(고후 12:1-6)로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한 사명 감당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목적으로 보았고, 구원은 부르심이라는 목적이 반영되었기에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부르심, 다시 말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비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명과 사명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에서 비전으로 보게 된다.

## 2. 사명과 기도의 관점에서 비전이해

성경에는 공식적인 세 가지 사명이 있다.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은 문화명령(창 1:26-28)으로 보존과 번창하는 것이고 둘째,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은 지상명령(마 28:26-28)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셋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은 관계 회복의 명령(고후 5:18-20)이다. 바울에게는 모든 관계에서 화목케 하기 위한 각오가 있다. “내가 달려갈 길(비전)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사명)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달려가야 할 길, 즉 화목케 하는 복음은 비전이었고, 그 비전을 보고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일이 바울의 사명이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바울의 대안은 기도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간구하며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 맺기를 기도한다(살후 1:11-12). 바울의 기도제목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바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비전이 있으며, 바울은 그 비전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이 기도를 말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비전 성취의 구체적인 삶은 사명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위로부

133)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euangelion)으로 선포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구원의 소식, 곧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다.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서원, 2011), 23.

터의 도움을 받는 수단은 기도이다. 비전은 사명을 통하여 현실화되며 사명은 기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성취된다.

### 3. 믿음과 소망의 관점에서 비전 이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 11:1)라고 말한다. 이 말의 뜻은 믿음이 보는 시각적인 차원에서 비전과 동일시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구체화되는 것이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들을 실형화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현재 너머의 것, 즉 ‘현재 있는 것’을 넘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두게 한다.<sup>134)</sup> 이런 의미에서 믿음과 비전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을 ‘방패’(엡 6:16)로 비유한다. 그러면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 할 것을 말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비전의 보는 시각으로 말한 반면 사도바울은 믿음을 비전 성취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싸우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방패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적군을 향해 진격할 때 공격용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믿음의 방패가 쓰인 본문의 배경은, 악한 날에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바로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다(엡 6:12-13). 비전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일이므로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낙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믿음과 함께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비전을 가진 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소망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살전 1:3)고 권면하고 있다. 비전이 클수록 지불해야 할 대가가 크기 때문에 비전을 가진 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소망이다. 그런 면에서 소망은 비전을 가진 자에게 이 세상의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먼 안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 준다. 전체적으로 믿음과 소망은 비전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134) Dale Buch, *삶을 즐기는 리더십 (Less is More Leadership)*, 강주현, 황진아 역 (서울: 도서출판 가이드포스트, 2006), 133.

과 위로라고 볼 수 있다.

#### 4. 사랑과 헌신의 관점에서 비전 이해

바울은 일생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롬 14:7-8)고 고백하며 살았다. 그 이유는 죄인 중에 죄수 같은 바울 자신(딤후전 1:15)에게 구원뿐 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에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하였다(빌 3:10).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고 권면한다.

그 사랑은 또한 헌신으로 이어진다. 비전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춤으로 자신의 야망이나 욕망을 채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비전의 특징이다. 헌신 없는 비전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고 해도 결국 자신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헌신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바울은 말한다. 바울은 “사랑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더 넘치도록 은혜를 받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엡 3:17-21)고 말한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 그 뿌리가 깊고 넓게 뿌리 내린 만큼 거목으로 자라나듯이 비전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의지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각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헌신할 때 성장한다. 비전은 자기 의나 자기 도취에서는 성장할 수 없고, 큰 비전일수록 자기중심에서 타자중심으로 뻗어 나가야 하며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비전은 철저히 사랑의 토양에 뿌리내려 헌신하는 만큼 성취된다.

#### 제 2 절 바울의 두 번째 목회 원리, 멘토링

바울의 첫 번째 목회원리가 비전이라면 두 번째는 그 비전에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필요한 멘토링이다. 이것은 만나야 할 사람, 만남의 관계에서 스승이 제자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멘토링이라는 말은 호머(homer)의 ‘오디세이(the Odyssey)’에서 유래한 말이다. 트로이(Troy)로 출정하기 전에 오디세이는 아들 텔레

마쿠스(Telemachus)를 위해 경비병을 구했다. 텔라마쿠스의 교사와 경호원으로 10년간 섬겼던 이 사람을 멘토(Mentor)라고 불렀다는 것이다.<sup>135)</sup>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짐을 분담하는 지체의식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바울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인도하는 멘토링<sup>136)</sup>의 대가이다. 사람은 프로그램이나 물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는데 바울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바울에게 감동받은 만큼 변화되었던 사람들이다.

### 1. 바울의 멘토링 이해

바울의 대표적 멘토링적 용어는 디모테후서 2장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바울의 멘토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보아야 한다.

첫째, 바울의 멘토링에 대한 개념은 공동체적 관점에서 동역자들과의 사역에서 이해가 된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소폰(πρόσωπον)’으로 ‘얼굴을 맞대고’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처럼 사람은 서로 대면하고 서 있는 존재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아서서 대화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이다.<sup>137)</sup> 그러므로 인간은 단절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멘토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분야에서 훌륭한 멘토(스승)와의 만남이나 멘티(제자)와의 만남이다. 왜냐하면 멘토나 멘티를 통하여 의미 있는 삶과 서로 배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135) Wilhoit and Dettoni, *발달주의적 시각으로 본 기독교적 양육*, 295-296.

136) 멘토링(Mentoring)은 멘토가 멘티와 활동하고 있는 상태(Mentor+ing)를 말하며, 멘토링의 용어는 첫째, 멘토(Mentor)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둘째, 멘티(Mentee, 미국)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프로테제(Protege, 프랑스), 멘토리(Mentoree, 영국) 등이 있다. 필자는 멘티로 사용하고자 한다.

137) Keith R. Anderson and Randy D. Reese, *영적 멘토링 (Spiritual Mentoring: A Guide for Seeking and Giving Direction)*, 김종호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1), 22.

바울의 목회사역을 보면, 그 일의 중심에는 동역자들이 있다. 동역자들을 통한 사역을 하였다는 것은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딤후 2:2; 행 9:26-27, 18:27-28; 롬 16:3-5). 바울의 목회사역은 철저히 동등한 동역자와의 멘토링 사역이었다. 디모데,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도, 마가, 바나바 등은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요, 동역자들이었다.

둘째, 바울의 멘토링에 대한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회에 대한 많은 상징과 은유적인 묘사 가운데 가장 기억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은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0)이라는 표현이다. 교회에 대한 이 상징은 바울의 가르침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잘 전개되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고전 12:12-27). 몸은 하나지만 그 몸 안에는 손과 발, 눈과 코, 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몸 안에서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몸의 지체들의 영적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덧붙여 지도력의 은사와 은사를 받은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모두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엡 4:1-16)는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지체가 참여하여 그들이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 몸은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된다.<sup>138)</sup> 멘토링의 관점에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성숙케 하는데 있었다.

셋째, 바울의 멘토링에 대한 개념은 제자도의 시각에서 이해가 된다. 바울은 기독교적 삶의 목표를 성숙으로 보고 있다(엡 4:11-16; 빌 3:12-16; 골 1:28-29). 특히 목양 서신서에서 디모데에게 전심전력으로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딤후 4:15). 비록 제자라는 단어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사용되었지만, 바울은 기독교적 삶을 제자도(discipleship)로 보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고 닮는 일(롬 9:29; 고전 11:12; 살전 1:6)은 멘토링과 비슷했으며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권리였다.<sup>139)</sup> 바울은 제자삼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골 1:28)는 것 이라고 말한다.<sup>140)</sup> 하나님은 모든 삶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적 사람

138) Billy Graham Center's Institution, *멘토와 함께하는 제자훈련 셀프스터디 (Training Leaders to Make Disciples)*, 김명호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 2002), 299-300.

139) Wilhoit and Dettoni, *발달주의적 시각으로 본 기독교적 양육*, 295-296.

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자훈련과 멘토링 사역의 차이점을 말한다면, 제자훈련은 방법적 측면으로 치우친 사역중심의 요소가 강하지만 멘토링은 관계적 측면으로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은 철저히 관계 중심의 제자화, 즉 멘토링 사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바울의 멘토링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아 실천하게 하는 것이었다. 바울에게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옹고 흠 없이 자신이 사는 대로 설교하였고, 설교하는 대로 살았다. 예를 들어, 사도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먹는 것이나 하는 일들(고전 10:31-11:2)의 원칙들을 말해주고 자신도 그 원칙대로 살았다. 단순히 가르친다고 성숙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의 멘토링 사역은 동역자와 지속적이며 장기간의 일대일 접촉을 통해서 성립하는 것으로 특히 언행일치(言行一致), 지행일치(知行一致),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실천적 본을 보이면서 그들의 전인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빌 4:8-9).

## 2. 바울의 멘토링 사례들

바울의 멘토링 사역은 직접적인 만남이나 편지를 통하여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었다.

첫째,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이다. 바울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고 권면하였다. 바울은 친히 멘토링의 삶의 본을 보이면서 산 전도자였다. 동역자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멘토의 진실된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주며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양육하였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사역적 모델이자, 영적 지도자적인 모델로써, 이런 역할들은 멘토와 멘티간의 관계 중심적 멘토링으로 이루어졌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멘토링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멘토링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딤후 4:12, 딤후 3:10-11).

둘째,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이다. 바나바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요, 영적

140) David Watson, *제자도 (Discipleship)*,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99), 116.

지도자로 세우는 멘토 역할을 하였다(행 11:25-26). 바울의 회심 직후에 바나바의 중요한 역할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어느 그리스도인도 바울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당시에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다(행 9:27). 바울이 아무리애를 쓰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바나바의 행동은 바울과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과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는 멘토의 역할을 하였다.<sup>141)</sup>

셋째, 바울과 디도의 관계(딤후 2:7-8)이다. 바울은 헬라어를 말하는 이방인 디도를 신앙으로 인도하고 여행의 동행자이자 동역자로 삼았던 것이 분명하다(고후 7:6, 13-15; 8:17; 딤후). 디도는 목회자가 되었으며, 전승에 따르면 그레데 섬의 초대주교(감독)가 되었다.<sup>142)</sup>

넷째, 바울과 교회의 사역자 및 성도들과의 관계이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4:14-16)고 말한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육신적인 삶과 바울 자신의 신령한 삶을 대조하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처럼 권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울은 교회의 여러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교인들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직접 본을 보이는 멘토링 사역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고전 4:16, 11:1; 빌 3:17; 빌 4:9; 골 3:16, 살전 1:6-8; 살후 3:9).

### 제 3 절 바울의 세 번째 목회원리, 영성

바울의 두 번째 목회원리인 멘토링을 통한 목적은 결국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는

141) Howard Hendricks and William Hendricks, *멘토링으로 성장하는 법 (As Iron Sharpens Iron: Building Character in a Mentoring Relationship)*, 전의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4), 41.

142) Howard and William Hendricks, *멘토링으로 성장하는 법*, 285.



것이다. 여기에서 영성분야로 나아간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성도와 불신자와의 관계, 아래로 환경 즉, 문화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자기중심성이 타자중심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할 수 있는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영성이라 할 수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본으로 예수님의 영성을 제시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한다. 결국 바울이 추구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며 본받는 것에서 영성이 자란다. 바울은 이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영성,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성,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신’ 자족(自足)의 영성,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타자주의 영성을 배웠다.

### 1. 십자가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갈 3:13). 사도바울의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요, 영성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영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을 한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저주 선언(갈 3:13)을 회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하여”(갈 3:4),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 또는 해방시킨 십자가 사건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함께 동참하였다는 것을 말한다.<sup>143)</sup> 십자가 사건에 동

143) David Wenham, *바울서신 서론 (Paul and Jesus - The True Story)*, 이한수 역 (서울: 크리스천 출판사, 2004), 86-87.

참한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자기부정<sup>144)</sup>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예수의 내주하심이다. 자기부정의 과정이 있어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될 수 있다는 말로서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롬 6:3-4),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이며(롬 6:4),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롬 6:6).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언제나 자신을 에워싸고,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을 덮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을 인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sup>145)</sup> 바울에게 있어 십자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새 창조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사건이요, 자신이 따라야 하는 삶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바울에게 영적 수술을 위한 수술도구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with Christ)’ 십자가에 못 박힌다(co-crucified).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be crucified)은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가르쳐 준다.<sup>146)</sup>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면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또한 성령님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능동적인 자기부인과 자기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이 있어야 하지만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김(reckoning)’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 체험 속에서 실체가 되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144)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서의 자기부인은 그리스도께 지배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이웃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Harold Knight, *칼빈의 신학사상 (The Theology of Calvin)*, 기독교학술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7), 176.

145) Richard J. Foster, *기도 (Prayer)*, 송준인 역 (서울: 두란노, 1996), 318.

146) Charles R. Solomon, *영적 치유의 핵심 (Handbook to Appiness)*, 김우생 역 (서울: 나침반, 1998), 90.

## 2. 관계의 영성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귄’(고후 6:14), 예수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교제’(고전 1:9), 성령과의 관계를 ‘교통’(고후 13:13)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사귄은 사랑을 말하고, 교제는 동행을 말하며, 교통은 대화 즉 기도를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귄이나 예수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통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koinwniva)로 같이 쓰인다. 그렇다면 영성은 관계 곧 코이노니아로서의 사귄, 교제, 교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영성의 삶은 종교적인 삶과 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종교적인 삶은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것을 말하고, 영성의 삶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동행하면서 모든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sup>147)</sup>

관계의 측면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달해간다. 첫째, 영성은 성부와의 관계에서 사귄을 통하여 발달한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다움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Christ-likeness)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이것을 하나님과의 사귄이라 말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사귄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경외, 사랑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신전의식(神前意識) 곧 ‘코람테오(Coram Deo)’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한다. 바울은 코람테오의 삶을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고후 8:21)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의지적으로 거룩한 삶, 경건의 능력(딤후 4:7)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함을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딤후 1:17)이시기 때문이다.

둘째, 영성은 성자와의 관계에서 교제를 통하여 발달한다. 예수님과의 교제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indwelling)하시는 삶이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 안에서(in Christ)’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바울적인 문

147) 김순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기초* (서울: 예수전도단, 2006), 20.

구'라고 할 수 있다.<sup>148)</sup>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신비적이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성령에 의해 이루어는 신비적 연합(Unio mystica)이라고 불린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주와 합하는 한 영이나라”(고전 12:6)라는 말씀과 같이 ‘영적인 연합’으로서, 유기적인 연합이고 생동적인 연합이며 변혁적인 연합<sup>149)</sup>으로 동행하는 삶이다.

셋째, 영성은 성령과의 관계에서 교통으로 발달한다. 성령과의 관계는 은사를 통한 풍성한 삶이다. 영적인 사람은 보혜사이신 성령과의 관계, 즉 교통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전(고전 6:19)이 되어 ‘성령 충만’(엡 5:18)한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함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갈 5:22-23)를 맺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통치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롬 14:17),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성령 임재의 표시가 된다.<sup>150)</sup> 사도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고 말한다.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성령을 좇아 행하라”(갈 5:16)고 말한다. 성령을 좇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갈 5:25)을 말하는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딤후전 2:7)을 말하는 것으로 교통, 대화의 삶을 말한다. 이 교통의 도구는 기도이다.

넷째, 영성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부인이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롬 1:24, 28).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자기무시, 자기멸시, 자기비하, 자기정체성 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고백이요, 자기정체성을 인식한 가운데 고백한 말이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자기거절이 아니라 자기용납으로 인한 자기욕망의 부인이라 할 수 있다.<sup>151)</sup> 영성의 중심에는

148) 김세운, *바울복음의 기원 (The Origin of Paul's Gospel)*, 홍성희 역 (서울: 엠마오, 2001), 289.

149) 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2004), 700.

150) Joy Dawson,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The Adventure of Hearing and Obeying God's Voice)*, 방원선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2), 176.

151) Deidre LaNoue, *헨리 나우웬과 영성 (The Spiritual Legacy of Henri Nouwen)*, 유해룡 역 (서울: 예영, 2003), 180.

자아<sup>152)</sup>의 변화이다. 그 변화를 이끄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와 불신자와 사회의 관계에서 성경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자아의 지, 정, 의의 인격의 변화가 되는 만큼 영성이 발달하는 것이다.

다섯째, 영성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할 때 발달한다.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발달한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속한 노예였으나 주인과 신뢰의 관계를 배신하고, 여비를 충당하기 위해 떠나기 전의 주인의 재물에까지 도적질 했던 사람이다.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감옥에서 우연히 만났고, 함께 거하면서 가르침과 섬김, 사랑을 베풀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배우며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야 할 때가 왔다고 동의하였을 때,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를 쓰면서(몬 1:19) 오네시모의 빛을 바울 자신이 갚을 것이라고 말한다(몬 1:18). 더 나아가 오네시모를 또 다른 친구이자 동료인 두기고에게 맡겨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도록 골로새로 보낸다. 바울의 이런 행동은 갈등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손상된 관계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오네시모라는 이웃사랑에서 보여준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격려해주고 섬기며 사랑했을 때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몬 1:17). 바울의 영성은 철저히 이웃사랑이라는 관계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간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몬 1:10).

### 3. 역설에 의한 자족의 영성

바울은 범사에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에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1-13)고 말한다. 그러나 자족하기 전에 먼저 배웠던 것이 있다. 바울은 창조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

152) 옛 자아 혹은 옛 사람(골 3:9; 엡 4:22)은 자기중심적 자아(self-centered self)이고, 새 자아 혹은 새사람(골 3:10; 엡 4:24)은 타자 중심적 자아(other-center self)이다. 자아가 영성발달의 주체라는 것은 영성이 발달되어야 할 주체, 즉 자아는 영성발달의 당사자라는 의미이며, 영성을 발달시키는 주체는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자아는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 성도와 불신자, 그리고 아래로 발을 딛고 사는 삶의 현장인 환경과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자기중심에서 타자중심으로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권택조, *기독교 교육 심리학*, 153.

는 피조물이라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구속의 측면에서도 약함을 영적으로도 사용하였다. 그 한 가지 예가 율법이다.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의 법칙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도록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울 자신의 필요 가운데 채워짐으로 온전하여졌다고 고백한다(고후 12:9).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차원에서 살았다.<sup>153)</sup>

바울은 자신이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비유하는 것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고전 15:8)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연약하기에 ‘십자가 아래’에서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사도권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었던 것이다. 바울 자신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참고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래 죄를 타고 태어난 인간은 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끝이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욕심이다. 그런데 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이 끝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족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 한국인은 행복의 측정을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위치에서 타인과의 비교의식을 통한 자신의 지위와 재산에 비례하여 행복의 양을 측정한다고 한다.<sup>154)</sup> 행복을 횡적구조가 아니라 종적인 상향구조만 추구한다면 만족은 거리가 멀 것이며 자기의 현실적 위치에서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자족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 복잡한 인간관계, 세상의 염려와 명성, 개인적인 필요 등이 많을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유혹으로 해방되고(롬 8:2),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빌 4:7)는 것은 바울 자신의 연약함의 역설이 만든 일체의 자족의 비결(빌 4:13, 19)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53) James M. Houston, *멘토링 받는 삶: 인간됨을 회복하는 제자도 (The Mentored Life: from Individualism to Personhood)*, 권영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4), 208-209.

154)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2000), 183.

#### 4. 타자주의 영성

바울의 타자주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지상사역, 십자가 죽으심의 세 가지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sup>155)</sup> 첫째,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서 찾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기 때문이다(빌 2:5-11).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실천 사건이었다. 둘째,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고난에서 찾고 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려는 일들로서의 고난은 자기중심적인 사역이 아니라 타자중심적인 사역이다(고후 1:5).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양의 모습에서,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상에서, 그리스도의 타자중심주의가 사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사건으로서 구약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며 십자가에 못 박혔다’(갈 6:14)고 고백한다. 십자가는 하나님 중심적 사건이었고, 타인 중심적 사건으로서 그리스도의 타자중심주의를 잘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바울에게 “성도들을 성숙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골 1:28-29)고 말하며 “성도들을 온전케”(엡 4:11-12)하기 위해 사역하였다는 것이다. 타자주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타자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서 성도들과 이웃을 위한 삶이라고 볼 수 있다.

#### 제 4 절 바울의 네 번째 목회 원리, 리더십

바울의 세 번째 목회원리인 영성을 통해서 내적인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졌다면 결국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사역의 장이다. 그곳에 가장 필요한 것이 리더십이다. 이것은 영성의 단계에서 얼마만큼 자기중심성에서 타자주의로 변화되었는가의 평가이기

155) 권택조, *기독교 영성신학*, 167, 172-174.

도하다. 리더의 리더십은 자신이 변화된 만큼 변화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21세기의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비전’과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비전을 미래의 청사진이라 한다면 리더십은 비전을 이루는 열쇠요,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리더이다. 가장 가깝게 근접한 인물로 바울을 꼽을 수 있다. 그의 영향력을 말해 주는 구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는 말씀이다. 바울의 리더십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권면으로서 바울의 대표적인 리더십 유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도적 리더십

바울의 사도적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지도력을 말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살전 2:6) 직분을 받았다고 말한다. 사도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받아 지혜롭게 행사한 지도자로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 성도들을 따르게 하는 지도자이다(살전 5:12).<sup>156)</sup>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모든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라’(행 14:21-28)고 말하는 것은 사도의 일을 시킨 경우로 바울이 간접적으로 사도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157)</sup>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에 약점이 있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도 아니었고 교회까지 박해했던 경력이 있었던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절대시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에 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며 바울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바울의 사도성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정통성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이 부정되면 그가 전한 복음과 교회는 이단이 되고 거짓 증거자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임을 변호한다(고전 9:1-2, 15:9-10; 갈 1:1).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갈 1:1)고 선언하며, 오히려 이방인을 위한 사도(갈 2:8)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사도직을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자

156) 명성훈, *성경속의 리더십 마스터 키* (서울: 국민일보, 2000), 80.

157) Hocking, *기독교 리더십의 7가지 원리*, 112.



부하였다(살전 2:7). 바울은 복음 선포로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다고 말한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영접하고 귀신들을 쫓으며 아픈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행동으로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삶을 통해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내 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짊어지고 다닌다”(고후 4:10-11)고 말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당한 고난을 말하면서(고후 11:23-29) 복음을 전할 때 온 몸으로 전하는 고생과 수고, 박해까지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갈 6:17)을 가졌다고 말한다. 이것은 바울의 사도적 리더십을 드러내는 대표적 상징이며, 성도가 바울을 사도로서 신뢰하는 증거가 되었다.

## 2. 동역자와 함께 하는 팀 리더십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철저한 팀 사역을 통한 협력선교임을 알 수 있다. 안디옥에서 1년 동안의 교육목회는 바나바와 함께하였고,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마가와 동역하였으며, 2차 선교여행 이후에는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행 18:2)부부라도 복음의 동역자로 일하였다. 2차 전도여행부터 3차 전도여행 중에는 마케도나에서 아시아까지 바울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이름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는 무려 27명이나 되는 이름들이 거론되어지고 있다. 바울의 선교는 철저히 동역자와 함께 하는 리더십임을 볼 수 있다. 동역자와 함께 하는 리더십은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고 협력하는 리더십이다. 바울은 선교사역에서 동역자와 함께 활동할 뿐만 아니라 차기 지도자들을 세워(행 15:37-39) 깊은 관심과 신뢰, 사랑으로 성장시켰다.

지도자를 양성할 때는 먼저 그들을 신뢰해야 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맡기며 그들이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현장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책임을 수행했을 때에는 칭찬과 격려를 하여 점차적으로 그들에게 더 큰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 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주도권과 최종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sup>158)</sup> 사도바울은 이런 순서와 방침으로 지도자를 양성하였고, 그들에 대한

158) J. Oswald Sanders, *지도자 바울 (Paul the Leader)*, 번역부 역 (서울: 네비게이트,

한없는 칭찬과 신뢰를 보였다(롬 16). 바울의 리더십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팀사역을 통한 신뢰와 믿음의 사역을 했기 때문이다(빌 4:2-3, 2:2, 1:27; 골 4:7-17; 딤후 4:9-16; 딤통 1:5, 3:12).

### 3. 본을 보이는 리더십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본받으라고 촉구하였다. 신약성경 기자 가운데 자신을 본받을만한 모델로 제시한 유일한 인물이 바울이다. 사람들에게 적절한 모범을 본받으라고 촉구하는 것과 일정한 모범을 설정하는 것은 기독교 리더십의 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바울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희생적 겸손과 그들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본받도록 격려하기 위해 모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모방이야말로 추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sup>159)</sup>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4번(살후 3:9, 1:6 3:7, 2:14), 고린도 교회에 2번(고전 11:1, 4:16), 에베소 교회(엡 5:1)와 빌립보 교회(빌 3:17), 디모데(딤후 1:13)에게 각각 1번 본받기와 모방을 촉구하였다. 지도자가 추종자의 모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실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 4:9).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의미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였다는 증거일 것이다.

### 4. 섬김의 리더십

신약성경에서 사도를 포함한 교회내의 모든 직책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는 ‘들로스(dou'lo"')’이다. 이 용어의 뜻은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으로서 종이란 뜻이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롬 1:1; 갈 1:10; 빌 1:1)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였다고 해서 통치하고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지정받은 자리에서 그의 직무를 이행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의 삶은 철저히 섬김의 삶이었다. 형제의 짐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

1987), 197.

159) 명성훈, *창조적 리더십* (서울: 서울서적, 1991), 72-73.

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분량 밖으로 지나쳐서 남들과 비교하는 시기와 경쟁심에 빠지지 않았었고(엡 5:21), 자신의 짐을 남에게 넘기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은 가운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섬김의 삶을 살았다.

## 제 5 절 요약 및 평가

바울의 목회관을 서신서에서 “성도를 온전케”(엡 4:12)하기 위한 준비들을 각 통전적 원리들로 찾아보았다. 가장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준비 원리로 비전을 찾아보았다. 특히 신학적인 용어들, 즉 구원, 소명, 사명, 믿음, 헌신, 소망, 사랑, 기도와 연관성을 가지면서 비전의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바울이 비전의 대가를 지불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멘토링으로 보았다. 바울이 선교사역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았다는 것이며, 인간관계 역시 동역자들도 많았지만 대적하는 핍박자도 많았다는 것이 된다. 특히 후메내오와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 같은 존재였다(딤후 4:14; 딤펴 1:20). 그러나 유희과 고난에서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바울에게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흔들리기는 하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진 영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전, 멘토링, 영성으로 준비된 만큼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되었다. 다시 말해 바울의 리더십은 비전, 멘토링, 영성의 시너지(Synergy)로 인한 상승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목회는 비전에서 멘토링으로, 멘토링에서 영성으로, 영성에서 리더십으로 나타났으며,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목회를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바울의 목회 서신서에는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원리들이 바울의 사역을 지탱하고 있었으며 그의 사역의 성장에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장에서 바울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사역 원리로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을 적용시켜 보았다.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필자가 주

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통전적인 교육원리도 바울의 목회 원리에서 나타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엡 4:12; 고후 13:11; 롬 12:2) 필수적 원리를 말할 수 있다.

## 제 5 장

## 청(소)년 위한 통전적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교재 구성

2장에서 청(소)년 발달단계를 따라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3장은 기독교 교육의 관점으로 청(소)년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지도와 통전적 원리들을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인 기독교형 세인고등학교에 적용하여 동일한 원리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을 돌보아야 하는 목회적 차원에서 바울 서신서를 통하여 바울의 사역의 원리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이 사역의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성경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본 장은 앞장 전체의 이론을 통합하여 6, 7장의 교재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라 한다. 본 장은 앞부분의 이론과 뒷부분의 교재개발의 중간연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교재를 개발을 위한 실제적인 설계를 구성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재는 현실적 상황에 맞는 성경적 통전교육과정과 교재가 되도록 하여 모든 원리들의 교과목은 성경 안에 통합시키고, 기독교적 세계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드러내는 교육 내용으로 만들 것이다. 철저히 교과 과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학문은 재해석되어야 하며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도록 한다.<sup>160)</sup> 그리고 교재 구성에 있어서 누구를,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60) Motman Harper, *현대 기독교 교육 (Christian Education)*,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84), 16-17.

## 제 1 절 교회학교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현시대의 교회학교의 교육체제로는 다원화의 21세기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20세기 한국의 기독교교육을 대변한 교회학교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독교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보화, 세계화, 과학화 사회의 여러 가지 신앙적, 사회적, 문화적 과제들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교육체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 1. 교회학교 청(소)년 부서의 위기

교회학교는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총체적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 밖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학교, 가정의 문제점에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안으로는 교사와 교역자의 전문성, 교회학교의 프로그램, 교육방법 등의 교육의 위기가 있다. 교회학교의 침체 원인들을 찾는 것은 곧 교회학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가. 교회학교의 외부적 위기

외부적인 요인으로 교회학교의 문제점을 꼽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사회적 요인이다. 급변하는 21세기에 전통적인 가치관과 교육으로는 개별성과 특수성,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어렵다. 각 개인은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독립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는 개인주의화, 종교의 사유화로 인하여 개인의 구원과 도덕 등의 문제만을 다루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현대는 각기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어우러져 사회전반에서 공존하고 있는 문화적 다원주의 등으로 인하여 인간소외 및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sup>161)</sup>

둘째, 학교교육의 문제이다. 학교교육이 현대에는 학교 붕괴론을 넘어 ‘교육 이민론’이란 극단적인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sup>162)</sup> 학교의 집단적 특성으로 인해 일률적인 교육 속에 개개인의 개성이 드러나지 못하고, 단편적 지식 전달에 초점을 둔 암기식

161) 김현숙, “후기 사회와 기독교교육의 과제,” 신학논단, 2006년, 288-294.

162) 심성보, “학교의 위기와 대안적 학교 모형의 모색,” 교육비평, 2001년 5월호, 120.

교육과 권위주의적인 훈육 체제 등은 문제가 있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전인적인 인간을 양육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나치게 지성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남들보다 먼저 배우고 더 많이 배우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실정이다. 학교교육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대학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으며 입시의 획일적인 틀에 갇혀 재능과 개성은 무시되고, 협동과 화합보다도 지나친 경쟁만이 난무하고 있다.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강박관념 등의 조급함과 공동체보다 개인의 경쟁심만 자극하여 성공지향적인 삶에 집착하도록 가르친다. 무엇보다 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길러야 할 학교가 정형화된 지식만을 전달하다보니 기계적 지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학교 수련회나 보충수업 등의 행사는 주일을 포함하여 행해지고 있는 시점에 교회학교의 교육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 가정교육의 부재현상이다. 가정의 구조가 핵가족이 되면서 맞벌이 부부로 인하여 자녀 양육문제와 세대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가정의 정체성도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의 모든 교육적 기능은 부모의 본보기 역할보다 각종 학원 및 상담실, 학교, 또래 집단, 대중 매체 등과 함께 분담하여 가정의 고유한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높은 이혼율로 인하여 편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교회학교에서 신앙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도 가정 안에서 그 교육이 연속성 있게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 나. 교회학교의 내부적 위기

교회학교의 위기는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이 앞선다. 먼저 교육자의 전문성 결여이다. 일반적으로 교사를 전문적으로 보는 관점은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기 계발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sup>163)</sup>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 본문의 이해를 저해하고 공과나 교사의 지도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63) 박범철, “교회학교의 바람직한 교사상과 교사교육”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2008), 40.

둘째, 교육목적의 일탈이다. 교회학교의 교육목적은 대부분 행사를 위한 목적이 다. 지난 해 행사를 그대로 반복하거나 타 교회나 선교 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해당 교회학교의 교육과 무관하게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교사와 교회학교의 교육 목표도 통일되지 않음으로 교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을 하게 된다.<sup>164)</sup>

셋째, 교육방법의 문제이다. 교회학교의 청(소)년은 연령의 발달 특징을 보았을 때 발달단계에 따른 바른 교육이 필요지만 대부분의 교육은 공과공부의 주입식 교육 방법으로 진행된다. 전체가 예배를 드린 후 교사를 중심으로 소그룹 형태로 분반하여 공과 공부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교사는 준비한 공과 공부 내용을 일방적이며 주입식 방법으로 가르친다. 청(소)년들의 반응을 수업에 계획한대로 이끌어지도록 전개하게 된다.<sup>165)</sup> 주입식 지식 전달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교사와 청(소)년들의 교제와 시간은 줄어들게 되며, 자연스럽게 교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어렵게 된다.<sup>166)</sup>

이와 같이 살펴 본 교회학교 안팎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총체적인 교회학교의 위기에 청(소)년을 이해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원리를 통한 통전적 교육원리의 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필요성

교회학교의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갈수록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학교의 다양한 행사와 입시위주의 교육, 그리고 취업 등이 교회학교의 설 자리를 잃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학교의 대안으로 안으로는 '방과후학교'<sup>167)</sup>가 개설되었고, 밖으로는 '대안학교'가 설립

164) 은준관, *교회의 교육적 사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69.

165) 장화선, "바람직한 교회 아동 교육: 왜? 어떻게?," *신학지평*, 1998년 봄호, 69.

166) 허금희, "교회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 31.

167) '방과후학교'라는 개념과 명칭이 도입된 것은 2005년 3월의 일이지만, 그 기원은 1995년 교육개혁 대통령 제2차 보고서에서 '특기적성 교육'에서 유래했다. 당시의 특기적성교육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1996년에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교육부의 시달로 각 시, 도 교육청 별로 각 급 학교에서 실시되었는데, 개인의



되었다. 특히 기독교형 대안학교는 학과 공부와 신앙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모두 기독교 대안학교에 진학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기독교형 대안학교의 교과과정의 내용과 일반학교의 방과후학교의 형식을 가지고 와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학교에 새로운 구조와 내용의 모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일반학교의 방과후학교를 교회학교에 맞는 모임으로 만들고자 한다. 기독교형 대안학교가 교회와 학교의 일체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방과후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와 일반학교의 형태를 가진 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과후학교는 학교와 교회, 가정까지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는 일체형이라 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를 일반사회에서 찾는다면 ‘공부방’<sup>168)</sup>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교회 안에서 찾는다면 ‘소그룹’<sup>169)</sup>의 형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소질, 적성 및 취미, 특기신장과 사교육비 절감이 목적이었다. 2004년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특기, 적성교육에 수준별 보충학습이 덧붙여졌으며, 이와 더불어 ‘방과후교실’이 추가되었다. 2005년 3월부터 전국 48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방과후학교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이후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강진현, “공교육 서비스의 마케팅 전략 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 22.

168) 공부방의 발생은 1980년대 제 5공화국의 독점 건설 자본이 도시 빈민지역의 대대적인 강제 철거를 시작하자 철거 반대 투쟁이 조직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도시 빈민지역 내에서 저임금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골목길에 방치되어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고 종교인들이 신앙양심에 대한 고백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결단하여 교회에 공부방을 열거나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작은 집을 세내어 공부방을 열게 되었다. 1992년 이후 도시 빈민 운동이 영역별로 조직화, 다양화되어 가면서 지역 내의 센터들은 제 위상에 걸맞은 활동이 요구되었다. 달동네가 재개발하려는 정부의 시책으로 도시 빈민지역 해체와 지자제에 따른 내부의 변화 요인들 속에서 공부방의 형태는 청소년 상담소, 쉼터, 문화 소모임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림공부방의 민간위탁운영(관악구) 방과후학교의 시범운영(상암국교) 등 합법적 통로를 통한 아동, 청소년 관련 복지사업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평화교육센터,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 (서울: 내일을 여는책, 1996), 262-264.

169) 소그룹은 주로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 관심그룹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참여하기 바라는 공통관심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 예를 들어 성경공부가 있다. 둘째, 활동그룹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기를 바라는 공동 활동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룹이다. 이 그룹의 활동은 목회적 보살핌, 복음전도, 사회활동, 음악사역, 자선사업 등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원그룹이다.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도우려는 공동된 바람 때문에 모인다. 이러한 그룹들은 결혼 생활의 파경, 부모역할, 학대받는 관계, 마약중독, 직업문제 같은 특정한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 구성원들 간의 진정한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넷째, 책임그룹이다. 그룹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헌신한다. 이러한 헌신은, 예를 들어 다음 한 주 동안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토론하는 일이나 어떤 영적인 훈련에 몰두하는 일이나 자신의

일반학교에서 교육과정의 문제로 대안학교나 방과후학교, 공부방이 신설된 것처럼 교회학교의 교육 또한 단편적인 교육으로 인하여 전인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교회학교에서도 방과후학교를 대안으로 다양한 공부방과 같은 소그룹의 개설이 필요하다. 주일에 한 번의 예배와 분반공부로서는 충분한 교제와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 그리고 주 5일 수업제가 시작되면서 청(소)년들의 주말활동을 책임질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해졌다.

사실 시설 면에서는 이미 교회의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선교원을 운영하는 교회에서는 추가시설이 없어도 오후에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회 내부의 소그룹실은 공부방 같은 기능을 소화하기 충분하다. 주일에 하루의 한 두 시간을 넘어 일주일의 삶을 연결하는 방과후학교의 교육이 될 때 전인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 제 2 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로 명칭을 가지고자 하는데 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원리로서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을 제시하여 이미 기독교 교육과 성경적인 검증은 마쳤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명칭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방과후학교를 모티브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제한하고 기독교적 이미지의 적합한 명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가 가지는 프로그램의 구성들은 다음과 같다.

### 1. 비전 선언문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청(소)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통전적인 교육으로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해야 할 존재들이다.

---

직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일같이 특정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Robert Banks and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The Church Comes Home)*, 장동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9), 133-137.

## 2. 사명 진술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사명 진술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전적 원리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을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한다.

둘째,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

셋째, 청(소)년의 진로선택, 취업, 결혼 등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지도 및 상담을 실시한다.

넷째, 청(소)년 시기에 겪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분별력)를 가지도록 통전적 교육을 한다.

## 3. 교육목표<sup>170)</sup>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21세기 지도자가 되게 한다.

셋째,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부심으로 살도록 인도한다.

넷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마 5:13-14)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한다.

## 4. 통전적 교육 원리 및 교육 대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원리 및 대상<sup>171)</sup>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냇가의 심은 나무의 비전은 뿌리에 해당된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야 할 비전의 시기는 초기 청(소)년기이다. 나이는 12-13세에 해당된다.

170)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려면 목표의 기능요소들이 있다. 첫째,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일괄적인 연속성을 제공한다. 셋째, 자료와 행동의 선택에 있어서 기초를 제공한다. 넷째, 측정의 바른 기준을 제공한다. 다섯째,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Seldon L. Roberts, *Teaching in the Church School: a Manual of Principles and Methods for Church School Teachers* (Philadelphia: The Judson Press, 1927), 40-44.

171)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트만이 제시한 제3장의 청(소)년기의 교육목회에 나오는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참조하라.

둘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멘토링은 원가지에 해당된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할 멘토링의 시기는 중기 청(소)년기이다. 나이는 14-17세에 해당된다.

셋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영성은 가지에 해당된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현실에 뿌리 내리는 영성을 준비해야 할 시기는 후기 청(소)년기이다. 나이는 18-24에 해당된다.

넷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리더십은 열매에 해당된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는 후기 청(소)년기이다. 나이는 18-24세의 직장인과 기혼자에 해당된다.

#### 5. 교육 대상 그룹 및 지원 조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교육 대상 그룹 및 지원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그룹에서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교회 안에서 청(소)년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룹은 교사만 지원할 수 있다.

셋째, 학부모 그룹일 때에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만 지원할 수 있다.

넷째, 기독교 계열의 그룹일 때에는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만 지원할 수 있다.

#### 6. 교육 과정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을 청(소)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둘째,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개개인에 맞는 수준의 공부를 하게 한다. 약점 위주의 교육으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며, 강점 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공부에 흥미를 가지며 집중하게 한다.

셋째,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교육을 한다. 운동으로 신체적 발달, 악기로 정서적 발달, 독서로 인지적 발달, 취미 활동으로 사회적 발달, 봉사 활동으로 도덕적 발달,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신앙적 발달을 이루도록 한다.

## 7. 교육 계획서의 특징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교육 계획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편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연속성 있는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

둘째, 통전적인 교육원리는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도록 한다.

셋째, 통전적 원리의 프로그램과 교재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발달단계인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 발달의 단계를 돕도록 한다.

넷째, 각 통전적 원리마다 이론 3개월, 실습 3개월을 겸하여 교육한다.

다섯째, 각 통전적 원리를 마칠 때 발표를 통해 평가를 해서 다음 단계로 진급시킨다.

## 8. 교육 활동 내용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교육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걸만한 비전을 가진 비전인으로서 비전 선언서와 비전 진술서를 쓰게 한다.

둘째, 만나야 할 사람, 만나는 멘토링인으로서 서로 간에 지지, 돌봄, 격려, 상담 등을 하여 성장하게 한다. 특별히 멘토는 멘티가 비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현실에 뿌리내리는 영성인으로서 영성지수를 측정하여 자기 자신에 맞는 맞춤형 영성 훈련을 받는다. 특별히 지, 정, 의의 약한 요소들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훈련들을 중점적으로 한다.

넷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인으로서 리더십 측정 및 평가를 통하여 리더십 기술을 개발한다.

## 9. 교육 모임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교육 모임과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부서 주일 오전 예배 후 오후 모임을 가장 우선적인 모임시간으로

로 하여 강의한다.

둘째, 평일에는 상황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 전에 두 번 모임을 가지도록 한다. 보충 수업처럼 개별 지도 및 상담을 한다.

셋째, 매일마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큐티 나눔과 정보, 광고를 제시한다.

넷째, 모든 교육 모임 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주일 오후의 강의중심의 모임 후에 평일의 2번 모임도 개인 지도 및 상담 차원에서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각 통전적 원리가 끝날 때마다 1박 2일의 세미나 모임을 가진다.

#### 10. 실습 및 평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실습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의 50 퍼센트, 실습 50 퍼센트로 균형 있는 교육과 훈련을 한다.<sup>172)</sup> 실습은 과제물로 충당할 수 있으며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과 대안 등을 찾도록 한다.

둘째, 한 강의가 끝날 때 마다 학습자로 하여금 발표시간을 가지게 함으로써 학습자들 간의 동기부여를 심어준다.

셋째, 발표시간은 평가의 시간으로 이해가 부족하거나 과제물이 미비하였을 때 다시 재수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

넷째, 실습 및 발표를 통하여 자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구체적인 변화를 목표로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sup>173)</sup> 행하는 방향대로 성장해 가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므로 반복해서 연습하게 하여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연속적인 성장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

172) 이론과 실습을 50 대 50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인지적 차원에서의 교육, 단편적인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전인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적, 정서적, 의지행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이 균형 잡혀야만 전인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습을 50 퍼센트로 넣을 수밖에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7을 참고하라.

173) Eavey, *기독교 교육 원리*, 100.

### 11. 시냇가의 심은 나무 학교의 교육 장점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일회성 이벤트식 프로그램이 난무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통전적 교육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여 청(소)년의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여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 의무적으로나 형식적인 비본질을 제한한다.

둘째, 대부분 교회에서는 성경공부반을 운영 중이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수료증을 받는다. 그러나 교육받을 때의 자부심은 교육받은 후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이것은 교육의 연속성, 이론을 실천할 현장이 없기 때문이다.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 훈련은 이론과 실습을 겸하여 하기 때문에 교육의 연속성이 있어 수료한 후에 청(소)년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교육의 목적은 '태도의 변화'<sup>174)</sup>에 있다. 만약 수료한 사람에게 생각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였더라도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통전적 교육 과정을 마쳤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멘토링을 통해서 스승이 있을 수 있고 제자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원리마다 전 인생 과정과 변화를 요구하는 전 생애적 기독교 교육이다.

넷째,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전제 조건으로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형식적인 신앙을 더 부추길 뿐이다. 목적의 방향성이 인위적일 때 삶의 변화는 없으며 수료자 역시 의무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교육은 직분을 얻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의 성숙과 성장을 먼저 고려한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생명 풍성한 기쁨을 누리도록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주는 접근 방법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와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통전적 교육을 처음에는 누군가를 따라서 할 수 있으나 이 교육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하여 교육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여섯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은 교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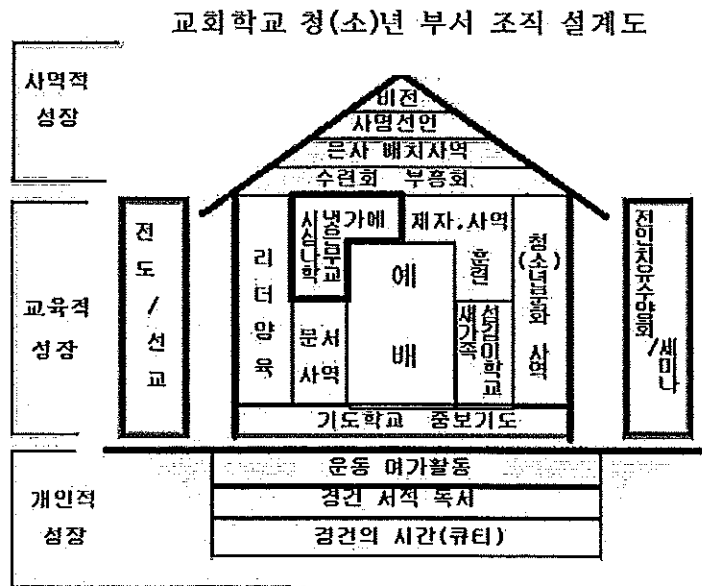
174) 이의용, *교회 문화 혁명*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9), 149-150.

는 인기 있는 용어이다. 서로 다른 세계관으로 정의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을 통전적인 교육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성경적인 정의와 본질이 비본질이 된 요소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

일곱째, 매 주제마다 반드시 평가를 통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되었는지 살핀다. 수료로 끝나는 일회성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과제나 평가가 미흡할 때는 다시 반복해서 재수강하도록 한다. 특히 미흡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통전적 교육은 순차적인 과정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주일 하루의 교육이 아니라 평일에도 만나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속성이 있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단편적인 교육과 신앙을 지양한다.

필자가 구상하는 이상적인 청(소)년 부서의 조직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학교가 차지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청(소)년 부서의 조감도 및 시냇가에 심은 나무학교<sup>175)</sup>

175) 고적한의 '2080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모델로 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청(소)년 부서의 조감도를 그려 보았다.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까지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Online: [www.young2080.com/...../\\*.htm](http://www.young2080.com/...../*.htm).



## 12. 시냇가에 심은 나무학교의 커리큘럼

	주제	내용	실 습	과제물 및 기타
예비 모임	오 리 엔 테이션 및 예배	1. 교육교재 소개 및 진 행과정 2. 소그룹 만들기 3. 참고도서 소개	1. 전체 기도회 2. 자기 소개하기	1. 신청서 작성 2. 큐티하기
6개월 이론(3) 실습(3)  주일 평일 2시간	제1강의  생명 결만한 비 전 을 가져라	1. 비전의 필요성 2. 비전의 오해와 이해 3. 성경적 검증 4. 비전의 사람들 5. 비전의 주의사항 및 유익 6. 비전실습 - 비전선언 문 및 사명진술서 작성	1. 비전 선언서 작성 2. 사명 진술서 작성 3. 발표 및 평가(1 박2일 MT)	1. 비전 관련 서 적 읽고 독후감 쓰기 2. 신앙 간증문 쓰기 3. 건의사항 및 소감문 쓰기 4. 비전 수료증 5. 큐티하기
6개월 이론(3) 실습(3)  주일 평일 2시간	제2강의  멘 토 링 으로 만 나야 할 사 람 을 만나라	1. 멘토링의 필요성 2. 멘토링의 오해와 이해 3. 멘토링의 성경적 사례 들 4. 멘토와 멘티의 자격 5. 멘토링시 주의사항 6. 멘토링 실습 - 멘토링 방법	1. 교사일 경우: 제자 3명이상 찾기 2. 학생일 경우: 멘토 3명이상 찾기 3. 편지쓰기(요청) 4. 만남 가지기(멘 토링 동의서) 4. 발표 및 평가(1 박2일 MT)	1. 멘토링 관련 서적 읽고 독후 감 쓰기 2. 건의사항 및 소감문쓰기 4. 멘토링 수료 증 5. 큐티하기
6개월 이론(3) 실습(3)  주일 평일 2시간	제3강의  영 성 으 로 현실 에 적용 하라	1. 영성의 필요성 2. 영성의 오해와 이해 3. 영성의 성경적 검증 4. 영성의 사람들 5. 영성의 주의사항 6. 영성 가꾸기 7. 영성실습 - 영성지수 측정 및 지, 정, 의 개인 맞춤식 훈련	1. 영성지수 측정 2. 영성지수 평가 3. 지, 정, 의 중에 약한 부분 개인훈 련하기 4. 발표 및 평가(1 박2일 MT)	1. 영성 관련 서 적읽고 독후감 쓰기 2. 건의사항 및 소감문 쓰기 3. 영성 수료증 4. 큐티하기
6개월 이론(3) 실습(3)  주일	제4강의  리 더 십 으로 영 향력 있	1. 리더십의 필요성 2. 리더십의 오해와 이해 3. 성경적 리더십의 유형 과 인물들 4. 리더십의 법칙들	1. 리더십 측정하기 2. 리더십을 개발 할 부분 찾기 3. 이력서 및 자기 소개 하기	1. 리더십 관련 서적 읽고 독후 감 쓰기 2. 건의사항 및 소감문 쓰기

평일 2시간	는 인 생 이 되라	5. 리더십의 주의사항 6. 리더십 실습 - 리더십 평가 및 개발	3. 발표 및 평가(1 박2일 MT)	3. 리더십 수료 증 4. 큐티하기
-----------	---------------	--	-------------------------	---------------------------

〈표 7〉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통전적 교육 커리큘럼 구성

### 제 3 절 통전적 교육 교재의 구성

#### 1. 교육 교재의 목표

이 교재는 통전적 교육의 네 가지 원리, 즉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으로 구성되어 청(소)년의 전인적인 변화와 성숙을 통한 성장을 추구한다. 비전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발견케 하고, 멘토링으로 비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며, 영성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내적 성숙을 위한 기본기를 다지고, 리더십으로 준비된 만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고 생명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데 교재의 목표가 있다.

#### 2. 교육 교재의 활용 범위

교육 교재의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교재의 기간은 청(소)년 시기의 대상에 따라 각 원리 당 6개월을 교육하는 것으로, 이론 3개월, 실습 3개월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둘째, 단시간의 세미나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론과 실습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형식으로 일정은 지도자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셋째, 교회학교의 수련회나 집회의 일정에 맞추어 본 교재를 단기적으로 편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넷째, 기독교형 대안학교에서 교과과정으로 사용할 시에는 청(소)년의 각 시기와 단계에 맞게 각 원리마다 한 학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회학교의 각 부서에서도 같다.

#### 3. 교육 교재의 활용 방법

교육 교재의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깊이 있는 토론식 교육과 발표, 그리고 소그룹의 공간장소로 12명 미만으로 한다.

둘째, 소그룹은 청(소)년 발달에서 보듯이 남녀 발달 시기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동성 그룹으로 남녀 구별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sup>176)</sup>

셋째, 이론과 실습을 겸한 통전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강의 부분과 실습 부분을 동시에 하면서 교육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 4. 교육 교재의 강의 방법

교육 교재의 강의 특징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 전달 교육보다는 지식 정보 분석을 통한 적용 중심의 교육으로 한다.

둘째, 과목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하여 점진적인 발전이 있도록 한다.

셋째, 체계적이고 통전적인 교육으로 총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전인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한다. 특히 실용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여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한다.

넷째, 토론 형식의 강의 방법으로 모두가 참여하게 한다.

다섯째, 가르치는 교사와 발표하는 청(소)년들 모두가 교육의 중심이 되게 한다.

#### 5. 교육 교재의 특징

교육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통전적 교육 교재는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성장 발달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 주제에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진도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순서의 과정에 따라야 한다.

둘째,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다면적이고 전면적인 교육으로 학습자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셋째, 교육과 동시에 실습 훈련을 동시에 가짐으로써 이론과 실천을 균형 있게

---

176)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 2장에 청(소)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부분까지 남녀를 구별하여 발달시기의 차이를 설명하였지만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발달단계에 따른 구분을 찾지 못했다. 남녀를 구별하여 교재를 만드는 것은 효과적인 교육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한다.

넷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은 철저히 원리중심의 방법(方法)<sup>177)</sup>을 취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시기에 실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나 장래의 진로에 대한 방안으로 만들어졌기에 집중도가 높으며 의흥미(meanteresting learning)<sup>178)</sup> 위주의 교육이 된다.

여섯째, 훈련 점검 차원에서 발표가 있으며 배운 원리에 따라 기준에 통과했을 때 수료증을 수여한다.

## 6. 교육 교재의 활용 지침 및 순서

통전적 교육 교재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sup>179)</sup>

첫째, 학습자는 개인적으로 배울 내용을 미리 읽고 생각해온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세세하게 참조할 뿐 아니라, 성경에 관련된 질문은 자신이 직접 해답을 기록한다.

둘째, 토론 문제는 반드시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으며, 즉흥적인 반응에 의존하지 말고 충분한 묵상과 생각하는 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실습에서 발표할 부분들은 교육의 목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발표할 주제들을 생각하면서 과제물을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인도자는 시간 분배를 잘하여 강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토론 문제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섯째, 강의 후 5분가량의 그룹 기도를 갖는다. 관련된 주제에 따라 대화식 기도도 좋고, 기도제목을 나눈 뒤 짝기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기도해야

177) 방법이란 행하는 방식이다. 방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원리(原理)가 더 중요하다. 이해와 인식은 지적행동에 항상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교육과 학습에 기초가 되는 원리들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된다면 좋은 방법이 아니다. Eavey, *기독교 교육 원리*, 7.

178)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사조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미”를 갖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만든다. 의미는 지성(知性)의 작용을 통해서 나는 맛(맛)이라고 한다면, “흥미”(興味)는 감성의 작용을 통해서 나는 맛(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있는”(meaningful)이라는 단어와 “흥미 있는”(interesting)이라는 영어단어를 접목시켜 “의흥미”(meanteresting)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거기에 학습(learning)이라는 단어를 붙여 “의흥미학습”이라는 새 학습 이론이 개발되었다. 권택조, *기독교교육심리학*, 250-251.

179) 송인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2), 7.

하며 배운 진리를 자신의 삶과 행동 양식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찬양은 교육 내용과 맞는 주제를 선택하여 부른다. 교육은 인지적 측면이라면 찬양은 정서적 측면으로 균형이 될 때 열정이 생긴다.

일곱째, 개인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합심 기도로 인도하며 마침 기도로 마친다. 의지행위적인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기도이다.

#### 제 4 절 요약 및 평가

본 장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었다. 철저히 기독교 세계관의 틀 안에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구성하였다.

현재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청(소)년 문제는 학교나 사회, 교회에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교, 가정, 교회에서조차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학교의 청(소)년 부서도 침체와 감소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청(소)년 문제의 책임이 교육에 있다고 보고, 청(소)년을 회복하는 길 역시 교육의 회복이라고 보며,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을 청(소)년의 육체와 정신, 영혼 및 지, 정, 의의 인격을 성장하도록 돕는 통전적인 교육,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을 추구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양육 체계라고 보았다.

일반 학교의 교육의 한계성 때문에 안으로 방과후학교, 밖으로 대안학교 등이 개설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학교에서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그룹의 중요성은 말하지만 소그룹을 진행할 청(소)년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또한 교회학교의 현실이다.

청(소)년들을 기독교형 대안학교에 보낼 수 없다면 일반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교회학교에서도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2시간 정도의 시간으로는 신앙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주일을 제외한 2번 이상(180)의 만남이 되는 '방과후학교'나 '공부방(소그룹)'을 개설하여 주

일의 교육이 일주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방과후학교의 방법을 모방하여 교회학교의 차원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로 하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프로그램으로서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을 중심으로 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교육은 인지적 차원에서 실시되던 제한된 신앙 교육이었다면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교육은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며 통전적인 교육 체계의 훈련이다. 청(소)년들의 때와 시기마다 발달해야 할 부분들을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으로 청(소)년의 전인적인 변화와 성장을 돕는데 의의를 가진다.<sup>181)</sup> 본 장에서 다룬 모든 내용은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통전적 양육 체계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계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정,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인도자와 학습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과 교재를 중심으로 교육할 때 효과적인 전인교육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0) 주일 오후의 정식적인 모임에서의 강의는 한번이다. 그러나 평일의 만남은 개별적인 맞춤형 지도를 지향하는 상담적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181) 필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재를 개발하여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교회학교 20여년의 사역을 통해 보았을 때, 비전에서 멘토링, 멘토링에서 영성, 영성에서 리더십으로 꾸준히 사역하여 열매를 거두었기에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다고 본다.

## 제 6 장

## 교회학교 청(소)년을 위한 통전적 교육 교재 1

본 장에서는 이제까지 다루었던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원리를 교육 교재로 만들고자 한다. 먼저 교육 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를 교회학교의 교육 개선과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목적에 두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원리대로 네 가지 질문에 청(소)년들이 대답하기 위해서이다. 첫째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만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둘째로, 청(소)년들은 인생에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축복된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로, 청(소)년들은 현실에 뿌리내리는 영성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넷째로, 청(소)년들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인 비전과 멘토링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비전 교육, 생명을 걸 수 있는 비전을 가지게 하라

비전 교육은 청(소)년들이 방향성을 갖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비전은 철저히 청(소)년 자기중심의 비전, 즉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데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준으로 비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들어가는 말

청(소)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첫째, 비전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둘째, 당신은 비전(꿈)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 2. 비전의 필요성

청(소)년들에게 비전은 필수이다.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은 청(소)년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개명을 통한 정체성 발견이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창 17:5, 15), 야곱에서 이스라엘(창 35:10) 등이 있다.

둘째, 청(소)년들은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잠 29:18; 고전 9:26; 행 20:24; 답후 4:7).

셋째,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요셉의 상처와 구원(창 45:5), 다윗의 아돌람 동굴에서의 꿈(시 57:8),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행 2:26; 히 9:28) 등이 있다.

넷째, 청(소)년들은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며 약하기 때문이다(요일 2:16; 잠 7:22; 전 11:9).

다섯째, 청(소)년의 시기는 비전에 따라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이다(을 2:28; 롬 12:2).

## 3. 비전에 대한 오해와 이해<sup>182)</sup>

청(소)년들은 비전을 꿈이나 직업, 목표로 대부분 생각한다. 비전에 대한 오해를 풀면 비전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첫째, 비전은 장래 희망이나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바울의 직업은 무엇인가?(행 18:2-3) 바울이 그 직업을 가져야만 했던 이유가 비전이다(고후 11:9-12).

둘째, 비전은 인간의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다.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야망이나 욕망을 비전이라 생각한다(렘 17:9; 막 7:21-23).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것이다(삼상 1:15; 민 21:7-9).

셋째, 비전은 목표가 아니라 단회적 목표를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원동력이다. 느헤미야의 1차, 2차, 3차 목표는 무엇인가?(느 2:5, 8-10, 11-13장) 그 목

182) '비전'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인 동시에 오해를 많이 받는 말이다. 말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표를 통해서 가지고자 했던 것이 비전이다(느 13:31).

넷째, 비전은 소명이나 사명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sup>183)</sup> 비전과 소명과의 관계(행 9:1-19, 22: 3-21, 26:2-18; 창 12:1-3), 그리고 비전과 사명과의 관계(행 20:24; 빌 3:14)를 알면 비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4. 성경적 관점의 비전

현 시대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인기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는 비전을 말하고 있다. 비전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비전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잠 29:18; 갈 2:2; 행 4:28; 롬 4:13, 20; 살전 5:18).

둘째, 성경에서도 거짓 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겔 13:7, 13; 렘 23:16; 에 2:14).

셋째, 비전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빌 3:8; 계 1:1).

#### 5. 비전과 신학적 용어들과의 관계

비전은 비전의 관점에서 찾을 수 없다. 비전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하며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신학적인 용어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특히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비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구원(Salvation)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무조건적 은혜가 비전의 무효성이나 무목적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전 15:10). 구원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이다(딤후 1:9; 롬 1:1).

둘째, 소명(Calling)의 관점에서, 바울의 소명은 존재적 부름(call to be; 빌 2:5-8), 행위적 부름(call to do; 롬 1:21), 소유적 부름(call to belong; 고전 15:10)<sup>184)</sup>을 받았다. 그러므로 바울은 소명으로 인하여 분명한 목적과 뜻, 비전을 가졌다(고전 1:1; 딤후 6:2; 벧전 2:21).

183) 소명을 받아야 비전을 보고, 비전을 봐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비전은 하나이지만 사명은 선택과 결정으로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다. 한국리더십학교, *하나님 나라와 리더십*, 106-107, 153-156.

184) 한국리더십학교, *하나님 나라와 리더십*, 104.

셋째, 사명(Mission)의 관점에서,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3가지 사명, 즉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명령인 보존과 번창(창 1:26-28),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한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마 28:26-28),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계 회복의 명령인 화복케 하는 직분(고후 5:18-20)의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받는다. 그러므로 꿈은 현장이 없지만 비전은 사명을 위한 현장을 준비한다(고후 10:15-18; 행 20:24).

넷째, 믿음(Faith)의 관점에서, 비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구체화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실형화 하는 것이다(히 11:1; 엡 6:16). 그러므로 믿음으로 신앙의 형상화를 하는 것이 비전이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 너머의 것, 즉 '현재 있는 것'을 넘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두게 한다.<sup>185)</sup>(행 9:17-18). 바울은 비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전진하는 차원에서 비전을 믿음의 방패로 비유한다(엡 6:16).

다섯째, 헌신(Devotion)의 관점에서, 헌신 없는 비전은 성취하였다하더라도 자신의 야망이나 욕망일 수밖에 없다(막 10:45; 롬 14:7-8). 비전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헌신이다(고후 6:4-10).

여섯째, 소망(Desire)의 관점에서, 비전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꼭 필요한 징검다리가 소망이며 사명의 든든한 후원자이다(롬 5:4; 살전 1:3). 그러므로 소망과 비전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롬 8:24).

일곱째, 사랑(Love)의 관점에서, 비전은 사랑의 토양에 그 뿌리가 깊고 넓게 뿌리 내린 만큼 거목으로 자란다(엡 3:17-21). 사랑은 비전을 이루는 가운데 나타나는 인품이다(고전 13:4).

여덟째, 기도(Prayer)의 관점에서,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왕상 18:42-45; 막 9:29).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중보(도교)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살전 5:25).

아홉째, 교회 공동체(Church Community)의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으로 비전의 열매가 된다(마 16:16-18; 엡 1:22-23). 그러므로 비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에 나타난다(엡 1:23).

185) Buch, *삶을 즐기는 리더십*, 133.

## 6. 비전의 특징

비전의 속성은 특징으로 나타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의 시작과 성취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비전을 주시고(은 1:1-2; 빌 2:13), 비전을 성취(은 3:10)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둘째, 비전은 변화<sup>186)</sup>와 성장을 이끈다. 바울은 내부의 싸움(롬 7:18-21)으로 변화와 성장(고전 15:10)을 가졌고, 요셉도 고난 가운데 변화와 성숙(창 45:5)을 가진 것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비전 안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다. 나사로와 부자(눅 16:25)는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를 보여주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반대였다(마 5:3). 바울과 동역자들이 구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살전 2:4-6)이었다.

넷째, 비전은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이며 전체를 보고 본질을 본다.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대상 22:6-8)와 솔로몬의 성전 건축(왕상 6:38)과 바울의 선교 1, 2, 3차 및 로마 전도 여행(행 13:3-4, 15:36, 18:23, 27:1-2)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섯째, 비전은 거룩한 부담감에서 온다.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삼하 7:1-2)과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계획(느 1:3-4)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갈급함에서 나왔다.

여섯째, 비전은 모방이나 표절보다 개인의 소명이나 은사, 재능, 자질대로 쓰임 받는다. 그러므로 은사(벧전 4:10)를 찾아야 하며 소명(딤후 1:9)을 발견해야 한다.

일곱째, 비전은 미래지향적이다. 과거를 되풀이 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앞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이기적인 생각(민 32:1-5; 수 4:12)은 안주하는 태도이고, 아브라함의 이주(창 12: 1-4)하는 모습은 모험하는 비전이다.

여덟째, 비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비전을 받는 사람의 수용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sup>187)</sup> 요나의 공간적 제약(은 2:1, 9)과 다윗의 시간적 제약(삼상 16:11-12)이 있다.

186)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현 시대는 소유물의 양(quantity)보다 소유의 질(quality), 돈의 가치보다 시간의 가치로, 일을 통한 만족에서 여가를 통한 만족으로, 구 전통보다 신 전통으로, 사람의 신뢰보다 인격의 증명으로의 변화를 요구한다. Walter C. Wright, *관계를 통한 리더십: 다양한 관계를 통해 가져오는 섬김의 리더십 (Relational Leadership)*, 양혜정 역 (서울: 예수 전도단, 2007), 129-132.

187)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육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의 시기와 때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비전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

아홉째, 비전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고넬료(행 10:4, 31)와 바울의 부탁(골 4:3)의 경우가 있다.

열 번째, 비전은 한 개인이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전체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성벽재건, 바울의 선교사역은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체로 확대된 사역이었다.

열한 번째, 비전은 눈감고 꾸는 개꿈이 아니라 눈뜨고 꾸는 거룩한 꿈이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당시 상황(느 4:15-18)과 사도 바울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스티그마를 가지게 된 경우(행 9:18; 갈 6:17)는 현장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열두 번째, 비전은 텔레비전을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아야 생기기 때문에 세속적 비전이 아니라 거룩한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요시아 왕의 개혁(왕하 22:8-13, 23:1-25)과 에스라의 종교개혁(느 8:1-18)은 성경에서 시작하였다.

열세 번째, 자신이 능동적으로 비전을 가지면 야망이나 욕망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수동적으로 비전을 가지면 거룩한 비전이 된다. 사울의 자랑(삼상 15:12)과 제자들의 비전(마 4:19; 막 1:17)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 7. 성경에서 찾은 비전의 사람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세상적 기준에서 뛰어났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평범하거나 결함을 가진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비전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족하고 약했지만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또한 그 비전을 보시고 그 비전대로 마음껏 사용하셨다.

첫째, 복의 통로 아브라함이 있다.

둘째, 눈감고 꾸는 꿈에서 눈뜨고 꿈을 꾸면서 비전의 길을 걸었던 요셉이 있다.

셋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한 모세가 있다.

넷째,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여 비전의 아들,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있다.

다섯째,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의 밤을 깨우고 싶었던 다윗이 있다.

여섯째, 성벽재건에서 종교개혁, 종교개혁에서 정치개혁까지, 비전의 날개를 펼친 느헤미야가 있다.

일곱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도 화내며 도망가는 요나가 있다.

여덟째, 광야의 길을 닦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이 있다.

아홉째, 비전의 중심, 예수님이시다.

열 번째,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달려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

열한 번째, 사람 낚는 어부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된 베드로가 있다.

열두 번째, 핏박자 사울에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 된 사도바울이 있다.

열세 번째,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절망의 밤모퉁이에서 희망의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있다.

## 8. 비전이 주는 유익

비전이 주는 유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은 무의미한 삶이 연장되는 것을 막아 주면서 살아갈 의미를 지속적으로 부여한다.

둘째, 비전은 변화를 추구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셋째, 비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믿음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성, 소명의식과 자존감을 고양시켜 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합과 일치로 가져다준다.<sup>188)</sup>

넷째, 비전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이든지 의지에 지속성이 있으므로 쉽게 좌절하지 않고 자신감이 넘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다섯째, 비전을 가진 자는 자신의 한계 즉, 고정관념, 선입관, 편견, 환경적 상황들을 뛰어 넘는다.

여섯째, 하나님은 항상 비전을 가진 자와 사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동행, 능력을 충만히 받아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삶의 현상이 풍성해진다.

일곱째, 비전은 내일을 확실히 보기 때문에 오늘의 계획(비전대로 살기위한 밑거

188) George Barna,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Leaders on Leadership)*, 최기운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2000), 79.

름)을 결정할 수 있다.

여덟째, 비전은 미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삶에서 징검다리로 만든다(요셉).

아홉째, 비전은 시계를 보고 시간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한다.

열 번째, 비전은 활동을 위한 목표의 기초 및 동기가 되므로 날마다 새롭다.

열한 번째, 비전은 의사를 전달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일관성 있는 삶을 살게 한다.

## 9. 비전의 주의 사항

비전의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편안함, 현재의 불만족, 미래의 불안감이 비전을 갉아먹는다.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원망(출 16:1-3)과 아나니아와 삽비라(행 5:1-10), 바리새인과 서기관(마 5:20 23:25, 29), 데마(딤후 4:10) 등이 있다.

둘째, 비전의 성취 과정 중에 도취되어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질 수 있다. 사울은 겸손 때문에 왕이 되었다가 교만 때문에 왕의 자리를 박탈당했다(삼상 9:21, 15:20-23). 그러므로 청지기 의식(벧전 4:10)으로 겸손해야 한다.

셋째, 비전이 클수록 대가 지불이 부담스럽고, 장기적일수록 포기하고 싶어진다.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제자리로 돌아갔다(요 21:3). 그리고 장기적인 싸움으로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지 못했다(삿 1:21, 27-36, 2:2-3).

넷째,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과 은혜를 강조할수록 비전을 인간의 행위로 인식하여 무시하려고 한다(마 6:34; 엡 2:8; 요 15:16; 잠 16:1, 33 ; 고전 15:10). 비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딤후 1: 9-12; 롬 12:1-2).

다섯째,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승부하고, 세속화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부하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속적 세계관(창 3:6; 마 4:1-11; 요일 2:16)과 비전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골 2:3).

여섯째, 비전은 변화(transformation)를 요구하기에 무사안일주의를 지향하는 청(소)년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다. 환경의 변화보다 자기 자신의 변화가 우선순위(마

16:24)를 두며 고난은 변화의 수단(은 2:9)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곱째, 비전을 가지면 고난이 뒤따라온다. 그러나 비전의 뿌리는 고난을 통해 깊어진다. 다니엘과 세 친구(단 3:8-23, 6:1-17), 바울의 스티그마(갈 6:17)가 있다.

## 제 2 절 비전 실습 가이드

비전의 이론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습 교육이 필수적이다. 실습은 이론의 인지적 차원의 교육을 기반으로 한 정서적 반응과 의지 행위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비전 실습 교육은 비전 선언문과 사명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 비전 선언문과 사명 진술서의 유익

비전 선언문과 사명 진술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행동하게 한다.

둘째,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삶의 내용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모든 삶의 내용에 열정을 갖게 한다.

넷째, 개인의 작성이지만 곧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다섯째,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주관적 평가보다 옳고 그름의 객관적 평가를 지향한다.

여섯째, 일이 많고 복잡하여도 항상 객관적이며 일치된 방향성을 제공한다.

일곱째, 비전 선언문과 사명 진술서를 글로 옮겼을 때 사고를 명확하게 해주며 모든 일에 집중을 하게 한다.

### 2. 비전을 찾기 위한 자격 및 준비

비전 선언문과 비전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격 및 준비 조건들이 있다.

첫째,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골 2:6)을 가진 자이다.

둘째, 교회에서 학습, 세례 교인 이상인 자이다.

셋째, 정체성 확립의 시기인 청(소)년 이상인 자이다.

넷째, 성경 일독의 경험이 있는 자이다.

다섯째, 날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자이다.

여섯째, 비전을 갈급하거나 사모하는 자이다.

### 3. 비전을 찾기 위한 환경적 요소들 탐구

비전 선언문과 사명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환경적 요소들을 찾아야 한다.

첫째,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소속감을 살펴본다. 가정에서의 관계(부모, 형제), 학교에서의 관계(교사, 친구), 교회에서의 관계(목회자, 교사, 친구, 불신자), 직장(아르바이트)에서의 관계(직장 상사, 동료 직원, 손님)에서 어떠한가?

둘째, 여가 활동에서 비전을 찾아본다. 어떤 책, 영화, 봉사 활동, 운동, 여행, TV 프로그램을 좋아하는가?

### 4. 비전을 찾기 위한 개인적 탐구

비전 선언문과 사명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인간 관계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장·단점과 타인이 말하는 장·단점은 무엇인가?

둘째, 자신의 발자취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

셋째, 자신을 찾는 도구들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한다. 혈액형, 사상체질 테스트(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MBTI 테스트, 뿌리 찾기(가계도 그리기)를 한다.

넷째, 사람은 누군가를 닮게 되어 있다. 가장 좋아하는 책 3권과 존경하는 인물 3명을 찾아서 공통점을 찾으면 비전의 그림자가 보인다.

### 5. 비전을 찾기 위한 신앙적 탐구

비전 선언문과 사명 진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신앙의 힘으로 성경에서 찾는다.

첫째,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 구원의 확신, 소명의 인식, 사명의 자리, 봉사의 열정, 갈급함의 기도가 있는가?

둘째, 하나님께 받은 은사(딤후전 1:7)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도구이다. 성경은 은사를 몸에 비유(롬 12:4-8)하기 때문에 은사테스트를 하여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자신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신앙 간증문을 쓴다. 믿기 전의 생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 자신의 신앙 고백, 믿고 난 후 변화된 자신의 삶을 기록하여 본다.

넷째,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암송 구절을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본다. 비전의 힌트일 수 있다.

## 6. 비전과 사명, 은사와의 관계성

비전을 찾기 힘들 때는 반대의 방법을 이용한다. 은사를 알면 사명의 길이 보이고 사명의 길을 알면 비전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비전이 산의 정상이라면 사명은 산을 올라가는 A, B, C 코스이다.

둘째, 비전은 사명에 선행한다. 하지만 사명 없는 비전은 공허하고 불완전하며 비전 없는 사명은 맹목적이다.

셋째, 비전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추상적이다. 그러나 사명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독자적이다.

넷째, 비전은 철학적인 반면에 사명은 전략적이다.

다섯째, 비전이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명은 아래로부터 행해야 할 목표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도록 위로부터 또 한 가지 은사를 주신다. 여러 은사는 사명을 도와 비전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다.

## 7. 비전 선언문 작성

비전 선언문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첫째, 한 문장을 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비전 선언문은 '나는 무엇을 하는가?'의 질문에 답을 주어야 한다.

셋째, 비전 선언문의 특징이 있다. 사명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야 하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하며, 추상적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과정과 결과도 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비전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제자들의 비전은 ‘사람 낚는 어부’(마 4:19)였다. 특히 베드로의 비전은 ‘양을 먹이고 치는 목양’(요 21:15-17)이었고, 사도바울의 비전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행 9:15) 것이었다.

다섯째,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한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세속적인 비전일 수 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비전은 \_\_\_\_\_ 이다.”

## 8. 사명 진술서 작성

사명 진술서 작성에는 원칙이 있다.

첫째, 현재형으로 작성해야 한다.

둘째, 사명 진술서의 특징은 일에 재미와 기쁨이 있어야 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며, 간결하고 읽기 쉬우며, 이해하기 쉽고, 한 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워야 한다. 단기 목표는 하루, 일주일, 한 달, 일 년으로 3개월마다 평가하고, 장기 목표는 10년의 장기목표에는 5년간의 목표들을 계획한다. 5년의 평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셋째, 사명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면, 제자들의 비전이 ‘사람 낚는 어부’였다면,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해야 할 일이 곧 사명이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일, 즉 사명을 제시하셨는데 지상명령(마 28:18-20)이 곧 사명이었다. 그리고 바울의 경우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가 그의 비전이었다면 사명은 1, 2, 3차 선교여행 중 교회 개척과 로마에서의 옥중 생활 가운데 복음 전파가 사명이었다.

넷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사명이 된다. 그러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듯이 사명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일이어야 한다. 학교, 가정, 교회, 직장(아르바이트)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사명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자신의 인생에서 3년, 6년, 10년, 20년 이내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 살펴본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선언문을 네 가지 이내로 작성하여 본다.

### 9. 비전 선언문 및 사명 진술서 발표 및 검토

비전 선언문과 사명 진술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모임 가운데서 발표한다. 그리고 인도자로부터 평가를 받아 교회에 보고한다.

첫째, 먼저 비전 선언문과 사명 진술서를 작성한 느낌을 말해본다.

둘째, 발표할 때 한 사람이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셋째, 발표에 통과한 청(소)년들에게는 비전 선언문과 사명 진술서를 액자로 만들도록 과제를 준다.

넷째, 비전 선언문과 사명 진술서의 액자를 집 거실에 걸어두어 하루에 한 번 이상 읽게 한다.

다섯째, 인도자가 원하는 발표를 하였을 때에는 교회에서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한다. 그러나 과제물이나 발표가 미흡할 때는 다시 강의를 듣도록 인도한다.

### 제 3 절 멘토링 교육,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라

비전을 가진 자가 비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비전을 성취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나무를 옮겨 심을 때도 가지치기를 하며 세 개 정도의 지지대를 원줄기에 받쳐 주듯이,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분이상의 스승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멘토링 교육 내용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들어가는 말

첫째,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를 읽고서 느낀 점을 말해 본다.

둘째, 자신의 현재 삶 속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본다.

#### 2. 멘토링의 필요성

멘토링의 필요성은 멘토링이 왜 필요한지의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산업화의 발전으로 개인주의가 되면서 인간관계의 단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인데 성도들이 교

회 성장의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셋째, 현 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로서 권위의 파괴,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선택과 판단,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이기 때문이다.

넷째, 그리스도인 양육에 사람 중심보다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비전을 가진 자를 위한 연속성으로 양육의 필요성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교사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린 일반 학교의 위기 때문이다.

일곱째, 역기능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의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덟째, 청(소)년 시기에는 진로, 자아정체성, 이성교제 등과 같은 갈등의 문제를 지도하여 해결책을 찾아줄 멘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홉째, 청(소)년 부서에서 새가족을 정착시킬 때 멘토링은 일대일의 관계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열 번째, 청(소)년의 시기는 신체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 있는 행동보다 확실한 멘토가 필요하다(딤후 2:22).

### 3. 멘토링의 유래

멘토링의 유래는 성경에서 기원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원리들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첫째, 멘토링의 기원은 시인 호머(Homer)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조언자이자 친구인 ‘멘토’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sup>189)</sup>

둘째, 성경 안에서 멘토링을 찾아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전 4:9-10),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잠 27:17),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창 2:18), 충성된 사람을 키우면 자기와 같은 사람을 키운다(딤후 2:2), 일만 스승보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자식을 낳는다(고전 4:15), 징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받는다(히 12:7-8; 잠 3:11-12), 가지치기는 나무의 수형과 열매를 위해서 필요하다(요 15:2), 나무의 원줄기를 받쳐주는 든든한 지지대와 같은 것이다(시 56:4, 10, 84:12, 37:5; 고후 1:9; 롬 16:9, 21, 몬 1:1; 고후 8:23) 등이 있다.

셋째, 멘토링(Mentor+ing)은 멘토와 멘티가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멘토

189) Howard and William Hendricks, *멘토링으로 성장하는 법*, 247.

(Mentor)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멘티(Mentee)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된다.

#### 4. 멘토링의 오해와 이해

##### 가. 멘토링의 오해

멘토링의 오해를 이해하는 것은 곧 멘토링을 아는 것이다.

첫째, 멘토링은 성경의 용어가 아니다. 그러나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 발견된다.<sup>190)</sup>

둘째, 멘토링의 용어나 의미가 너무나 다양하여 한 마디로 정의하거나 옮길 때 잘못 해석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코칭(coaching)<sup>191)</sup>이 운동의 승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멘토링은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넷째, 팀형성(Team Building)<sup>192)</sup>은 다수를 양육하지만 멘토링은 소수를 양육한다.

다섯째, 멘토링은 ‘제자훈련’보다 훨씬 넓은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sup>193)</sup>

190) Howard and William Hendricks, *멘토링으로 성장하는 법*, 119.

191) 코칭이 멘토링과 다른 점은 첫째, 멘토링보다 조직적이지 않고, 관리 차원의 유형이며 함께 경기하는 선수 코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방법이다. 둘째, 코칭은 리더십의 지시적인 접근이 아니라 참여적인 접근이다. 셋째, 코칭은 조직체의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으로 만들며, 리더를 사람가운데 둔다. 넷째, 코치들은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말과 행동으로 똑같이 가르친다. 다섯째, 리더를 통치자나 상관인 것이 아닌 종이나 친구로 본다. Wright, *관계를 통한 리더십*, 86.

192) 팀형성이 멘토링과 다른 점은 첫째, 리더를 코치 또는 종으로 보며 따르는 자들을 한 팀으로 본다. 둘째, 좋은 코치들은 강한 팀을 만들어 낸다. Wright, *관계를 통한 리더십*, 89.

193) 테드 앙스트롬(Ted Engstrom)은 멘토링과 제자훈련의 차이점을 말했다. 제자 훈련자(discipler)는 제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포기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영적이며 희생적인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반면에 멘토는 제자를 훈련시키며, 제자에게 용기를 주고, 제자의 잘못을 바로잡고, 제자로 하여금 문제를 맞대응하게 하며, 제자에게 책임감을 불어넣는 것처럼 여러 부분들을 개인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Howard and William Hendricks, *멘토링으로 성장하는 법*, 260.

#### 나. 멘토링의 이해<sup>194)</sup>

멘토링의 대가들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첫째, 폴 스탠리(Paul Stanly)와 로버트 클린턴(Robert Clinton): 멘토링은 멘토, 즉 상당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자신이 가진 것(지혜, 정보, 전문지식, 신념, 통찰력, 관계, 지위 등의 근원들)을 제자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여 제자의 발전이나 성장을 돕는 것이다.

둘째, 린다 필립 존스(Linda Philips Jones):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멘토는 당신 삶의 중요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당신을 도와주는 영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들은(그들이 아는 사람이거나 아는 것을 통해) 당신의 복지를 증진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셋째, 밥 빌(Bobb Biehl): 멘토링을 정의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만 이것을 묘사하는 것은 아주 쉽다. 이것은 평생 동안 당신을 보살피 주며 당신이 잘 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아저씨를 갖는 것과 같다. 그는 당신의 경쟁자가 아니다. 그는 당신과 경쟁하거나 당신을 좌절시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원하려고 있다. 그는 당신의 비평가이기보다는 응원자이다.

#### 다. 멘토링의 관계의 관점으로서의 유형

멘토링을 관계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유형은 다음과 같다.<sup>195)</sup>

첫째, 수동적 멘토링(passive mentoring): 따르는 자가 영웅이나 역할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의 가치관 또는 행동을 본받으려 할 때 일어난다.

둘째, 간헐적 멘토링(occasional mentoring): 교사, 카운슬러, 후원자 등과의 관계에서 주로 리더쪽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침을 주지만, 따르는 자가 그것을 항상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계획적 멘토링(deliberate mentoring): 부모와 자녀들, 영적지도자들과 지도를 받는 자들, 코치와 선수들 사이에서 따르는 자를 더 성숙하게 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상호적인 배움의 관계이다.

194) Howard and William Hendricks, *멘토링으로 성장하는 법*, 259-260.

195) Wright, *관계를 통한 리더십*, 83.

#### 라. 멘토링의 비유

멘토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다.

첫째, 멘토링은 혼돈된 세대를 위한 길라잡이이다.

둘째, 멘토링은 신앙의 그루터기이다.

셋째, 멘토링은 산을 오를 때 두 사람이 같은 줄을 동여맵으로써 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 5. 성경에 나타난 멘토링 사례들

#### 가. 성경에서 말하는 멘토링의 필요성

성경에서도 멘토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sup>196)</sup>

첫째,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새신자는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살전 2:11).

둘째,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앙 생활의 원리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빌 4:9).

셋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체계적인 멘토링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엡 4:13).

넷째,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의 개인적인 멘토링 양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엡 4:14).

다섯째, 육신에 속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고전 3:1; 히 5:14).

여섯째, 영적 자녀의 재생산을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답후 2:2).

일곱째, 기독교의 신앙이 본받는 신앙이기 때문이다(고전 11:1, 4:16; 빌 3:17).

여덟째, 예수님이 교회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막 11:17).

196) 박건, *멘토링 목회 전략* (서울: 나침반, 1999), 171-173.

#### 나. 구약에서의 멘토링

구약에서 멘토링의 사례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첫째,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멘토링(창 18:13-27)이 있다.

둘째, 모세와 여호수아의 멘토링(출 24:9-18, 33:7-11, 17:14, 수 1:8; 민 11:28-30; 출 32:15-35)이 있다.

셋째, 다윗과 요나단 (삼상 14:49-50, 삼상 20:31, 19:1-7, 23:16)의 멘토링이 있다.

넷째, 엘리야와 엘리사 (왕하 3:11)의 멘토링이 있다.

다섯째, 여호야다와 요아스(대하 22:11)의 멘토링 등이 있다.

#### 다. 신약에서의 멘토링

신약에서 나타나는 멘토링의 사례들이 있다.

첫째, 예수님과 12제자의 멘토링(막 3:13-15, 10:43-45)이 있다.

둘째, 엘리사벳과 마리아(눅 1:36, 41)의 멘토링이 있다.

셋째, 바나바와 바울(행 9:23-24, 11:25-26, 15:12)의 멘토링이 있다.

넷째, 바나바와 마가(행 12:25, 15:37-39)의 멘토링이 있다.

다섯째, 바울과 디모데(딤후 1:18, 6:20; 딤후 1:2; 고전 4:17, 16:10; 살전 3:2; 살후 1:1; 골 1:1; 몬 1:1)의 멘토링이 있다.

여섯째, 바울과 디도(고후 8:23; 갈 2:1-3; 고후 2:13; 딤후 1:4)의 멘토링이 있다.

일곱째,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행 18:1-3; 롬 16:3; 고전 16:19)의 멘토링이 있다.

여덟째, 바울과 오네시모(몬 1:10)의 멘토링이 있다.

아홉째, 바울과 소아시아 교회들의 멘토링 등이 있다.

#### 라. 멘토링의 실패 및 어려움

멘토링으로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첫째, 실패한 사무엘과 사울(삼상 9-15장)의 관계가 있다.

둘째, 어려움을 겪은 바울과 바나바, 마가(행 11:24, 15:37, 38-40)의 관계가 있다.



## 6. 멘토의 자격 및 역할

멘토에게 있어서 먼저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는 멘티에게 객관성을 유지, 정직, 본이 되는 모델, 헌신, 개방적이고 투명함, 교사, 잠재력 계발, 비전을 제시하며 멘토는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멘토의 일반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sup>197)</sup> 안내자(다른 사람을 이끌기), 본보기(다른 사람에게 귀감되기), 훈련자(한 가지 기술을 가르치기), 아버지의 모습(양육, 훈계), 교사(가르치기), 가정 교사(학습 돕기), 상담자(필요를 만족시키기), 지도자(길을 분명히 보여주기), 영적 인도자(신앙 성장을 인도하기) 등이 있다.

셋째, 교회에서의 멘토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sup>198)</sup> 교회에서는 '제자훈련'(Disciple Training)과정의 멘토링 관계와 '영적 인도자'(Spiritual Guide)로서의 멘토링 관계가 있다. 그리고 멘토의 역할의 유형으로서는 '코치'(Coach), '상담자'(Counselor), '교사'(Teacher), '후원자'(Sponsor)로서의 멘토 등이 있다.

넷째, 그 밖의 멘토의 역할을 찾아본다면, 멘토는 멘티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갈 4:19), 멘토는 유모와 같이 멘티를 양육하며(살전 2:7-11; 벧전 2:2), 멘토는 멘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위의 조직에 보고하고, 멘티의 앞날을 위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멘티를 그 사람에게 추천하여 멘티가 잘 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섯째, 멘토의 훈련 방법은 다음과 같다. 따뜻한 사랑으로 가르치기(고전 13:4-7),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기(마 4:4),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엡 6:10-12), 엄격한 훈련하기(마 28:20; 갈 6:7), 징계 후에도 함께하기(눅 9:53-56) 등이 있다.

## 7. 멘토링 하는 방법

### 가. 멘토링 만들기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야 한다.

첫째, 멘토링 선택 시 기준 및 목표는 한 사람 멘토가 한 사람 멘티를 선택한다.

197) Howard and William Hendricks, *멘토링으로 성장하는 법*, 400.

198) 박건, *멘토링 목회 전략*, 24-25.

둘째, 멘토링 일정 기간 동안 일대일 관계를 맺는다.

셋째, 멘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

넷째, 멘티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여 계발시킨다. 다섯째, 인격을 갖춘 차세대 리더로 세운다.

#### 나. 예수님의 멘토링 사역 방법<sup>199)</sup>

예수님의 멘토링 사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섬김이다.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다(마 20:28).

둘째, 선택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셨다(눅 6:13).

셋째, 연합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막 3:14).

넷째, 헌신이다. 예수님은 순종하기를 바라셨다(요 14:23).

다섯째, 본을 보임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의 본을 보이셨다(요 13:15).

여섯째, 위임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역에 참가시키셨다(눅 10:1).

일곱째, 감독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임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눅 10:17).

여덟째, 재생산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 영적으로 번성케 하셨다(요 15:16).

#### 8. 멘토링이 주는 유익

청(소)년들에게 주는 멘토링의 유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링은 학교 생활에서 유익하다(정보, 재능 발견, 진로 선택, 정체성 확립 등).

둘째, 멘토링은 인생에서 누리는 안전성이 있다(정서적 안정, 선택의 지혜, 전환점에서의 인도, 충고와 권면 등).

셋째, 멘토링은 청(소)년 변화의 시기에 가장 필요하다(성장통, 건전한 자아상 확립, 남성다움, 여성다움 등).

넷째, 멘토링은 징벌이 아닌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자라게 한다.<sup>200)</sup>

199) Billy Graham Center's Institution, *멘토와 함께하는 제자훈련 셀프스터디*, 65-71.

200) 징계와 징벌의 차이점은 첫째, 징계의 목적은 성숙이지만 징벌의 목적은 죄에 대한 처벌이다. 둘째, 징계의 초점은 앞으로의 바른 행실이지만 징벌의 초점은 과거의 비행에 맞춘다.

다섯째, 멘토링은 전인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관계를 통한 인격적인 만남).

여섯째, 멘토링은 갇힌 공간에서의 추상적인 꿈을 억제하고 현실 속에서 비전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일곱째, 멘토링은 서로 간에 일어날 수 있는 파멸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이성, 불륜관계, 성, 인터넷, 게임, 약물 중독, 집단 따돌림, 등).

여덟째, 멘토링은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자라게 한다(욥 39:13-16).

아홉째, 멘토링은 청(소)년 사역에서 영적인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딤후 2:2).

열 번째, 멘토링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들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깊은 부분까지 쉽게 나눌 수 있다. 특히 개인의 깊은 문제를 나누게 되면 치유와 문제 해결의 기회를 갖게 된다.

열한 번째, 멘토링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두 사람이 시간과 장소만 맞으면 어디에서든지 멘토링을 실시할 수 있다.

열두 번째, 대그룹이나 소그룹보다 일대일의 멘토링 관계에서 인격에 받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

## 9. 멘토링의 주의 사항

멘토링의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투가 생길 수 있다(사울과 다윗의 관계).

둘째, 헌신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

셋째, 멘토링을 한다고 해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마가로 인한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

넷째, 이성간에는 되도록 삼가며 조심해야 한다.

---

셋째, 멘토태도에서 징계는 사랑과 염려이지만 징벌은 미움, 분노, 실망이다. 넷째, 멘티의 감정에서 징계는 안정과 신뢰이지만 징벌은 두려움과 자책이다. 다섯째, 멘티의 태도에서 징계는 복종, 권위, 존중이지만 징벌은 권위에 대한 반항을 일으킨다. Hocking, *기독교 리더십의 7가지 원리*, 209.

다섯째, 멘토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므로 불신보다 이해가 필요하다.<sup>201)</sup>

여섯째, 멘토링은 한국의 유교 사회에서 학연, 지연, 혈연을 초월한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한다.

일곱째, 멘토는 자기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다(골 1:28; 골 11:1).

여덟째, 멘토링시 성령의 역사보다 사람의 재능을 더 의지하게 해서 안 된다(골 1:29).

아홉째, 지혜대신 지식, 인격대신 성취, 창의성 대신 이익으로 멘토링을 할 수 있으므로 모임마다 점검해야 한다.

열 번째, 서로 간에 소홀히 할 때 신뢰가 무너져 실패할 수 있다.

#### 제 4 절 멘토링 실습 가이드

멘토링의 교육 내용들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에게 세 명 이상의 멘토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한다.

##### 1. 멘토링의 시기와 자격

멘토링의 시기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을 가진 자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이다.

둘째, 학습, 세례교인 이상인 자이다.

셋째,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자이다(진로 선택, 배우자 등).

넷째, 충고와 권면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다.

##### 2. 멘토링 점검하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201) 멘토도 적당하지 않은 조언이나 진부한 관점 등을 제공할 지도 모른다. 멘토의 조언이 내게 맞지 않을때 억지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언제라도 다른 견해를 받아들여도 상관없다.

첫째, 자신의 삶에 도움을 받았던 멘토링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영향을 받았고, 없었다면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는가?

둘째, 자신을 영적으로 인도해 준 목회자와 같은 멘토가 있었는가?

셋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준 상담가와 같은 멘토가 있었는가?

넷째, 공부와 진학, 친구와의 관계를 지도해 준 교사와 같은 멘토가 있었는가?

다섯째, 자신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친구와 같은 멘토가 있었는가?

여섯째, 언제나 따뜻하게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모와 같은 멘토가 있었는가?

### 3. 멘토링시 멘토와 멘티 선정 조건

멘토링 만들기를 할 때 멘토와 멘티를 선정하는 것은 곧 멘토링의 승패를 좌우한다.

첫째, 멘토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기록하고 순결한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지속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 정직함을 유지하는 사람, 본을 보이는 사람,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다.

둘째, 멘티를 선정하는 기준에서는 믿을만한 사람, 쉽게 좋아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계속 도와주고 싶은 사람, 가족 같은 사람,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당신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사람, 자기 동기화가 되어 있는 사람,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사람, 홀로는 성공하기 힘든 사람이다.

셋째, 멘토링을 할 때의 관계(삼상 14:6-7)<sup>202)</sup>는 다음과 같다. 멘토는 믿음에 있어야 하고(삼상 14:6, 12), 멘티는 순종해야 하며(삼상 14:7; 룻 1:16-17), 멘토와 멘티는 팀웍이 있어야 한다(삼상 14:13).

### 4. 현장에서 멘토와 멘티 찾기

가. 멘토 3명 이상 찾기(멘토일 경우 멘티 3명을 찾으시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멘토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비전에 맞는 멘토, 즉 이미 비전을 성취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

202) 박건, *멘토링 목회 전략*, 229-233.

가?

둘째, 자신을 물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자신을 상담해줄 수 있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넷째,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다섯째, 독서를 통해 영향 받은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여섯째, 이 세상에는 현재 없지만 책이나 문화 생활을 통해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나. 멘토나 멘티 선정 후 해야 할 일은?(순서대로)

멘토를 찾은 다음에 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은 직접 부딪혀야 하는 것이다.

첫째, 편지 쓰거나 인터넷 이메일 보내기

둘째, 전화하기

셋째, 만남 가지기가 있다.

#### 5. 멘토링시 필요한 서류

멘토링 관계가 질서정연하게 장기간 신뢰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함께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첫째, 멘티와 멘토 동의서<sup>203)</sup>(부록 3에 첨부)

둘째, 멘토 최종 평가서<sup>204)</sup>(부록 4에 첨부)

#### 6. 멘토링시 함께 할 수 있는 공부

멘토링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공부는 유익하다.

첫째, 비전 학교 커리큘럼과정.

둘째, 멘토링 학교 커리큘럼과정.

셋째, 영성 학교 커리큘럼과정.

넷째, 리더십 학교 커리큘럼과정 등이 있다.

203) Billy Graham Center's Institution, *멘토와 함께하는 제자훈련 셀프스터디*, 379.

204) Billy Graham Center's Institution, *멘토와 함께하는 제자훈련 셀프스터디*, 381.

7. 멘토링의 20대 수칙<sup>205)</sup>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많은 차이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수칙을 통하여 서로 조심하는 것이 신뢰를 깨뜨리지 않을 수 있다.

첫째, 한 번에 한 사람의 파트너와 만나라: 대량 생산은 사람의 양육에 적용되지 않는다(일대일 양육).

둘째, 개인적인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라: 파트너와 신용을 잃을 수 있다(신뢰감).

셋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돕는 역할을 할 뿐임을 알라: 믿음을 주입하려하지 말고 도우라. 그래야 상처가 없다(리더십보다 헬퍼십).

넷째, 멘토 자신이 계속 훈련을 받으며 자라가라: 멘티는 멘토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더 격려를 받는다(멘토의 성장이 곧 멘티의 성장).

다섯째, 말보다 삶으로 본을 보이라: 멘티는 멘토의 삶을 통해 변화된다(모델링).

여섯째, 상대방에 대한 진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라: 멘토링의 기술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사랑으로 인도).

일곱째, 먼저 잘 들어주고 자세히 관찰하라: 경청할 때 멘티의 필요를 빨리 발견할 수 있다(경청하고 말하라).

여덟째, 시간과 약속을 잘 지켜라: 신뢰가 쌓인다(신뢰성).

아홉째, 언어 사용에 주의하고 예의를 지키라: 멘토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다(인격적인 만남).

열 번째,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멘토링 양육에 최우선 순위를 두라: 투자하는 만큼 열매를 맺는다(헌신의 중요성).

열한 번째, 멘토의 모든 활동은 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라: 권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한다(교회에 순종).

열두 번째, 함께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가 없으면 두 사람의 만남이 방향을 잃기 쉽다(목표지향성).

열세 번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체할지에 대해 정하라: 미리 알 때 기대감이 생기고 준비가 된다(동기 부여).

열네 번째, 정규적인 만남을 가지라: 두 사람의 목표성취에 크게 작용한다(평가

205) 박건, *멘토링 목회 전략*, 192-195.

및 성취감).

열다섯 번째, 시간을 정하고 시작하라: 지루함이 방지되며 계획 설정에 도움이 된다(집중).

열여섯 번째, 문제 해결에 있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사용하라: 말씀에 기초할 때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성경 중심).

열일곱 번째, 외적인 요소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비전 중심).

열여덟 번째,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 열정 있는 열심을 끌어낼 수 있다(태도와 자세).

열아홉 번째, 2, 3개월에 한 번씩 두 사람의 관계를 평가하라: 정기적인 평가는 방향 설정을 재정립해 준다(평가는 징벌보다 징계).

스무 번째, 멘토링 양육은 가능하면 동성끼리 하라: 서로에게 이성을 느끼는 사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이성 시 부모의 동의를 묻는다).

## 제 5 절 요약 및 평가

비전은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필요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청(소)년들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을 때 비전을 찾고 준비하는 과정을 가진다면 어떤 변화의 단계에서도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안정감과 자부심을 가져다 줄 것이다. 본 장은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교육 교재이다. 내용이 다소 많은 관계로 내용을 본 장에서 요약 정리하였으며 교육 교재는 부록1의 '영성이 뭐꼬!'를 참고하면 된다. 멘토링 역시 비전을 발견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에 가져야 할 교육이다. 멘토링은 비전을 가진 자가 비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도움을 받는 관계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멘토링은 일반 학교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에서도 가치가 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심각하게 결여되었던 교육 부분들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멘토링은 기독교 교육의 전인적인 성장과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을 추구하며 이론의 교육과 실천의 양육을 통합한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본 내용은



교육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정리하여 놓았으며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이론과 실습을 겸하여 구성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 제 7 장

## 교회학교 청(소)년을 위한 통전적 교육 교재 2

본 장은 6장의 비전과 멘토링을 이어서 청(소)년을 위한 통전적 교육 원리로서 영성과 리더십의 교육 교재를 만들하고자 한다. 6장의 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멘토링은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7장의 영성과 리더십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리더십은 타인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은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영성의 목적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는데 있으며 리더십은 자기중심을 넘어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장은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프로그램인 세 번째 영성과 네 번째 리더십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제 1 절 영성 교육, 영성으로 현실에 뿌리 내려라

영성이라는 용어는 세계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진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는 남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영성의 전반적인 내용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통한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제시될 것이다.

## 1. 들어가는 말

영성은 보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영성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라.

둘째, 영성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셋째, 자신이 영성훈련을 받고 있다면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

## 2. 영성의 필요성

영성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은 궁극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의지는 지력, 이성, 감정, 도덕성은 상대주의로 대치<sup>206)</sup>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현 사회가 이론과 실천, 죄와 해방, 책임과 자유의 균형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셋째,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실제적인 개인 성장의 훈련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관계에서 많은 상처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내면적 성숙이 없는 교회의 성장과 건축에만 지향하는 지도자들 때문이다.

여섯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곱째,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희미해짐으로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여덟째,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고, 변화와 연속성이 없으며, 단편적이고 단절된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이다.

아홉째, 청(소)년들의 왕따, 성매매, 소비지향성, 물질만능주의, 중독, 자살 등의 저속한 청(소)년 문화를 이길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열 번째, 영적 성장 없이 분주하기만 할 뿐 속이 새로워지는 성숙이 약하기 때문이다(고후 4:16).

206) Greene,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36.

### 3. 영성에 대한 오해와 이해

#### 가. 영성에 대한 오해

영성에 대한 오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적 차원의 오해에서 영성은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 어떠한 것도 포함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면서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신 후 ‘아주 좋았다’라고 평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물질 세계에 직접오시기까지 하셨다.<sup>207)</sup> 영성은 물질의 도피나 금욕, 금식보다 영성 발달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데서 발달한다.

둘째, 공동체 차원의 오해에서 영성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성이 자라는 곳은 공동체 안에서이다. 그리고 영성은 현실도피로 인한 사념과 욕망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개인을 넘어 타자를 위한 희생이셨다. 결론적으로 영성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삶의 현실과 역사 현실 및 사회적 차원도 포함되는 총체적인 영성인 것이다.<sup>208)</sup>

셋째, 현실적 차원의 오해에서 영성은 현실을 넘는 초월적인 것만이 영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삶을 잃어버린 영성은 공허하기 때문에 삶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영성은 신비적인 요소는 있지만 신비주의는 아니다. 그러므로 초월적인 은사나 기적, 능력에만 집착하다 보면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더러운 것을 피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원칙을 고수하는데 더 집착하는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sup>209)</sup> 결론적으로 온전한 영성은 내적 만족뿐만 아니라 삶의 구석까지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 나. 영성에 대한 이해

영성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다.

207) Bruce Demarest, *영혼을 생기나게 하는 영성: 풍성한 영적 만족과 균형 잡힌 영성을 위하여* (Satisfy Your Soul: Restoring the Heart of Christian Spirituality), 김석원 역 (서울: 설만한 물가, 2007), 184.

208) 김경재, *영성신학 서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51.

209) James I. Packer, *성령을 아는 지식*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홍종락 역 (서울: 홍성사, 2002), 44.

첫째, 영성이 만약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 ‘문화적인 것’ 등의 개념이 ‘영적인 것’이 될 수 없다면 인간은 결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은 ‘인간적인’ 범위 안에서 살고 있는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이란 개념은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그 자체가 모순을 지닌 개념이다.<sup>210)</sup>

둘째, 영성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지만 인간을 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지만 물질을 품으며, 문화적인 것이 아니지만 문화를 품고,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 속에서 발달하며, 초월적이고도 현실에서 뿌리내린 영성이 참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생명을 질식시키는 자기중심주의(self-centeredness)로 가득한 영성은 타자 중심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조화를 이룬 영성만이 참 영성이라 할 수 있다.

#### 4. 영성의 요소들

##### 가. 자아

영성의 요소인 자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에는 ‘자기중심성’과 ‘자아도취증(narcissism)’이 있다.

둘째, 자기중심주의란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들 속에 있는 삶의 습관이다.<sup>211)</sup>

셋째, 자아도취증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해로운 인격의 고장 중 하나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나르시시즘<sup>212)</sup>에 이르는 위험한 심리적 영적 위기의 과정이다.<sup>213)</sup>

210) 권택조, *영성발달* (서울: 예찬사, 2000), 107.

211) 권택조, *영성발달*, 96-97.

212) 위키백과사전에 의하면, 나르시시즘(narcissism) 또는 자기에(自己愛)는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중심성을 말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격적인 장애증상으로 본다. 유래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독일의 네케가 만든 용어이다. 위키백과사전, “나르시시즘,” n.p. [2013년 10월 인용] Online: [http://ko.wikipedia.org/wiki/...../\\*](http://ko.wikipedia.org/wiki/...../*).htm.

213) 권택조, *영성발달*, 101-105.

넷째, 성경에서 말하는 ‘옛 자아(old self)’ 혹은 ‘옛 사람(old man)’은 ‘자기중심적 자아(self-centered self)’이고, ‘새 자아(new self)’ 혹은 ‘새사람(new man)’은 ‘타자중심적 자아(other-center self)’이다.

다섯째, 영성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된 모습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으로,<sup>214)</sup> ‘자기포기(apatheia),’ ‘자기부정(self-negation),’<sup>215)</sup> 그리고 ‘자기 비움’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216)</sup> 반면에 새 자아는 계속 성장시켜야 할 자아이다.

여섯째, 예수님께서서는 옛 자아의 관점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부인하라(self-denial)고 하셨지만 새 자아의 관점에서는 ‘내가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자기를 미워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고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는 것이다.<sup>217)</sup>

#### 나. 그리스도다움(Christlikeness)

영성의 요소인 그리스도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다움이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영성이다.<sup>218)</sup>

둘째, 그리스도다움을 인격적인 면에서는 타자중심주의이고, 행위적인 면에서는 권능충만이다.<sup>219)</sup>

셋째, 그리스도다움이란 타자중심적인 인격, 즉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sup>220)</sup> 능력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성령

영성의 요소인 성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214) 강준민, *자아 발견과 영적 성숙* (서울: 두란노, 2000), 37.

215) 김양환, *한국기독교문화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2), 25.

216) 강준민, *뿌리 깊은 영성* (서울: 두란노, 1998), 17-19.

217) 권택조, *영성발달*, 87.

218) 권택조, *영성발달*, 116.

219) 권택조, *기독교 영성신학*, 267.

220) J. Oswald Sanders, *Spiritual Maturity* (Chicago, IL:Moody Press, 1944), 69-129.

(요 1:1-3)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으로 인도하시며 이끄시고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분은 성령이시다.

둘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학습자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다. 영적 무지 상태에서 깨어나 받은 은사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된다.<sup>221)</sup>

셋째,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영성교육은 지식 전달로 끝나고, 이런 기독교 교육은 사람들을 지적으로 교만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인격자이신 성령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전 영역에서 사역하시며 교육하시고 훈련하신다.

다섯째, 성령의 역사가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에서 하나님 말씀 이해(엡 4:13)로, 정서적 영역(affective domain)에서 기도(빌 4:6-7)로, 행위적 영역(psychomotor domain)에서 전도(evangelism)와 제자도(discipleship)와 지도력(ledership)을 통하여 영성 발달을 돕는다.<sup>222)</sup>

#### 라. 타자주의

영성의 요소인 타자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를 인지하고 남을 의식하는 가운데 자기의 것을 찾아가는 길이 곧 자기 속의 '또 하나의 자기'이며 자기 속에 있는 다른 자기, 즉 타인을 발견하는 사람, 그 '타인'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자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된 자기의 모습을 보는 인간이다.<sup>223)</sup>

둘째, 타자주의 영성은 하나님 중심주의(God-centeredness)의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아래로 혹은 옆으로 다른 사람 중심(people-centeredness)을 중심으로 화목케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자기 중심주의(self-centeredness)적인 삶과는 반대적 차원이다.<sup>224)</sup>

221) Roy B. Zuck, *Spiritual Power in Your Teaching* (Chicago: Moody Press, 1972), 33-41.

222) 권택조, *기독교 영성신학*, 139.

223) 박아청, *내가 나답게* (경북: 분도, 1995), 148.

224) 권택조, *기독교 영성신학*, 88.

마. 하나님 말씀, 성경

영성의 요소인 하나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드러내 주는 계시의 책이다.<sup>225)</sup>

둘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딤후 3:16-17)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온전케 하는 것이다.

셋째,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영성이 자랄 수 없다.

넷째, 성경 말씀을 교재로 하고 성령을 거룩한 교사로 믿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접목되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교육과 위로부터의 성령의 역사가 접목되는 교육이 영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 5. 영성의 인물들

가. 구약의 인물들

구약의 대표적인 영성 인물들을 하나님과, 타인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아브라함(복을 위한 복의 통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준 것과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6차 회담,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 역할이 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창 17:5)으로 이름을 개명한 사건이 있다.

둘째, 야곱(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과정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벧엘에서 환상을 본 것과, 압박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이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라반과 화해, 에서와의 화해, 애굽 왕 바로를 축복, 12 아들들을 축복한 사건들이 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한 사건이 있다(창 35:10).

셋째, 요셉(밤의 꿈이 낮의 현실이 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꿈(벧단, 해

225) Elwood A. Sanner, *Exploring Christian Educatio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78), 35.



와 달과 열한별이 절함)을 꾸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출생 시 라헬의 수치를 씻음, 형들과 화해, 애굽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양식을 나누어 준 사건들이 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샘 곁의 무성한 가지였음(창 49:22)을 인식하였다.

넷째, 모세(사막의 영성)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시떨기나무아래서 사명 받았고, 언약궤와 성막을 건축하였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출 4:10)에서 말씀 선포자가 되었다(신 6:5).

다섯째, 요나(도망가는 요나와 추격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영성)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명(니느웨의 심판 경고)을 받았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니느웨 민족을 싫어했지만 이방인을 위해서는 또 살신성인(폭풍의 원인은 자신이므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함)의 정신도 보여 주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선민의식으로 물든 유대적 개인주의 및 민족주의자이었다.

#### 나. 신약의 인물들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강한 만남일수록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신약의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영성의 중심, 기준점)는 가시적 영성으로, 3중적 사역(선포, 가르침, 치유), 즉 왕(치유; 행위적 영역), 선지자(전파; 인지적 영역), 제사장(가르침; 정서적 영역)의 사역을 하셨다. 불가시적 영성은 성령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마 14:13; 막 1:35; 눅 6:12, 22:39)을 가지셨다. 그리고 팔복은 성도의 자화상이며 제자도의 교과서(통전적, 전인적, 순차적, 점층적, 서로 대칭적)이며 묵상의 거울이었다.

둘째, 제자들의 영성(예수님을 따라간 만큼 따라오게 하는 영성)은 성령 강림 전에서 자기중심적, 자기에 및 자기도취적이었지만 성령 강림 후에는 사도행전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셋째, 베드로의 영성(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제자로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증인의 삶을 살았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기적을 일으키고(행 3:16), 다비다 제자 살리며(행 9:40),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한 교회의 순결성 유지(행 5:1-10), 환상을 통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만남과 설교(행 10)를 하였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마 4:19)와 양을 치는 목자(요 21:15-17)로 인식하였다.

넷째, 바울의 영성(눈이 멀어야 보이고, 병이 들어야 강하며, 묶여야 큰일을 감당하는 패러독스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행 9장) 마케도냐인 환상(행 16장)을 보았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수많은 동역자, 고난의 흔적(스티그마), 교회 설립과 설교(행 18-20장) 등이 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바울 자신의 회심사건고백(행 9, 22, 26장)이 있다.

## 6. 영성의 특징

영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성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관계성 안에서 이해해야 되기에 인간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자신, 이웃, 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sup>226)</sup>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창 1:26-27)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가 된다.<sup>227)</sup> 그러므로 영성은 어떤 원리의 적용 문제가 아니라 깊고도 내면적인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성장과 성숙의 문제로 본다.<sup>228)</sup> 그리고 관계의 필수 요소는 대화(기도)이다. 인간관계에서 대화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커뮤니티(Community)에서 나왔다.

둘째, 전인적이다. 참된 영성은 신자의 전인적인 삶과 체험으로 영과 물질과 육신을 총체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다.<sup>229)</sup> 영성은 인격 속에 묻혀서 계발되어야 하는 전인적(holistic)개념이다.<sup>230)</sup>

셋째, 사랑이다. 영성의 핵심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랑이다.

넷째,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영성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With Christ), 그

226) 김의식, “기독교 영성의 바른 이해,” *신앙계*, 1986년 4월호, 46.

227) 김경재,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 (서울: 기독교서회, 1994), 94.

228) 최봉기, “영성과 목회: 자연적 교회성장론의 비판과 보완관계 속에서,” *복음과 실천*, 2000년 가을호, 378-379.

229) 권택조, *기독교 영성신학*, 40.

230) 권택조, *기독교 영성신학*, 37-38.

리스도 안에(In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For Christ) 사는 삶이라고 본다.<sup>231)</sup> 그러므로 영성의 목적은 그리스도다움을 지향한다.

다섯째,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과정이다. 영성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성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과정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나가는 과정이다.<sup>232)</sup> 특히 고난을 통하여 깨어짐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간다.

여섯째, 균형과 조화이다.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시야에서 받아들일지나에 달려 있는데 영성이 발달된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자아와 외면적 자아가 조화를 이루는 중에 발달한다. 신학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및 언행일치, 지행일치, 신행일치로 이어지는 균형과 조화가 영성을 발달시킨다.

일곱째, 기도로 소통한다. 기도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감성을 건전하게 발전시킨다(빌 4:6-7). 성령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도는 영성 발달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정서적 치유(emotional healing), 친밀감(intimacy), 감사하는 마음(gratitude), 소망(hope)을 가지게 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활기 있게 하는 힘을 가지게 하고 기도자 인격에서 영성이 발달하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지만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진다. 이것이 영적 건강도이다.

## 7. 영성 가꾸기

영성 관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전인적인 존재이므로 영과 마음,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살전 5:23).

둘째, 인간의 구성 요소 중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Law of Minimum)'<sup>233)</sup>에서

231) 황화자, "기독교 영성의 이론과 실제," 기독교 교육, 1987년 2월호, 16.

232) 오성춘, *광야의 식탁* (서울: 홍성사, 1985), 3.

보듯이 하나의 결합은 곧 전체의 결합으로 이어진다(요삼 1:2).

셋째,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영성 훈련은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넷째, 세상에는 전쟁이 있듯이 신앙에도 영적 전쟁이 있으므로 영성 훈련은 영적 전쟁을 치루기 위한 훈련이다(갈 6:11).

다섯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인간의 길과 영의 길(롬 8:5)의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갈 5:17-18; 요 16:13).

## 제 2 절 영성 실습 가이드

영성 실습은 영성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영성지수를 측정한다. 측정한 결과에 따라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약점들을 인지시켜 지, 정, 의의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지도하여 청(소)년의 영성 발달을 돕는데 목적을 둔다.

### 1. 영성지수 측정

영성지수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성지수(IQ), 감성지수(EQ)가 있듯이 영성에도 영성지수(Spirituality Quotient; SQ)가 있는데 영성지수는 영성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성경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면, 한 자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RG : Relationship with God) 및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RP : Relationship with people)를 얼마나 성경적 기준에서 잘 맺고 사는가가 영성 측정의 요소이다.<sup>233)</sup>

둘째, 영성지수 측정하는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233) 리비히(Justus Liebig)는 1840년 ‘필수 영양소 중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최소량의 법칙을 내놓았다. 16개의 필수 원소들은 식물체 내에서의 필요량이 각기 다르지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원소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따라서 어느 한 원소만 부족해도 식물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게 된다. 위키백과사전, “최소량의 법칙,” n.p. [2013년 10월 12일 인용] Online: [http://ko.wikipedia.org/wiki/...../\\*.htm](http://ko.wikipedia.org/wiki/...../*.htm).

234) 권택조, *영성발달*, 4.

		문항수	계산	점수 합	영성지수(SQ)  $RG \times RP(RP1+RP2) \div 100$
		RG	20	1-5번 중 선택번호 더하기	
RP	RP1	10		100	
	RP2	10			

<표 8> 영성지수 측정

셋째, 영성지수 측정 설문지<sup>235)</sup>는 (부록 5)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라.

넷째, 영성 훈련 전 1차 설문지를 통한 영성지수 측정, 영성 훈련 후 2차 설문지를 통한 영성지수 측정한 후 1차와 2차 편차를 통하여 영성 발달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한다.

## 2. 영성 발달 수준 평가

사람은 누구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때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관계단절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당신의 영성을 수치로 측정한다면 어느 단계의 수준인가? 지성(인지적 요소)은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단계, 감정(정서적 요소)은 에릭슨(Erikson)의 정서발달단계, 양심(도덕적 요소)은 콜버그(Laurence Kohlberg)의 도덕발달, 믿음(신앙적 요소)은 제임스 파울러(James Fowler)의 신앙발달로 측정하면 된다. 참고로 2장에서 모두 제시하였으며 행위(의지적 요소)적 요소는 없는 관계로 심슨(Elizabeth Simpson)의 행위영역 학습이론은 여기에 제시한다.

단계	내 용	특 징
1	감지(perception)	알고 느끼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단서 찾기
2	준비(set)	행동을 위한 구체적 적극적 단계

235) 설문지는 이종용의 영성발달측정의 타당도를, 내용타당도와 공인 타당도를 검사하여 매우 양호한 영성지수와 영성발달 측정이 공인된 문항을 참고하였다. 이전까지 측정도구의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나 한국 실정에 맞게 문항이 개발되어 영성 교육의 성숙정도를 측정하여 성숙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척도로 인정되었다. 이종용, “영성지수의 타당도 검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교 대학원, 2004), 59.

3	정해진 행동(guided response)	역할모델을 따라 행동하는 단계
4	습관화(mechanism)	시행착오 없이 일을 수행하는 능력의 단계
5	복합적 행동(complex response)	높은 단계의 결과를 위한 수행 단계, 전문성
6	조화(adaptation)	창의적 요소를 지닌 적응, 상황에 적응하는 변화력
7	창작(origination)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의 단계

〈표 9〉 심슨의 행위영역 학습이론

둘째,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다. 발달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체크하여 개인맞춤식 교육을 지, 정, 의에 맞게 하면 된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주제는 교육 교재로 다시 만들어서 교육해야 한다.

인간영혼의 3요소	인지적 요소(지성)	정서적 요소(감정)	행위적 요소(의지)
영성 교육 프로그램 주제 <sup>236)</sup>	성경통독 성경공부 말씀암송 교리공부 가르치기 발표하기 신앙위인 독서 기독교세계관	찬양 감사 고백 기도 중보 사랑 기쁨 감사 소망 고독 악기배우기	인내 금식 금욕 침묵 노동 청빈 태도 반응 사역 표현 배려 섬김 환대 접대 나눔 순종 관용 절제 전도 훈련 리더십
	큐티(말씀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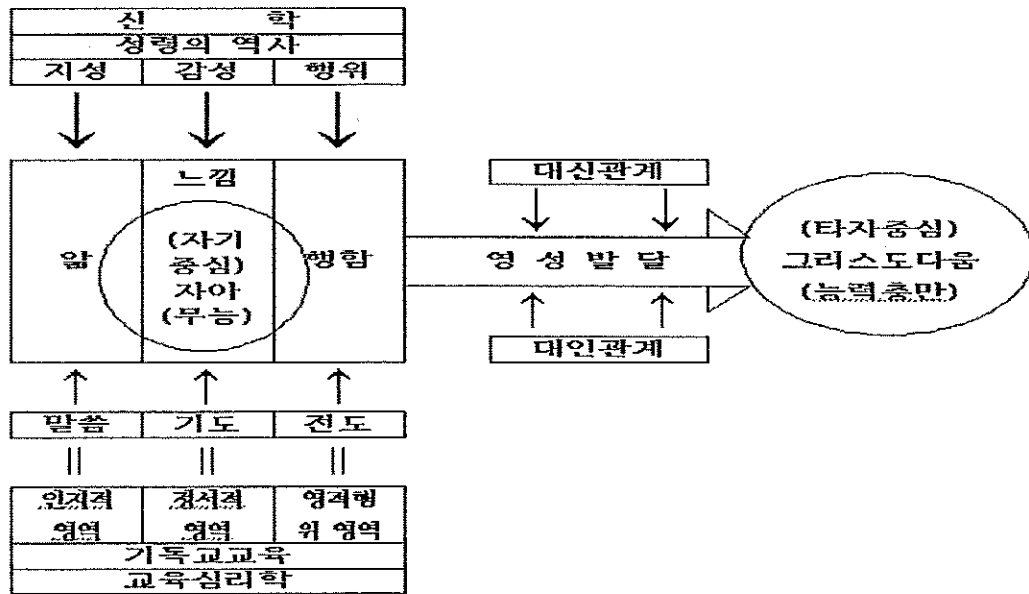
〈표 10〉 영성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 3. 영성발달 과정

영성발달 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영성발달은 자기중심에서 타자중심으로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자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하나님을 앞(신학)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성령은 인격체로서 지성, 감정, 의지 행위를 가지고 계신다. 인간의 자아를 깨닫게 하고(지), 느끼게 하며(정), 행하게(의) 한다. 마

236) 영성훈련 프로그램의 주제는 주제마다 하나씩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으로 한다.

찬가지로 아래로서의 기독교 교육으로도 인간의 인지적 영역에서 믿음으로, 정서적 영역에서 기도로, 행위영역에서 전도로 인간의 자아를 깨닫게 하고(지), 느끼게 하며 (정), 행하게(의)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아는 변화의 과정을 겪기 시작하는데 위로 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래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의 과정을 가진다. 자아의 변화는 철저히 타자주의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다움을 목적으로 하며 이 모든 변화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교육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영성발달의 통전적 모델<sup>237)</sup>

제 3 절 리더십 교육,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

현시대의 가장 인기 있는 단어는 리더십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남용되고 오해되는 단어 또한 리더십일 것이다. 리더십이 시대적 요청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리더가 부족한 점에서 리더십은 불편한 단어이다. 리더가 태어나느냐, 만들어지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

237) 권택조, 영성발달, 227.

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리더십은 비전, 멘토링, 영성 교육을 통하여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여 줄 것이다. 점진적 과정의 상호 연관성을 통해서 리더십이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 볼 것이다.

### 1. 들어가는 말

리더십을 교육하기 위한 마음 문 열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신은 리더인가, 누가 당신을 따라오고 있는가?

둘째, 당신은 팔로워인가? 당신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셋째, 리더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2. 리더십의 필요성

리더십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몇 가지가 해당되는가?

첫째, 21세기는 다양성의 사회로서 다양한 목소리와 욕구가 존재하여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기체와 조직체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보다 더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리더를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절망의 상황에 있는 자, 중대한 결정에 머뭇거리고 있는 자,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 사회의 문화적 이유 때문이다. 이기문화군으로 네댓문화, 사재기 문화가 있고, 허위문화군으로 약속문화, 가라문화, 형식문화, 날림문화, 관료문화가 있으며, 허세문화군으로 뒷소리 문화, 학벌문화, 줄부문화, 한탕문화가 있고, 조급문화군으로 빨리빨리 문화, 인스턴트 문화, 불도저 문화가 있으며, 트릿문화군으로 마무리 문화, 대충대충 문화가 있고, 폭력문화군으로 철조망 문화, 무례 문화, 수직 문화 등이 있다.<sup>238)</sup>

다섯째, 교회와 지도자의 윤리성 부재 때문이다. 윤리성의 회복 없이는 리더십이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섯째,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앨빈 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

238) 이의용, *교회 문화 혁명*, 25-26.



은 기술 혁명,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가족 관계의 붕괴, 경제 질서의 재편, 정치 철학과 이념의 마비, 가치 체계와 내용의 파괴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로서 통신수단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데 서비스 중심의 사회가 되는 순기능도 있으나 보이지 않는 손에 권력집중현상이 나타나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239)</sup>

여덟째, 한국교회의 교권주의, 개교회주의로 총체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과 혼란 속에서 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아홉째, 현 시점에서 기독교는 가톨릭, 불교보다도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열 번째, 교회의 현상 때문이다. 대형 교회를 상징하는 권위주의, 교인 쟁탈전의 물량주의,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신앙이기주의, 교회 재산 축적의 물량주의, 샤머니즘의 기복신앙, 구호와 현수막이 난무하는 열광주의, 최고급을 선호하는 세속주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인본주의, 족벌 체제를 형성하는 교회 세습, 교인의 수로 성공을 판단하는 숫자놀음<sup>240)</sup> 등으로 교회의 자정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 3. 리더십 유형의 오해와 이해

#### 가. 권위적인 리더십

권위적인 리더십에 대한 오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점으로는 권력자에게 있는 권위가 부족할 때 권위주의자가 되고, 권력 때문에 리더는 독재형이 되기 쉬우며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 전 통과 인습, 인맥에 얽매어 있는 태도가 권위주의이며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며 사람을 자신의 힘에 복종시키려고 한다. 복종은 있지만 순종은 없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는 '머리'이고 교인들은 '손'에 불과하다는 전제적 리더십은 교인들의 자발성과 창조력을 억압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사장하고, 목회자들은 자신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권위주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에서 교인 길들이기를 리더십으로 착각하여 교회를 목회자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교인들을 섬기기보다 통치하려

239)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97-100.

240) 라종일, 차종환, 김호, *교회의 갈등 그리고 화해* (대구: 계명대학교, 2002), 52-53, 56.

는 리더십이다.

둘째, 권위주의의 장점으로서는 진정한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에게는 사명자로서의 권위가 부여된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양은 목자가 뒤에서 길을 인도하지만, 염소는 앞에서 줄을 메어 끌고 간다. 리더십은 뒤에서 길을 제시하지만 헤드십은 앞에서 억지로 끌고 간다.<sup>241)</sup>

#### 나. 독재형 리더십(Autocratic Type Leadership)

독재형 리더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점으로는 집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단 활동의 목표나 방침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구성원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명령과 지시만 강조하며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권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며 리더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여 책임감의 결여와 리더 양성의 결핍으로 이어진다.

둘째, 장점으로는 리더의 판단이 정확하고 팔로워들이 그 결정을 신뢰하여 받아들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힘을 모으면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다. 민주형 리더십(Democratic Type Leadership)

민주형 리더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점으로는 구성원의 능력과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통솔권의 상당부분을 구성원에게 위임하고,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일에 대한 책임감과 능동적으로 헌신하게 만들며 수직, 수평적으로 정보교환이 자유롭게 됨으로 그 단체만의 소속감과 팀워크(teamwork)가 잘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주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둘째, 단점으로는 리더에게 힘과 권한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권위행사를 삼가야 하며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일의 진행에 있어서 팔로워들이 관심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되

241) 이성희, *디지털 목회 리더십* (서울: 규장문화사, 2000), 122.

지 못하면 명분 없는 싸움이 지속되어 에너지만 소모하게 되고, 의사결정과 의견조정에 너무 오랜 시간을 소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리더와 구성원들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리더가 아무리 탁월하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하더라도 구성원들이 단합하여 리더의 아이디어를 묵살할 수 있다.

#### 라. 무간섭형 리더십, 방임주의형 리더십(Laissez-faire Type Leadership)

무간섭형 리더십, 방임주의형 리더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점으로서는 리더는 물러나 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sup>242)</sup> 그러므로 무관심이 아니라 무간섭형 리더십이 되는 것이다. 무간섭형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리더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리더는 팔로워들의 실수에 대해서 너그러우며 실수를 통해서 배우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확신하지만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한다. 그리고 리더와 팔로워간의 신뢰 속에서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서로 자기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독재형 리더십에서 장점으로 내세우는 신속한 결정과 고도의 능률을 얻을 수 있으며 민주형 리더십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둘째, 단점으로는 팔로워들의 연구, 기획, 입안, 작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이 결여되었거나 리더십의 부재시에 자발적인 협동 체제가 원활하지 못하면 그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있고, 리더는 팔로워의 인사배치에 있어 힘이 든다.

#### 마. 리더십의 이해

관점으로 본 리더십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의 관점에서 리더라는 단어의 의미를 권위와 책임에 두느냐, 아니면 관계에 두느냐에 따라 일부 몇 사람만 리더가 될 수 있고, 전체가 될 수도 있다.<sup>243)</sup>

둘째, 의존성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 즉 리더가 되었다.

셋째, 리더십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리더십(leadership)은 앞에

242) 박형렬, *탁월한 목회리더십* (서울: 자유, 1993), 70.

243) Wright, *관계를 통한 리더십*, 20.

서 이끌어가는 힘이고, 팔로워십(followership)은 뒤에서 밀고 따라가는 힘이며, 디사이플십(discipleship)은 자기를 규율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힘이고, 스투워드십(stewardship)은 깨끗하고 바르게 맡은 일을 처리하는 힘이며, 릴레이션십(relationship)은 전후, 좌우, 상하 간에 협력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힘이고, 콰드레잇십(comradeship)은 동지로서 뜻을 같이하는 힘이며, 프렌드십(friendship)은 우정이고, 파트너십(partnership)은 동반자로서 같이 가는 힘이며, 컴패니온십(companionship)은 교제하고 교류하는 힘이고, 펠로우십(fellowership)은 동료와 동류로서 처지를 같이하는 힘이며, 헬퍼십(helpership)은 리더를 사랑으로 섬기는 힘이다.

#### 4. 성경적 리더십의 유형

##### 가. 구약의 느헤미야 리더십

성경적인 리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인격을 드러내며, 그 인격을 다른 모든 관계로 흘러 들어가게 한다. 인격을 가진 리더십은 가치관이 포함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도의 리더십(느 2:1, 5)이 있다.

둘째, 비전의 리더십이다. 암울한 시기에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장애물을 넘어뜨리는 길을 보여주는 모험적인 리더십 스타일이다. 비전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다.<sup>244)</sup>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보았고 그 비전을 백성들과 공유하여 동기부여를 제공하였다.

셋째, 대가를 치르는 리더십이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 등의 조롱, 암살 음모, 공개서한의 중상모략 등의 도전이 있었다(느 2:19). 긴장 관계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믿었다(느 6:11, 2:20).

넷째, 팀 리더십이다. 느헤미야는 일을 분담하여 위임하였고, 3장의 ‘그 다음은’의 말의 뜻은 스스로 질서를 지켜가며 그 다음 사람들과 훌륭한 협력과 조화의 관계를

244) John E. Haggai, *미래는 진정한 리더를 요구한다 (Lead On!: Leadership that Endures in a Changing World)*, 임하나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7), 44.

맺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팀 사역일 때에는 격려하는 리더의 칭찬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고(느 4:6), 느헤미야도 자신도 똑같이 일하였다(느 4:21). 추종자들은 언제나 리더의 역량까지만 움직인다.

다섯째, 희생의 리더십이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권력자의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의 황폐한 성벽 재건에 희생하였다. 12년간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고 백성들을 토색하지도 않았다(느 5:14-16). 말과 행동의 일치의 리더십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다.

여섯째, 개혁의 리더십이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12년 다스리는 동안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 영적인 개혁과 삶의 개혁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아닥사스다왕을 다시 섬기는 본래의 위치로 돌아간 사이에 예루살렘은 세속화가 되어 느헤미야는 다시 징계하며 갱신하였다.

#### 나.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명의 청지기 리더십이다. 주기도문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마 6:10)이고, 리더십은 소명에서 사명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리더십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소명과 아래로서의 청지기 삶이 만나는 곳이 리더십이 발휘되는 곳이다.

둘째, 종의 섬김의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섬기는 마음의 내부에서 시작하여 섬기기 위해 외부로 움직이고,<sup>245)</sup> 자기를 낮추는 자(마 18:4), 즉 자기를 부인하는 자(막 8:34)는 겸손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으며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친히 보여주셨다(마 11:29; 빌 2:7, 막 10:45). 섬김의 리더십은 아무 조건이 없을 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본을 보이는 리더십 중에 섬김만큼 좋은 것은 없다(히 13:7; 뱀전 5:13; 뱀전 5:17-18, 3:4-5).

셋째, 목자의 리더십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다(요 10:11).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요 10:3, 14, 27), 항상 양들과 함께 있으며(눅 22:27), 잃어버

245) Ken Blanchard, Bill Hybels, and Phil Hodges, *이야기로 푸는 예수님의 리더십 (Leadership by the Book)*, 함택 역 (서울: 두란노, 1999), 161.

린 양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마 18:12-14), 양을 보호하며(요 10:11-18), 양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가진다(요 10:11, 15, 17-18). 그리고 목자의 리더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요 21:15-17, 25).

넷째, 제자 삼는 리더십이다. 리더는 태어나기 보다는 훈련으로 세워진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실제적인 임무를 부여하시며 사역을 평가하셨다. 또한 책망도 하시고 기도하시며 위탁하시고 떠나셨다. 예수님은 제자 삼는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마 28:19).

다섯째, 상처 입은 치유자 리더십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감정들, 희로애락(喜怒哀樂), 부끄러움, 외로움, 배신, 수치 등을 겪으셨다(히 2:18). 혈루증의 여인을 치유(눅 8:43-48)하는 공황에서 비롯되었다(막 1:41, 마 9:36, 4:15-16).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마 8:16-17; 사 53)이며 예수님은 개혁자로 치유하며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눅 4:18-19).

#### 다. 그 밖의 인물들의 리더십

느헤미야와 예수님의 리더십 외에도 아브라함의 리더십, 요셉의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 여호수아의 리더십, 다윗의 리더십, 다니엘과 세 친구의 리더십, 세례 요한의 리더십, 베드로의 리더십, 바나바의 리더십, 바울의 리더십, 사도 요한의 리더십 등을 연구한다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 5. 리더십의 법칙들<sup>246)</sup>

리더십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준의 법칙에서, 리더십은 리더의 장애, 실수, 단점을 극복할 때 수준이 올라간다.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과 실수도 비슷했지만 차이를 만든 것은 곧 그들의 리더십 수준 때문이었다. 따라오라고 하지만 따라오는 자가 없으면 리더가 아니다.

둘째, 타이밍의 법칙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리더

246) 리더십에도 법칙이 있다. 그 법칙에 따라 영향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John Maxwell,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 (The 21 Irrefutable Laws of Leadership)*, 채천석 역 (서울: 도서출판 청우, 1999), 1-316.

십을 발휘해야 하는 그 시점도 중요하다. 에스더에게 기회는 곧 그녀가 타이밍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적절한 기회에 최대의 분별력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결정을 하였다.

셋째, 과정의 법칙에서,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이며 배움의 시간에는 시련이 따른다. 요셉은 열일곱에서부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인내로 배운 사람이다.

넷째, 목표의 법칙에서, 리더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목적을 발견한다. 느헤미야는 120년 동안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는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다섯째, 신뢰의 법칙에서, 리더의 성품과 인격이 신뢰를 만들어 낸다. 신뢰는 리더십의 기초이다. 리더십은 인격에서 헌신이 흘러나오는 신뢰의 관계이다.<sup>247)</sup> 초대교회의 돈과 재산을 유무상통(有無相通)할 수 있었던 것은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신뢰가 뒷받침 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섯째, 매력의 법칙에서, 리더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보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낀다. 엘리야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지만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은 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으로 보았다.

일곱째, 친밀의 법칙에서, 리더는 따를 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감동시킨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백성들을 향한 열린 마음이 아니라 폐쇄적인 마음가짐이었다.

여덟째, 핵심의 법칙에서, 리더의 자질은 주변의 핵심인물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윗의 위대함은 팀웍이다.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켜 주었다.

아홉째, 권한 위임의 법칙에서 리더는 떼 지어 있지 않으므로 리더를 찾아내었다면 권한을 위임하여 양육해야 한다. 바나바는 핍박자요, 원수였던 사울에게 안디옥교회에서 권한을 위임하였다.

열 번째, 희생의 법칙에서, 리더는 앞으로 나아가는 만큼 포기하고 희생한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느헤미야, 바울, 모세는 모두 자신의 삶을 희생하였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247) Wright, *관계를 통한 리더십*, 176.

열한 번째, 수용의 법칙에서, 사람들은 리더를 받아들인 후에 리더의 비전을 받아들인다. 기드온에게는 집안의 열 명의 종들과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요아스를 통해 영향력을 넓혀가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였다.

열두 번째, 승리의 법칙에서, 위기는 최상의 리더를 만들기도 하고 최악의 리더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위기 앞에 지혜롭고 강해야 한다. 요시아는 8세에 왕이 되었고, 므낫세, 암몬으로 이어지는 가문이었지만 성전에서부터의 개혁으로 승리하였다.

열세 번째, 우선순위의 법칙에서, 무엇이 가장 커다란 부담을 주는가? 리더는 여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솔로몬의 기도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함으로 담으로 하나님의 장수와 물질의 복까지 받았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고전 10:31)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고전 9:19-22)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성도의 성숙을 추구(골 1:28-29)하는 것이다.

열네 번째, 성장의 법칙에서, 작은 성장을 이루려면 팔로워들을 이끌고, 큰 성장을 이루려면 리더들을 이끌어야 한다. 바울은 온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상위 20퍼센트의 리더들을 키웠다.

## 6. 리더의 성경적 자격 조건

리더의 성경적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망 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자(딤후 3:2-7).

둘째, 자제력이 있는 자(고전 6:19-20).

셋째, 근신하는 자이고(딤후 3:12) 겸손하며(잠 16:19) 온전한 자(마 5:48).

넷째, 나그네를 대접 잘 하는 자(딤후 3:2), 이웃을 돕고 돌보는 자(딤후 3:8, 14; 딤후 3:5).

다섯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딤후 3:8).

여섯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딤후 6:6-10).

일곱째, 경건의 생활을 하며(딤후 3:1-5) 본을 보이는 자(벧후 2:9).

여덟째, 자신의 상처를 치유 받은 건강한 자이며 도덕적 순결을 추구하는 자(딤후



전 3:2, 12; 딘 1:6).

아홉째, 부지런하며(롬 12:8) 충성하는 자(고전 4:1-2).

열 번째, 말을 절제하며(전 5:2) 말보다 행동하는 자.

열한 번째, 시험을 이기는 자(약 1:2-4).

열두 번째,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하는 자(잠 27:2).

열세 번째,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족할 줄 아는 자(고전 10:31; 딘전 6:6-11).

열네 번째, 복수보다 온유와 유순함을 가진 자(갈 6:1)이다.

## 7. 리더십의 주의사항

리더(십)의 주의사항과 그 대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는 갈등과 비판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다. 갈등은 공동체에 필수적이며 다양성을 받아들임으로 생기는 것이다. 다양성은 일에 대한 방법과 가치관, 관점, 의견, 기대, 희망, 헌신 등의 차이를 말한다. 갈등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제에 직면할 때 이해관계에서 맞지 않을 때 서로간에 생기는 것이다. 리더는 가장 앞에 선 사람이므로 비판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비판에 무너지지 말고 비판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 리더에게 있어서 비판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일이 더 커진다.

둘째, 리더는 징계를 해야 할 때 인간적인 감정으로 할 수 있으므로 교회의 징계 과정으로 하는 것이 좋다. 성경적 원리에 따른다(마 18:15-20). 1단계는 일대일 대면, 2단계는 두 세 사람의 증인과의 대면, 3단계는 교회에 말함, 4단계는 그를 쫓아낸다. 리더십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성도들을 대면하여 그들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일이다.

셋째, 리더는 통치하려는 습성이 있다. 리더는 자신이 전문가라는 권위주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리더십은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배울 필요가 있다. 명확한 직무 역할을 분담해야 하며 타인의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넷째, 리더는 늘 바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바쁜 사람은 일중독자이다. 리더는 개인적 가치, 목표, 성향을 따라 우선순위를 분류

하여 시간에 쫓기지 말아야 한다. 현대는 정보사회이며 숫자시대이기 때문에 소문에 의지하지 말고 정보에 민감해야 한다.

다섯째, 리더의 자리가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이며 지위이다(막 10:37; 잠 6:17). 권세에 대한 욕망(막 10:42-45)이다.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고(고전 13:2, 8:1),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찬사를 받으려는 욕망(고전 1:29-31; 요 3:30)이 있다.

여섯째, 리더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유명해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잠 27:2; 고전 1:29).

일곱째, 리더는 타인보다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요일 2:16)이다. 그리고 돈에 대한 사랑(빌 4:11-13, 19)이 있을 수 있다.

여덟째, 리더는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다.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하고, 친구를 찾아야 한다.

아홉째, 리더는 해야 할 일이 많음으로 과중한 업무량에 지친다. 목록을 만들어라. 그리고 필요한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 의무감으로만 하면 기쁨이 사라진다(롬 14:17). 성공중후군으로 조금만 더하는 일이 일중독자가 되게 만든다(사 26:3).

열 번째, 리더는 불안요소들이 많다. 지위에 대한 불안, 타인의 생각에 대한 과민 반응,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불안 등이 있다.

## 8. 리더십과 비전, 멘토링, 영성의 관계성

### 가. 비전과 리더십의 관계

비전과 리더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가 어떻게 공동체에 비전을 제시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리더에게 비전은 최고의 덕목이며 생명이다.

셋째, 리더에게 리더십은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비전이 없는 리더십은 존재가치가 없다.

다섯째, 리더는 비저너리(Visionary)로서 어디로 가야할지를 보게 한다.

여섯째, 사역에 대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현재보다 나은 미래

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다.<sup>248)</sup>

일곱째, 리더의 명확한 비전 제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

여덟째, 변화의 시기에 소망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경영의 한 과정이 계획(planing)이다.<sup>249)</sup>

#### 나. 멘토링과 리더십의 관계

멘토링과 리더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성공을 위해 추종자를 자기 성공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리더가 될 수 없다. 추종자를 성공시키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성공한다.

둘째, 리더십에서 리더와 추종자 사이에는 승-패 관계는 있을 수 없고 승-승 관계만이 존재한다.

셋째, 리더십에는 일 중심과 사람 중심이 있는데 성경은 일보다 사람에 관심을 두며 변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

넷째, 멘토링은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이 그 자신과 자원들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는 관계의 경험이다.<sup>250)</sup>

다섯째, 따르는 자를 더 성숙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리더와 따르는 자 둘 다 공동으로 인정한 상호적인 배움의 관계다.<sup>251)</sup>

여섯째, 멘토링은 영향력을 가진 리더십의 형태다. 영향을 주고, 받으며, 가르치고 배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 다. 영성과 리더십의 관계

영성과 리더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는 하나님의 마음인 궁핍의 마음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 리더는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팔로우가 될 때 리더의 자격을 가진다.

248) George Barna, *비전있는 지도자 비전있는 사역 (The Power of Vision)*, 광춘희 역 (서울: 조이선교회, 1993), 28-30.

249) Wright, *관계를 통한 리더십*, 122.

250) Wright, *관계를 통한 리더십*, 82.

251) Wright, *관계를 통한 리더십*, 83.

셋째, 리더에게 영성은 안정감을 주고 성격을 강인하게 해주고 삶과 리더십의 중심축이 된다.

넷째, 리더가 변하는 만큼 추종자와 사회와 삶의 현상이 변화된다.

#### 라.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관계성에 대한 결론

리더는 미래를 명확히 바라보는 비전이 있어야 하고,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사람을 키우는 멘토링이 필요하며, 사람들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나 재능으로 일할 수 있는 강점을 계발하는 영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창조적인 리더십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혹 하나님 없이 성공한 리더십도 인간의 재능에 따라 인맥이나 노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영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성공한 리더십은 성공은 있으나 열매가 없지만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마 12:33-35). 그러므로 리더십은 비전, 멘토링, 영성의 교육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상호 연관성 가운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볼 수 있다.

### 제 4 절 리더십 실습 가이드

리더십 교육 내용을 토대로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타자중심으로 바꾸는 영성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닫고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측면을 다룰 것이다. 자기중심성에서 타자중심으로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났는가가 곧 리더십으로 나타날 것이다.

#### 1. 리더십 평가하기

가. 당신은 지도자인가?<sup>252)</sup>

리더십의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1: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가?(딤후 3:1)

252) Hocking, *기독교 리더십의 7가지 원리*, 352-358.

둘째, 검사2: 개인적인 소원이 있는가?(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기는 것으로 영향력, 강한 지도력, 책임에 대한 기쁨이 있다)

셋째, 검사3: 성숙한가?(상처를 받고 좌절하는가, 아니면 오뎅이처럼 일어서는가?)

넷째, 검사4: 경험이 있는가?(작은 일에 충성한 경험이 있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다섯째, 검사5: 다른 사람들의 확증이 있는가?(타인의 평가를 통해 그 사람의 리더로서의 됴됨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여섯째, 검사6: 성과가 있는가?(열매와 반응이 중요하다. 리더십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하는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일곱째, 검사7: 지식이 있는가?(당신은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두 배워야 한다. 리더십에 관한 지식은 당신의 리더십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여덟째,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리더십 검사를 한다.

검 사	내 용	증 거		
		없다	약하다	강하다
1	하나님의 부르심			
2	소원			
3	성숙			
4	경험			
5	타인의 확증			
6	성과			
7	지식			

〈표 11〉 리더십 평가서

나. 우선순위<sup>253)</sup>로 리더십 평가하기

우선순위로 리더십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기대하는 영향은?

둘째,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기대하는 영향은?

셋째,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기대하는 영향은?

253) 우선순위를 위한 성경구절: 빌 2:21; 마 6:33; 엡 5:9-10.

- 넷째, 직장(아르바이트)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기대하는 영향은?  
 다섯째, 학교, 가정, 교회, 직장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  
 여섯째, 급한 것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일곱째, 우선순위에 따라 주간, 월간, 연간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 다. 그 외의 평가법

E의 평가법(E's Evaluation)과 계획에 따른 평가법이 있다.

첫째, E의 평가법(E's Evaluation)<sup>254</sup>에서는 얼마나 효과적이었나?(effective), 얼마나 능률적이었나?(efficient), 얼마나 재미있었나?(enjoyable), 얼마나 흥미로웠나?(exciting), 얼마나 훌륭했나?(excellent),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가?(essential), 얼마나 일체감을 주었나?(embodying), 얼마나 분명했나?(enlightening), 얼마나 경제적이었나?(economical)로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계획에 따른 평가법<sup>255</sup>에서는 전략적인 계획: 우리는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가?, 운영상의 계획: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운영상의 계획: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가?, 운영상의 계획: 언제 그것을 할 것인가?, 운영상의 계획: 누가 할 것인가?, 검토와 평가: 우리는 잘 하고 있는가?(팀원들이 당신의 리더십 아래서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검토와 평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는가이다.

#### 2. 리더의 리더십(성품) 계발하기

리더의 리더십 계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결성(죄의 문제)을 계발해야 한다. 다윗(시 51:2-13)과 청년(시 119:9-11)에 대한 말씀이 있다.

둘째, 섬김(오만의 문제)을 계발해야 한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거꾸로' 접근방법의 리더십이다(눅 22:24-27). 발을 씻기셨다(요 13:14-15). 그러므로 일에 대한 짜증이나 압박감이 아니라 꾸준한 일관성을 배워야 한다.

셋째, 인내(책임완수의 문제)심을 계발해야 한다(갈 5:22-23; 잠 15:16-18). 신약 성경에 휘포모넴(hypomonem)이라는 헬라어가 31번 나오며 그중에 성품과 연결된다

254) 이성희, *디지털 목회 리더십*, 209-210.

255) Wright, *관계를 통한 리더십*, 151-154.

(롬 5; 약 1). 성숙한 리더가 필요하다(약 1:3-4; 히 12:1; 엡 4:12).

넷째, 신뢰(성실함의 문제)성을 개발해야 한다(잠 11:13). 리더는 언행일치, 지행일치, 신행일치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리더의 의사결정이나 사유재산으로 진실성, 투명성, 청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약속(신용의 문제)을 지켜야 한다. 약속준수(약 5:12), 특히 시간엄수는 리더의 인격을 표현하며 투자하는 시간의 양에 따라 리더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키며 관리해야 한다.

여섯째, 용서(공훈의 문제)하는 마음을 개발해야 한다. 용서 없는 리더십은 없다(엡 4:32). 리더도 실수할 수 있고, 자신도 과거의 실패를 용서해야 한다. 성경에서 진실한 사랑은 많은 죄를 덮는다(벧전 4:8)고 말한다. 용서하지 않는 지도자는 독재자이며 일꾼에게는 지도자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꾼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일곱째, 관심(사랑의 문제)을 개발해야 한다. 관심은 타인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며(엡 4:2), 관심은 온유하다(고전 13:4). 관심은 가혹함이나 매정함이 아니라 상처를 주기보다 도와주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여덟째, 기도(하나님과의 친밀성 문제)의 습관을 개발해야 한다. 다윗(시 34:4-6)이나 바울(딤후 2:1-3)은 기도한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아홉째,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신실성의 문제)을 개발해야 한다. 다윗의 유언(왕상 2:1-4)이나 바울의 흔적(스티그마)을 보면 얼마만큼 열정이 있었는지 보여준다.

열 번째, 부모역할(가정에 대한 충실성의 문제)을 개발해야 한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딤후 3:4-5), 특히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장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며 무관심이 아니라 개인적 관심을 가져야 리더십이 나온다.

### 3. 리더십의 기술<sup>256)</sup>

리더십 기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말하기(telling) : 리더가 자신의 결정 사항을 추종자들에게 설명하는 형태의 리더십이다.

256) 슈미트(Warren H. Schmidt)의 '지도력 유연성'중에서, 이성희, *디지털 목회 리더십*, 100.

둘째, 설득하기(persuading) : 리더가 먼저 결정한다. 그러나 지시하기 전에 추종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의논하기(consulting) : 리더가 추종자들에게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내어놓고 그들의 생각과 해결 방안에 대해 듣는다. 그리고 그의 잠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함께 의논한 후에 최종 결단을 내린다.

넷째, 함께하기(joining) : 이 경우 리더는 조직의 다른 멤버와 참여하여 문제의 최종 결정을 조직에 맡긴다.

다섯째, 위임하기(delegating) : 리더는 문제점을 규정하고 문제를 조직에 위임하여 그들의 결정을 수용하고 동의한다.

대부분 지도자들은 말하기 유형의 리더십으로 대화한다. 현시대의 이슈는 '소통'이다. 말로 소통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현시대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가 소통의 부재로 적대감만 쌓이고 있다. 리더십을 전하는 기술이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만 리더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5 절 요약 및 평가

영성과 리더십 교육 교재에서 영성은 안으로서의 준비를 위한 내용이라면 리더십은 밖으로서의 준비를 위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영성은 영성지수를 측정하여 청(소)년의 영성을 개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데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청(소)년의 지, 정, 의의 수준을 평가하여 개인맞춤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장점이 있다. 청(소)년의 영성을 생기 있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교육 교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리더십도 청(소)년시기에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비전, 멘토링, 영성 과정 중에서 리더십은 나타난다. 청(소)년기를 수동적인 태도로 받기만 하는 시기보다는 비전을 찾고, 멘토를 만나며, 영성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모든 과정이 능동적이며 적극적이기 때문에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리더십은 각 원리의 과정의 마지막이며 또한 과정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통전적 교육 원리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6장과 7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소 범위가 포괄적이고 내용이 많은 관계로 교육



교재로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편집하여 교육 교재로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이론과 실습 부분의 교육 교재를 만들 경우 부록 1, 2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렇다고해서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본 내용들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소 설명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약정리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쉬운 내용들로 교육 교재를 편집하여 만든다면 청(소)년들을 지도하기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 제 8 장

## 결 론

지금까지 교회학교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 교재를 만들기 위해 통전적 교육 원리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을 다루었다. 본 장에서는 이제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정리하며 부족한 부분들은 제언으로 더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1 절 논문의 요약

본 논문은 교회학교 청(소)년 부서의 침체 및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회복을 위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서론에서는 청(소)년 사역의 현장이 침체 현상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 교육의 부재로 보았다. 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단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가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통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는데 그 방향성을 두었다.

제 2 장에서는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 발달 영역들을 다루었다. 이것은 청(소)년 시기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서 방황하는 주변인이 아니라 시기와 때에 맞게 발달해야 하는 도약의 시기라는 것을 밝히면서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재개발의 필요성을 다루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에 인간발달 이론 특히, 청(소)년 발달 부분은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필요성을 다루었다.

제 3 장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청(소)년 발달이론과 통전적 원리를 접목하여 각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전적인 기독교 교육의 원리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기에 맞

는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인 세인고등학교의 교과 과정 안에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원리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위한 기독교 교육의 시각으로 이론을 정립하였다.

제 4 장에서는 바울의 목회서신서를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성장의 원리들을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으로 찾아보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을 신학적인 용어들과 연관시켜 정의하여 보았으며 선교사역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된 동역자들과의 만남은 멘토링으로 보았다. 그리고 유희과 고난에서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렇게 비전, 멘토링, 영성으로 준비된 만큼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리더십으로 보았다. 바울의 목회는 비전에서 멘토링으로, 멘토링에서 영성으로, 영성에서 리더십으로 나타났으며,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바울 자신과 같은 인물들을 온전케 성장시키는 사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 5 장에서는 청(소)년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육체와 정신, 영혼 및 지, 정, 의의 인격을 성장하도록 돕는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자는 '방과후학교'를 모델로 하여 기독교 교육의 차원의 새로운 이름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라고 하였다. 3장의 이론적인 설계를 기초로 하여 본 장에서는 교육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교재를 설계 하였다. 5장은 앞장의 모든 이론과 6, 7장의 다리역할을 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제 6 장에서는 비전과 멘토링의 교육 교재에 관한 부분이다. 비전을 준비하고 찾으며 가지기 위하여 이론과 실습을 겸한 훈련 내용을 제시하였다. 비전은 청(소)년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비전의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기 위한 멘토링 교육으로도 이론과 실습을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비전과 멘토링 교육 교재 내용은 중, 고등부 교육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제 7 장에서는 비전과 멘토링에 이어서 영성과 리더십에 관한 교육 교재 내용이다. 영성은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 과정의 훈련으로 실습 가이드에 영성지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부분을 훈련받도록 제시하였다. 영성이 내적으로서의 준비

라면 리더십은 열매를 맺어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외적인 선한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론을 제시하고 실습 가이드로 리더십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특별히 리더십은 각 원리들 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영성과 리더십의 교재는 특별히 대학부와 청년부에 필수적인 교육 요소들이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청(소)년을 위한 통전적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교회학교 청(소)년을 위한 통전적 교회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는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양육 체계로서 교육 교재를 통해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교육교재는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교회학교의 침체된 분위기 및 성장하향곡선을 성장상승곡선으로 바꿀 수 있다. 특히 비전을 중등부, 멘토링을 고등부, 영성을 대학부, 리더십을 청년부에 중점적으로 교육할 때 연속성 있고 순차적인 교육으로 인하여 점진적인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교회나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남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신학적인 검증을 통해 바른 정의를 제시하여 남용과 오류로부터 성경적인 정의를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교재가 연속성이 없는 단편적인 부분들을 취급하여 어떻게 변화되어가는 과정과 방법들이 구체적이지 않다.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통전적 교육 교재가 갖는 의의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각 시기마다 발달해야 할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 발달의 전인적 부분에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은 전인적인 성장에 적용되는 실제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통전적 교육 교재는 교회학교 분반공부, 기독교 계열의 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커리큘럼, 청(소)년 집회나 세미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관계적인 측면에서 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 멘토링은 성도들과의 관계, 영성은 자신과의 관계, 리더십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의 균형과 조화를 가진다. 그러므로 한 쪽으로 치우치는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에 적합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 제 3 절 연구의 적용 가능성 및 제언

본 연구의 현장 적용성과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2장에서 청(소)년 발달의 시기에 남녀의 발달반응이나 심리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동성 소그룹으로 진행한다면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재 개발도 남녀를 구분하여 개발한다면 더 효과적인 교육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분량상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함으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둘째, 각 원리에 따른 구성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6장과 7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여 교육 교재를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고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 교재를 다시 만들고자 할 때 부록 1, 2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셋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년부의 직장이동과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장년부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재 개발의 필요성도 가진다. 그리고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이해하고 가르치는 데에도 본 교재는 효과적이라고 본다. 장년의 수명이 늘어난 만큼 장년들도 통전적 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가지며 장년들을 위한 교재 개발을 후속연구로 돌린다.

넷째, 본 논문은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시기와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이런 순차적인 과정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sup>257)</sup>

다섯째, 교육교재는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이 교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 세례이상의 기독교 교리를

257)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청(소)년기의 교육목회의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참고하라.

공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활용 범위 역시 교회학교나 기독교형 대안학교 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본 프로그램과 교재를 가지고 청(소)년에게 적용하였을 때 어떤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는지 후속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필자는 청(소)년 사역을 20여년 하면서 비전, 멘토링, 영성, 리더십으로 교육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논문을 교재로 사용하여 통계를 통한 검증을 필요성을 가진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교'의 교재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통한 결과를 후속 연구에서 밝힐 수 있다고 본다.

부록 1 - 교육 교재용

제 1 과 비전교육 - 비전이 뭐꼬!

1. 마음문을 활짝 열어요.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백서 및 한국청소년 상담원 상담통계」에서 조사한 전국 청소년 상담내용 및 대상현황이다.

통계표명 : 연도별 전국 청소년 상담내용 현황 [ 단위 : 건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173,518	1,260,939	1,569,339	2,502,734	3,248,395	3,401,768	3,435,101	3,759,405
가정	62,975	76,987	99,753	153,949	221,870	259,158	244,347	262,479
일탈/ 비행	35,560	74,107	177,479	373,298	622,267	425,959	438,492	485,852
학업/ 진로	415,684	345,333	375,555	571,520	579,993	681,393	770,181	885,205
성	63,439	46,099	72,155	100,555	144,422	93,674	101,843	89,495
대인 관계	273,985	302,905	250,465	337,182	487,131	529,874	552,594	612,295
성격	170,897	201,690	179,649	193,784	231,796	266,379	253,482	268,427
정신 건강	90,217	99,724	99,373	82,684	149,760	202,276	241,282	269,756
생활 습관 태도	12,805	25,458	44,187	19,919	29,789	71,013	31,462	32,608
활동	-	-	34,374	189,494	229,704	141,798	85,124	83,597
컴퓨터/인터넷	19,591	42,922	80,112	170,470	231,895	381,085	405,266	499,146
단순 정보 제공	88,365	105,714	215,637	309,878	319,768	349,159	311,038	276,545

- 가. 여기에 나오는 상담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가?
- 나. 당신에게 고민이 있다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 다. 고민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가정 불화, 우울증, 학교 폭력 등)
- 라. 친구 중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겠는가?

2. 이제 비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 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비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나. 성경에서 비전과 유사한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다. 당신은 비전이 있는가?

### 3. 비전은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 비전은 청(소)년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확립한다.

- (1) 아브라함과 사라(창 17:5, 15).
- (2) 이스라엘(창 35:10).

나. 조급한 청(소)년들에게 비전은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을 가지도록 한다.

- (1)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다. 빨리 가고 있느냐보다 어디고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잠 29:18; 고전 9:26).
- (2) 비전은 내비게이션이다(행 20:24; 딤후 4:7).

다. 비전은 상처받았던 청(소)년의 상처를 정검다리로 만들어서 건너게 한다.

- (1) 요셉의 상처와 구원(창 45:5).
- (2) 다윗의 아들람 동굴에서의 꿈(시 57:8).
- (3)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행 2:26; 히 9:28).

라. 비전은 청(소)년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준다.

- (1)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롬 12:2).
- (2) 세상의 육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긴다(요일 2:16).

### 4. 비전의 오해 안에 비전의 답이 있어요.

가. 비전은 장래희망이나 직업이 아니라 왜 그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 (1) 바울의 직업은 무엇인가?(행 18:2-3)
- (2) 바울이 직업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고후 11:9-12)

나. 비전은 사람들이 말하는 꿈, 즉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다.

- (1)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렘 17:9; 막 7:21-23).
- (2) 비전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것이다(삼상 1:15).

다. 비전은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원동력이다.

- (1) 느헤미야의 1차 목표는 무엇인가?(느 2:5)
- (2) 느헤미야의 그 다음 2차 목표는 무엇인가?(느 8-10)
- (3) 느헤미야의 그 다음 3차 목표는 무엇인가?(느 11-13)

라. 비전은 소명이나 사명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1) 소명은 비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행 9:1-19, 22: 3-21, 26:2-18; 창 12:1-3).

(2) 비전과 사명의 관계는 무엇인가?(행 20:24; 빌 3:14).

## 5.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가. 비전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성경적 용어는 무엇인가?

(1) 묵시(잠 29:18).

(2) 계시(갈 2:2).

(3) 하나님의 뜻(행 4:28; 막 3:35; 고후 7:10; 롬 8:27; 뱀전 4:19)

(4) 하나님의 약속(롬 4:20-21)

나. 거짓 비전도 있을 수 있는가?

(1) 허탄하고 어리석은 묵시(겔 13:7; 애2:14).

(2) 자기마음에서 나온 묵시(렘 23:16).

다. 비전의 대상은 누구인가? (계 1:1).

## 6. 비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가. 비전은 인생의 설계도이다. 그러므로 자재나 노동자보다 설계도가 먼저이다. 만약 설계도대로 제대로 건축되지 않았다면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다시 허물어야 한다.

나. 텔레비전을 밤 낮 없이 본다고 해서 비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 교회나 직장에서 구호처럼 부르짖는 비전 성취보다 나의 비전을 찾는 것이 우선시된다.

라. 비전은 내 인생의 길이며 삶의 표지이다. 그래서 나는 늘 반성하고 평가하며 살 수 있다.

마. 비전은 나를 넘어 타인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게 한다.

바. 비전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을 걷는 것이다. 현실성 없는 꿈은 허황된 목표 의식이 되고, 자기만 바라보는 꿈은 야망이나 욕망으로 변질된다.

사. 비전은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고 내일을 낳는 설렘과 기대감을 준다.

- 아. 비전은 밤에 꾸는 개꿈이 아니라 낮에 눈뜨고 꾸는 꿈이다.
- 자. 비전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 차. 비전은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갈 곳을 보여주는 교통 지도와 같다.

#### 7. 함께 토론하며 깨달음을 받아요.

- 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전의 오해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과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 나. 공부하기 전의 비전과 공부 후의 비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나누어 보자.

#### 8. 함께 비전을 나누어요.

- 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비전을 나누어 보자.
- 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 다. 비전선언문과 사명진술서 작성에 어떤 태도로 임하겠는지 나누어보자.

#### 9. 찬양하고 기도해요.

##### 가. 비전에 관련된 찬양

- (1) 찬송가 :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58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490장) 등.
- (2) 복음송가 :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비전 등.

##### 나. 기도

- (1) 기도제목 나누기
- (2) 개인기도 및 합심기도
- (3) 일상의 삶속에서 중보기도하기

##### 다. 찬양과 대표 기도로 마무리

## 부록 2

비전실습 가이드<sup>258)</sup> - 비전은 인생의 설계도

## 1. 마음문을 활짝 열어요.

박영신의 '나는 네덜란드의 개성상인'이라는 책 내용을 보면, 네덜란드가 16세기부터 스위스와 함께 유럽에서 세계무역을 제패한 가장 부유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된 것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훈련과 실습 덕분이라고 말한다.

네덜란드는 매년 4월말이면 여왕 탄신일을 기념하는 연휴가 시작된다. 이 연휴에는 모든 상점이 철수하고 거리는 어린이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된다. 어린이들은 장난감, 인형, 자전거 등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한다. 상품을 잘 팔기 위해 적정 가격을 매기고 1센트 1길더의 이익을 더 보려고 최선을 다해 흥정을 한다. 물건을 사주는 어른들도 상대를 어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건의 흠을 잡고 값을 깎는다. 미래의 국제 상인을 키우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단 한 푼의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한다. 중학생이 되면 남녀 불문하고 거의 신문 배달을 시작한다. 미리 지도를 보고 가장 효율적 배달 코스를 연구하고 매일 새벽 5~6시에 일어나 자전거에 신문을 가득 싣고 뽕뽕 얼어붙은 거리를 달린다. 그렇게 뽕뽕대며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학교로 달려간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산 방법과 재고 관리, 매장의 상품 관리 등 경제 활동의 기초를 배운다.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고 매장에서 물품을 정돈하거나 고기를 썰는 등 힘든 일을 하지만 노동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임금이지만 열심히 일한다. 대학생이 되면 아르바이트의 활동 범위가 국제적으로 넓어진다. 학점 따기가 어려워 학기 중에는 거의 일을 할 수 없지만 방학이 되면 독일, 프랑스, 영국의 호텔 등에 어학연수를 겸해 아르바이트를 나간다. 그 곳에서 생생한 외국어를 배워 졸업할 무렵에는 최소한 3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한다. 외국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258) 부록에서 제시한 비전 실습가이드는 한 과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량이므로 전체의 과정으로 사용해야 효과적이다. 실습차원에서 한 과만 다룬다면 비전선언문과 사명진술서를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며 투숙객들에게서 각 나라의 문화와 예절도 함께 배우게 된다. 이런 나라가 오늘날 세계 유수의 금융 유통업체를 키워낸 것은 당연하다.

가. 이 글에서 네덜란드 교육의 강조점이 무엇인가?

나. 한국의 교육과 네덜란드의 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 당신은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는가?

라. 당신이 교육자라면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 2. 비전 선언문과 사명진술서를 작성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행동하게 한다.

나.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삶의 내용으로 살게 만든다.

다. 범사에 열정을 갖게 한다.

라. 개인보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마.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주관적 평가보다 옳고 그름의 객관적 평가를 지향하게 한다.

바. 일이 많고 복잡하여도 항상 객관적이며 일치된 방향성을 제공한다.

사. 비전선언문과 사명진술서를 글로 옮겼을 때 사고를 명확하게 해 주며 모든 일에 집중도가 높아지게 된다.

## 3. 비전을 가지려는 자, 준비가 되었는가?

가.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골 2:6)을 가진 자

나. 교회에서 학습, 세례교인 이상인 자

다. 정체성 확립의 시기인 청(소)년 이상인 자

라. 성경일독의 경험이 있는 자

마. 날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자

바. 비전을 갈급하거나 사모하는 자

#### 4. 비전을 찾으려는 자, 삶의 흔적들을 살펴보자.

가. 공동체 속에서의 나의 위치와 소속감은 어떠한가?

- (1) 가정에서의 관계(부모, 형제)
- (2) 학교에서의 관계(교사, 친구)
- (3) 교회에서의 관계(목회자, 교사, 친구, 불신자)
- (4) 직장(아르바이트)에서의 관계(직장 상사, 동료 직원, 손님)

나. 여가활동은 나의 삶의 활력소

- (1) 어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가?
- (2) 어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가?
- (3)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 (4)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가?
- (5) 어떤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가?
- (6)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가?
- (7) 여행했던 곳 중에 인상 깊었던 국내, 국외는 어디인가?
- (8)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5. 비전을 찾고자 하는 자,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

가. 인간관계 속에서 듣는 나의 장, 단점은 무엇인가?

- (1) 자신이 보는 장, 단점은?
- (2) 타인이 말하는 나의 장, 단점은?

나. 살아온 나의 발자취, 이력서 작성하기

다. 나의 기질을 알면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1) 혈액형은 무엇인가?
- (2) 사상체질 테스트(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 (3) MBTI 테스트

라. 뿌리 찾기

- (1) 나의 가정은 역기능 가정인가, 건강한 가정인가?
- (2) 나와 부모, 형제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3) 가계도 그리기

마. 사람은 누군가를 닮게 되어 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비전의 그림자이다.

- (1) 가장 좋아하는 책 3권은 무엇인가?
- (2) 가장 존경하는 인물 3명은 누구인가?
- (3) 가장 좋아하는 영화 3편은 무엇인가?

## 6.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을 알고, 자신을 아는 만큼 비전을 찾는다.

가. 나의 신앙생활에서의 인식 및 위치

- (1)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 (2) 사명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가?
- (3)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이 생기는가?
- (4) 어떤 기도를 할 때 갈급함이 생기며 눈물이 나는가?

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딤후 1:7)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도구이다.

- (1) 은사를 발견하고 적용하여 열매 맺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2) 은사테스트 측정 시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 (3) 은사를 몸으로서의 비유(롬 12:4-8)했을 때 어느 지체에 속하는가?
- (4)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부서는?
- (5) 타인보다 뛰어나서 받은 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상을 받았는가?

다. 신앙 간증문 쓰기

- (1) 믿기 전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 (2)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 (3) 나의 신앙고백은 무엇인가?
- (4) 믿고 난 후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들은 무엇인가?

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 (1) 구약에서는 어떤 구절인가?
- (2) 신약에서는 어떤 구절인가?

- 라. 내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구절은 무엇인가?
- 마. 내가 존경하는 성경인물은 누구인가?
- 바. 가장 좋아하는 교회의 이름은 무엇인가, 왜 좋은가?
- 사.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목회자는 누구인가, 왜 좋은가?
- 아. 내가 가장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왜 그런가?
- 자. 내가 가장 선교하고 싶은 나라는 어디인가? 왜 그런가?

#### 7. 비전과 사명과 은사와의 관계를 알면 비전과 사명을 쓰기 쉬워요.

- (1) 비전이 산의 정상이라면 사명은 산을 올라가는 코스 A, B, C가 될 수 있다.
- (2) 비전은 사명에 선행한다. 하지만 사명 없는 비전은 공허하고 불완전하며 비전 없는 사명은 맹목적이다.
- (3) 비전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추상적이다. 그러나 사명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독자적이다.
- (4) 비전은 철학적인 반면에 사명은 전략적이다.
- (5) 비전은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명은 아래로부터의 행해야 할 목표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도록 위로부터 또 한 가지 은사를 주신다. 여러 은사는 사명을 도와 비전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다.
- (6) 비전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비전이 보인다.

#### 8. 비전 선언문은 이렇게 쓰세요.

가. 한 문장을 넘어서는 안 된다.

나. 비전선언문은 '나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어야 한다.

다. 비전 선언문의 특징

- (1) 사명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 (2)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 (3) 추상적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과정과 결과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라. 비전의 구체적인 사례

- (1) 제자들의 비전은 '사람 낚는 어부'(마 4:19)이다.
- (2) 베드로의 비전은 '양을 먹이고 치는 목양'(요 21:15-17)이다.
- (3) 사도바울의 비전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행 9:15)이다.

마.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한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야망이나 욕망일 수 있다.

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비전은 \_\_\_\_\_ 이다.

## 9. 사명 진술서는 이렇게 쓰세요.

가. 현재형으로 쓰기

나. 사명 진술서의 특징

- (1) 일에 재미를 얻고 기쁨을 찾아야 한다.
- (2)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를 세워야 한다. 단기목표는 하루, 일주일, 한 달, 일 년으로 3개월마다 평가하고, 장기목표는 10년의 장기목표에는 5년간의 목표들을 계획한다. 5년의 평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3) 마감시간을 정하라.
- (4) 현실적인 목표로 세우라.
- (5) 간결하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한 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다. 사명의 구체적인 사례

- (1) 제자들의 비전이 '사람 낚는 어부'였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해야 할 일이 사명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일, 사명을 제시하셨다. 지상명령(마 28:18-20)이 곧 사명인 것이다.
- (2)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이 비전이라면 사명은 1, 2, 3차 선교여행 중 교회 개척과 로마에서의 옥중 생활 가운데 복음전파가 사명이었다.

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사명이 된다. 그러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듯이 사명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일이어야 한다.

- (1) 학교에서 학생의 위치에서 하고 있는 일은?



(2) 가정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하고 있는 일은?

(3)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고 있는 일은?

(4)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하고 있는 일은?

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선언문은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 10. 함께 비전 선언문 및 사명진술서 발표해 봅시다.

가. 작성 후 느낌은 어떠한가?

나. 각 시간당 30분미만으로 전체 앞에서 발표하게 한다.

다. 발표에 통과한 청(소)년들에게는 액자로 만들기 과제를 준다.

라. 비전 액자를 집 거실에 걸어두어 하루에 한번이상 읽게 한다.

마. 혹시 과제물이나 발표가 미흡할 때는 다시 비전 강의를 듣도록 인도한다.

#### 11. 찬양하고 기도해요.

가. 비전에 관련된 찬양

(1) 찬송가 :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58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490장) 등.

(2) 복음송가 :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비전 등.

나. 기도

(1) 기도제목 나누기

(2) 개인기도 및 합심기도

(3) 일상의 삶속에서 중보기도하기

다. 찬양과 대표기도로 마무리

## 부록 3

## 멘토링 동의서

멘티인 나는 \_\_\_\_\_(이름을 정확히 쓸 것)를 나의 멘토로 정하였다. 우리는 추천한 계획표에 따라 \_\_\_\_\_(매주, 격주, 매월, 격월)마다 만남을 갖기로 동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야 할 과제는 등록된 날로부터 \_\_\_\_\_년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멘티 이름 \_\_\_\_\_ 멘티 서명 \_\_\_\_\_  
 주 소 \_\_\_\_\_ 등록 일 \_\_\_\_\_  
 (예정) 완료일 \_\_\_\_\_

나 멘토 \_\_\_\_\_는 멘티 \_\_\_\_\_(이름을 정확히 쓸 것)를 나의 멘티로 정하였다. 멘티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_\_\_\_\_(매주, 격주, 매월, 격월)마다 만남을 갖기로 동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야 할 과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_\_\_\_\_년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멘토 최종 평가서'를 매달 교회에 제출하겠다.

멘토 성명: \_\_\_\_\_ 멘토 서명 \_\_\_\_\_  
 직 책: \_\_\_\_\_ 교회 혹은 단체: \_\_\_\_\_  
 학생과의 관계: \_\_\_\_\_(교사, 목사, 친구 기타 \_\_\_\_\_)

## 부록 4

## 멘토 최종 평가 및 수료증

멘티 성명 \_\_\_\_\_(정확하게 쓸 것)

상기의 멘티는 \_\_\_\_\_(교회이름)교회의 멘토링 과정에서 성실하고 착실하게 공부하는 가운데 해야 할 사항들을 끝마치고 나와 함께 만나서 정기적으로 진행 사항을 점검 받았기에 나는 멘티의 학습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성적평가 : ①우수하다 ②보통이다 ③인정할 만하다 ④ 노력이 필요하다

내용으로 :

목표 지향성 :

도전적인 태도와 책임성 :

주도적인 태도(적극성) :

배우고자 하는 열망 :

개인적인 책임감 :

멘티가 이 과정으로부터 가장 유익을 받은 점은 다음과 같다:

멘티가 좀 더 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멘티가 다음 분야에서 특히 우수하다:

이로써 이 학생에게 수료증을 줄 것을 추천하며 평생 멘토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멘토 서명: \_\_\_\_\_

## 부록 5

## 영성측정설문지

한국교회는 물량적,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과 성숙의 균형 없는 외형적 성장은 오히려 성장하지 못한 것 보다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였다면 현시점에서 내적 성장의 균형과 조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자신의 신앙상태를 점검하여 신앙의 성장 및 성숙을 돕기 위한 테스트이며 영성지수측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각 문항의 문제를 실제 상황으로 생각하여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자의 해당란에 체크해주세요.

1. 이름:
2. 성별: 남(     ) 여(     )
3. 나이: (     )
4.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10년 이하(     ) 11-20년(     )  
21 - 30년(     )
5. 교회 출석회수(한달동안): 1-3회(     ) 4회(     ) 5-8회(     ) 8-12회(     )  
12회 이상(     )
6. 신급: 입교(     년) 세례(     년) 학습(     년) 무(     )
7. 최종학교: 중졸(     )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
8. 직업: 학생(     ) 직장인(     )
9. 가정: 믿는 가정(     ) 믿지 않는 가정(     ) 혼합 가정(     )
10. 교회 봉사하는 부서나 기관 (     )

아주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2	3	4	5

### I. R · G(하나님과의 관계)

1. 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또한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매일 큐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체험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세상의 좋은 것보다 믿음생활을 위해 포기되는 것에 조금의 후회도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산다.  
① ② ③ ④ ⑤
8.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의 평안이 충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에게 신앙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내 삶의 모든 질문에 바른 해답을 주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와 감사예물 그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학업이나 직장에 가벼운 지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암송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숙하기 원하며 이를 위해 좋은 신앙서적을 읽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도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이 분명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성경속의 기적과 이적이 나의 삶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찬양할 때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19.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순종하며 협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신앙성장을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로 훈련받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아주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2	3	4	5

## II. R · P1(성도와의 관계)

1. 나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며 그들과 교제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목회자나 교회에 세워진 리더에게 순종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교회나 성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교제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 교회학교에서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맡겨진 아이들을 가르친다.  
① ② ③ ④ ⑤
6.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보람된다.  
① ② ③ ④ ⑤
7.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 훨씬 낫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순결을 지킬 것이며 결혼은 믿는 자와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교회성도들에게 믿음의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Ⅲ. R · P2 (불신자와의 관계)

1. 어떤 장소에든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마음으로 돈을 준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진도할 때 마음이 상해도 그 사람을 불쌍해서 미워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인사성이나 예의가 밝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이웃의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슬픔을 같이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나눌 때 말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본이 되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조직이나 모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나 물질로 섬기며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은사와 인격적 열매가 맺어짐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북한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를 볼 때 눈물이 나며 돕고 싶은 마음과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 참고 문헌

## 1. 국문 서적

- 강준민. *뿌리 깊은 영성*. 서울: 두란노, 1998.
- \_\_\_\_\_. *자람의 법칙*. 서울: 두란노, 2004.
- \_\_\_\_\_. *자아 발견과 영적 성숙*. 서울: 두란노, 2000.
- 강진현. “공교육 서비스의 마케팅 전략 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
- 강희천. *기독교 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고인철.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실천사례와 모형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신대학교대학원, 2011.
- 권택조. *기독교 영성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 \_\_\_\_\_. *기독교교육심리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_\_\_\_\_. *영성발달*. 서울: 예찬사, 2000.
- 기독교 학교 연구회.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 학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 김경재.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 서울: 기독교서회, 1994.
- \_\_\_\_\_. *영성신학 서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 김순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기초*. 서울: 예수전도단, 2006.
- 김승경. *통전적 기독교 교육과 교육목회*. 서울: 쿤란출판사, 2007.
- 김양환. *한국기독교문화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김영규. *기독교 교육학 개론*.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1998.
- 김외식. “기독교 영성의 바른 이해.” *신앙계*. 1986년 4월호, 42-49.
- 김현숙. “후기 사회와 기독교교육의 과제.” *신학논단*. 2006년, 283-303.
- 김형태. *목회적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라종일, 차종환, 김 호. *교회의 갈등 그리고 화해*. 대구: 계명대학교, 2002.
- 명성훈. *성경속의 리더십 마스터 키*. 서울: 국민일보, 2000.
- \_\_\_\_\_. *창조적 리더십*. 서울: 서울서적, 1991.

- 박 건. *멘토링 목회 전략*. 서울: 나침반, 1999.
- 박범철. “교회학교의 바람직한 교사상과 교사교육.”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육대학원, 2008.
- 박아청. *내가 나답게*. 경북: 분도, 1995.
- 박형렬. *탁월한 목회리더십*. 서울: 자유, 1993.
- 서울평화교육센터.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6.
- 세인고등학교. “세인고등학교 학교소개.” No publisher. 2013년 8월 인용. Online: [http://www.seine.hs.kr/...../\\*.htm](http://www.seine.hs.kr/...../*.htm).
- 송명자.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6.
- 송인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2.
- 심성보. “학교의 위기와 대안적 학교 모형의 모색.” *교육비평*. 2001년 5월호, 120-138.
- 오성춘. *광야의 식탁*. 서울: 흥성사, 1985.
- 오인탁. “홀리즘에 대한 교육철학적 성찰.” *교육철학*. 2009년 10월호, 145-160.
- 위키백과사전. “우리정서의 발달.” 2013년 5월 13일자. 2013년 6월 인용. Online: [http://ko.wikipedia.org/wiki/...../\\*.htm](http://ko.wikipedia.org/wiki/...../*.htm).
- \_\_\_\_\_. “최소량의 법칙.” No publisher. 2013년 10월 12일 인용. Online: [http://ko.wikipedia.org/wiki/...../\\*.htm](http://ko.wikipedia.org/wiki/...../*.htm).
- 은준관. *교회의 교육적 사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_\_\_\_\_. *기독교 교육 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2002.
-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2000.
- 이선숙.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생활 이야기*. 서울: 교육과학사, 2011.
- 이성희. *디지털 목회 리더십*. 서울: 규장문화사, 2000.
- \_\_\_\_\_.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이옥형. *아동·청년 발달*. 서울: 집문당, 2002.
- 이의용. *교회 문화 혁명*.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9.
- 이종성. *통전적 신학*. 서울: 장로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 이종용. “영성지수의 타당도 검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교 대학원, 2004.
- 이지연. “한국인의 기대수명 80.1년.” *통계청*. 2009년 12월 11일자. 2013년 6월 인용.

Online: [http://kostat.go.kr/...../\\*.htm](http://kostat.go.kr/...../*.htm).

장화선. "바람직한 교회 아동 교육: 왜? 어떻게?" *신학지평*. 1998년 봄호, 63-76.

장휘숙. *인간발달-전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2000.

정원식, 이상로, 이성진. *현대교육 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1996.

정정미. *현대 기독교 교육 입문*. 서울: 도서출판 혜본, 2001.

조은하. "통전적 영성교육 연구-일상생활의 영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최봉기. "영성과 목회: 자연적 교회성장론의 비판과 보완관계 속에서." *복음과 실천*.  
2000년 9월호, 378-379.

최임선. *신앙발달 과정*. 서울: 종로서적성서출판, 2000.

한국리더십학교. *하나님나라와 리더십*. 서울: 두란노서원, 2008.

허금희. "교회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

황해범. "2012 청소년 통계." *통계청*. 2012년 5월 2일자. 2013년 6월 인용. Online:  
[http://kostat.go.kr/...../\\*.htm](http://kostat.go.kr/...../*.htm).

황화자. "기독교 영성의 이론과 실제." *기독교 교육*. 1987년 2월호, 15-21.

## 2. 번역 서적

Banks, Robert, and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The Church Comes Home)*.  
장동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9.

Barna, George.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Leader who possess leadership)*. 최기운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2000.

\_\_\_\_\_. *비전있는 지도자 비전있는 사역 (The Power of Vision)*. 관춘희 역. 서울:  
조이선교회, 1993.

Berkhof, Louis. *조직신학 하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2004.

Billy Graham Center's Institution. *멘토와 함께하는 제자훈련 셀프스터디 (Training  
Leaders to Make Disciples)*. 김명호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 2002.

Boshers, Bo. *윌로우크릭 교회 청소년 사역 (Student Ministry For The 21st*

- Century). 이상신, 이상준 역. 서울: 두란노, 2000.
- Buch, Dale. *삶을 즐기는 리더십 (Less is More Leadership)*. 강주현, 황진아 역. 서울: 도서출판 가이드포스트, 2006.
- Bynum, Bill. *청소년 이해와 교회교육 (Understanding and church youth education)*. 김현철 역. 서울: 나침반, 1985.
- Dawson, Joy.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Forever Ruined for the Ordinary : The Adventure of Hearing and Obeying Gods Voice)*. 방원선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2.
- Demarest, Bruce. *영혼을 생기나게 하는 영성 (Satisfy Your Soul)*. 김석원 역. 서울: 설만한 물가, 2007.
- Downs, Perry G. *기독교 교육학 개론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Teaching for Spiritual Growth)*. 엄성욱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10.
- Eavey, Benton C. *기독교 교육 원리 (Principles of Teaching for Christians Teachers)*.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Foster, Richard J. *기도 (Prayer)*. 송준인 역. 서울: 두란노, 1996.
- Gibbs, Eugens S. *한권으로 읽는 교육학 명저 24선 (A Reader in Christian Education: Foundations and Basic Perspective)*. 독고앤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9.
- Greene, Albert E.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현은자, 정희영, 황보영란 역. 서울: 도서출판 CUP, 2009.
- Haggai, John E. *미래는 진정한 리더를 요구한다 (Lead on)*. 임하나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7.
- Harper, Motman. *현대 기독교 교육 (Christian Education)*.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84.
- Hocking, David L. *기독교 리더십의 7가지 원리 (The Seven Lows of Christian Leadership)*. 김원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 Hoekima, Anthony A. *개혁주의 인간론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Houston, James M. *멘토링 받는 삶 (The mentored life)*. 권영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 학생회출판부, 2004.
- Kim, Seyoon. *바울복음의 기원 (The Origin of Paul's Gospel)*. 홍성희 역. 서울: 엠마오, 2001.
- Knight, Harold. *칼빈의 신학사상 (The Theology of Calvin)*. 기독교학술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7.
- LaNoue, Deidre. *헨리 나우웬과 영성 (The Spiritual Legacy of Henri Nouwen)*. 유해룡 역. 서울: 예영, 2003.
- Maxwell, John.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 (The 21 Irrefutable Laws of Leadership)*. 채천석 역. 서울: 도서출판 청우, 1999.
- Meiers, Ken. *대중문화는 기독교의 적인가, 동지인가 (All God's Children and Blue Suede Shoes)*. 오현미 역. 서울: 나침반사, 1992.
- Murray, Andrew.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 (The Believer's Daily Renewal)*. 박이경 역. 서울: 아가페, 2004.
- Packer, James I. *성령을 아는 지식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홍종락 역. 서울: 홍성사, 2002.
- Sanders, J. Oswald. *지도자 바울 (Paul the Leader)*. 번역부 역. 서울: 네비게이트, 1987.
- Santrock, John W. *청년심리학 (Adolescence)*. 김현정 외 역. 서울: 도서출판 박학사, 2004.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 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인 외 역. 서울: NCD, 1999.
- Solomon, Charles R. *영적 치유의 핵심 (Hand To Happiness)*. 김우생 역. 서울: 나침반, 1998.
- Watson, David. *제자도 (Discipleship)*.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99.
- Wenham, David. *바울서신 서론 (Paul and Jesus - The True Story)*. 이한수 역. 서울: 크리스천 출판사, 2004.
- Wilkinson, Bruce H. *포도나무의 비밀 (Secrets of the Vine)*. 마영례 역. 서울: 디모

데, 2002.

Wright, Walter C. *관계를 통한 리더십 (Relational Leadership)*. 양혜정 역. 서울: 예수 전도단, 2007.

Zuck, Roy B. *교회와 청소년 교육 (Youth and The Church: A Survey of the Church's Ministry to Youth)*.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Anderson, Keith R., and Randy D. Reese. *영적 멘토링 (Spiritual Mentoring: A Guide for Seeking and Giving Direction)*. 김종호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1.

Blanchard, Ken, and Bill Hybels, and Phil Hodges. *이야기로 푸는 예수님의 리더십 (Leadership by the Book)*. 함택 역. 서울: 두란노, 1999.

Hendricks, Howard, and William Hendricks. *멘토링으로 성장하는 법 (Mentoring Handbook)*. 전의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4.

Wilhoit, James C., and John M. Dettoni. *발달주의적 시각으로 본 기독교적 양육 (Nurture that Christian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Christian Education)*. 김도일, 김정훈 역. 서울: 콤파스출판사, 2005.

### 3. 외국서적

Anthony, Michael J. *Evangelical Dictionary of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01.

Dobbins, G. S. *How to Teach Young People and Adults in the Sunday School*. Nashville: Sunday School Board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1930.

Eddy Jr., Edward D. *The Collegy Influence on Student Character*. Washington, D. 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59.

Erikson, Erik H.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W.Norton, 1950.

\_\_\_\_\_.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Norton, 1968.

Fowler, James.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rper&Row, 1981.

- Friedenberg, Edgar. *The Vanishing Adolescent*. Boston: Beacon Press, 1959.
- Kohlberg, Laurence.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Pages 347-480 in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Edited by David A. Goslin. Chicago: Rand McNally, 1969.
- \_\_\_\_\_.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San Francisco: Harper&Row, 1984.
- Piaget, Jean. *Intellectual evolution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Human Development*.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2.
- \_\_\_\_\_. *The construction of reality in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 1954.
- \_\_\_\_\_.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52.
- Roberts, Seldon L. *Teaching in the Church School: a Manual of Principles and Methods for Church School Teachers*. Philadelphia: The Judson Press, 1927.
- Sanders, J. Oswald. *Spiritual Maturity*. Chicago, IL: Moody Press, 1944.
- Sanner, Elwood A. *Exploring Christian Educatio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78.
- Zuck, Roy B. *Spiritual Power in Your Teaching*. Chicago: Moody Press, 1972.

Vita of  
Dae Eun Kim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of SungRyung Presbyterian Church, CA, USA

Personal Data:

Birthdate: June 12, 1969  
Marital Status: Married to EunJu Kim with two children,  
Eearim and Yea Eun  
Home Address: 1025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Phones: 213-379-6674  
Denomination: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Ordained: October 14, 2003.

Education:

B. A.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Kyung Buk, 1998.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2.  
Th. M. Asia United Theological Seminary(ACTS),  
Kyungido, 2010.  
Dr.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3.

Personal Experience:

2013 to present Assistant Pastor of SungRyung Presbyterian  
Church



2008 to 2010	Assistant Pastor of Konghangseongsan Church
2005 to 2007	Assistant Pastor of Kangnam Church